혁명가극선곡집

조선·평양 문예출판사
1 9 7 3

혁명가극선곡집

SÒNGS FROM REVOLUTIONARY OPERAS

CHANSONS TIREES DES OPERAS REVOLUTIONNAIRES

조선 · 평양　　문예출판사

Literature and Art Publishing House
Pyongyang, Korea

Editions de la Littérature et de l'Art
Pyongyang, Corée

1973

차 례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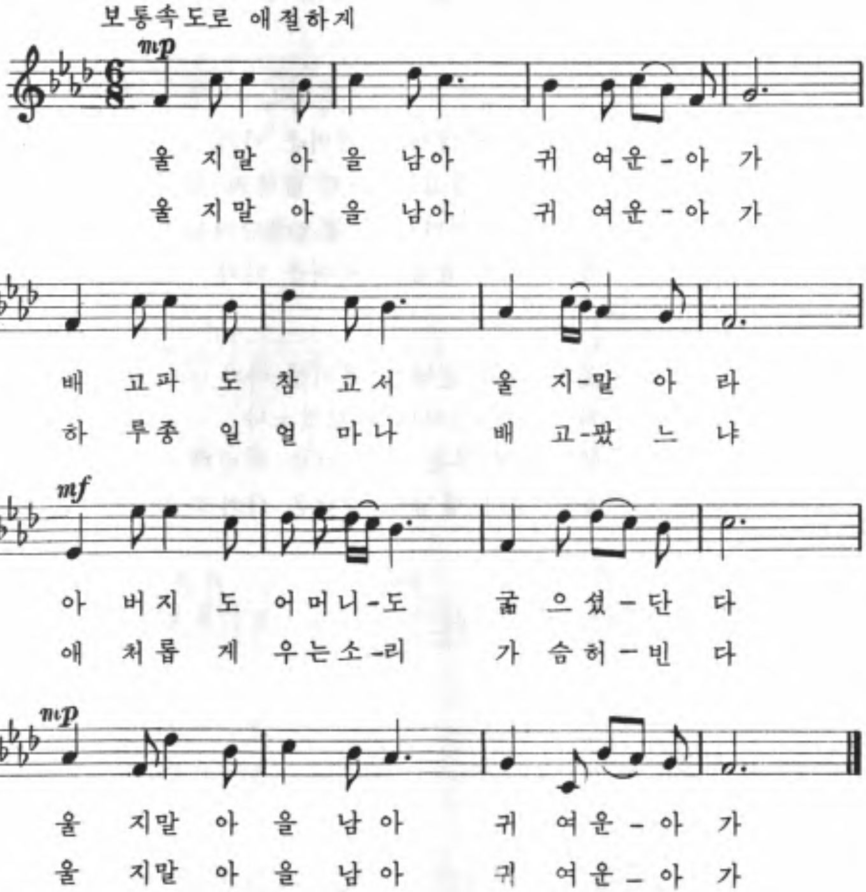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

THE REVOLUTIONARY OPERA
"SEA OF BLOOD"
FROM THE IMMORTAL CLASSIC
"SEA OF BLOOD"

L'OPERA REVOLUTIONNAIRE
"LA MER DE SANG"
TIRE DU CHEF-D'ŒUVRE
CLASSIQUE ET IMMORTEL
"LA MER DE SANG"

울지 말아 울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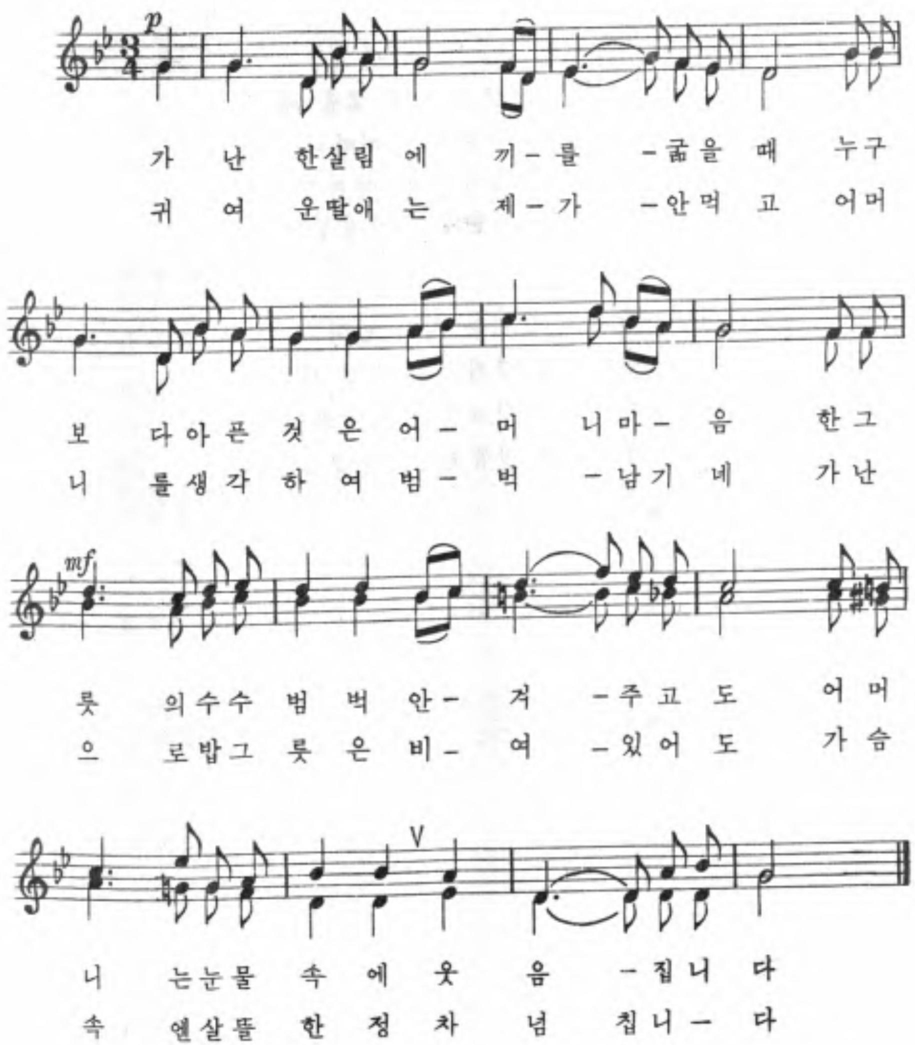

보통속도로 애절하게
mp
울 지말 아 울 남아 귀 여운-아 가
울 지말 아 울 남아 귀 여운-아 가
배 고파 도 참 고서 울 지-말 아 라
하 루종 일 얼 마나 배 고-팠 느 냐
mf
아 버지 도 어머니-도 굶 으셨-단 다
애 처롭 게 우는소-리 가 슴허-빈 다
mp
울 지말 아 울 남 아 귀 여운-아 가
울 지말 아 울 남아 귀 여운-아 가

울지 말아 울남아

울지 말아 울남아 귀여운 아가
배고파도 참고서 울지 말아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굶으셨단다
울지 말아 울남아 귀여운 아가

울지 말아 울남아 귀여운 아가
하루종일 얼마나 배고팠느냐
애처롭게 우는 소리 가슴 허빈다
울지 말아 울남아 귀여운 아가

가난한 살림에도 살뜰한 정 오고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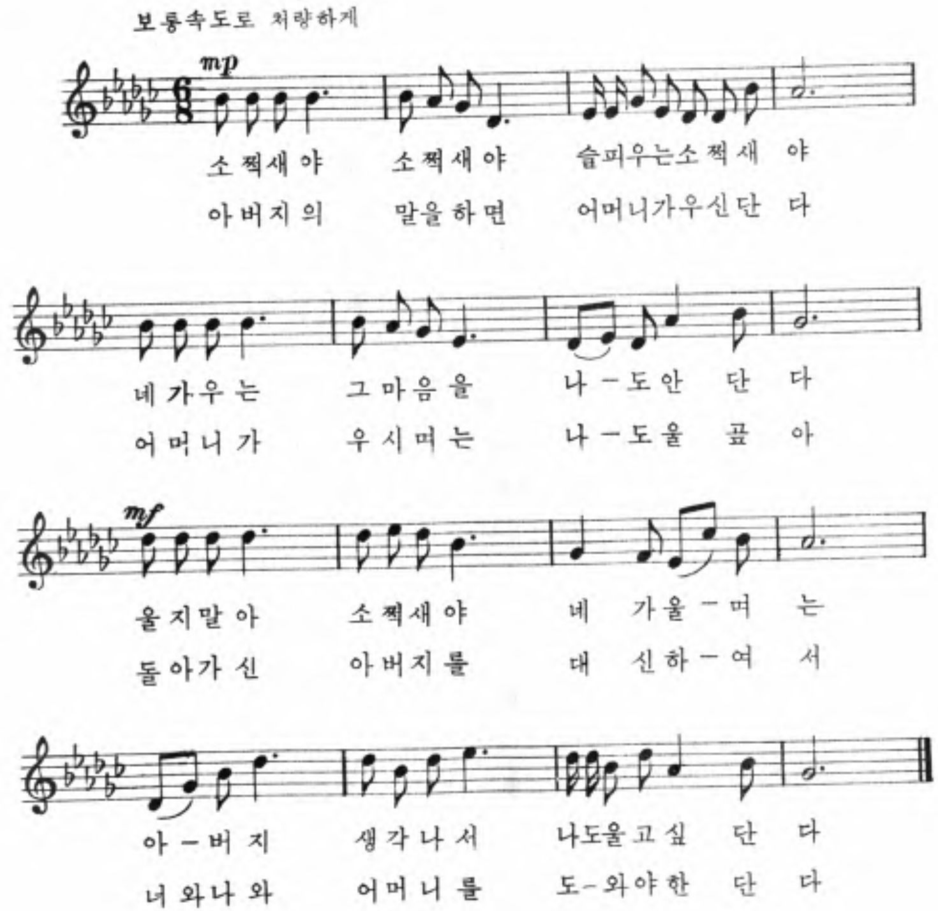


가난한 살림에도 살뜰한 정 오고가네

가난한 살림에 끼를 굶을 때
누구보다 아픈것은 어머니 마음
한그릇의 수수범벅 안겨주고도
어머니는 눈물속에 웃음집니다

귀여운 딸애는 제가 안먹고
어머니를 생각하여 범벅 남기네
가난으로 밥그릇은 비여있어도
가슴속엔 살뜰한 정 차넘칩니다

소 쩍 새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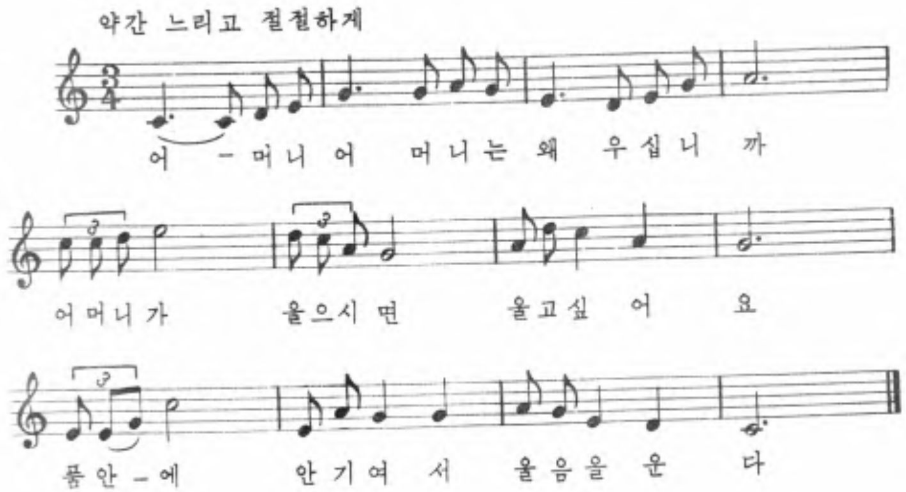


소쩍새야

소쩍새야 소쩍새야 슬피 우는 소쩍새야
네가 우는 그 마음을 나도 안단다
울지 말아 소쩍새야 네가 울며는
아버지 생각나서 나도 울고싶단다

아버지의 말을 하면 어머니가 우신단다
어머니가 우시며는 나도 울곺아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너와 나와 어머니를 도와야 한단다

《토 벌 가》



어머니 어머니는 왜 우십니까
어머니가 울으시면 울고싶어요
품안에 안기여서 울음을 운다

돈이 없고 무기 없는 우리 민족은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죽은자중에
네 아버지 그가운데 한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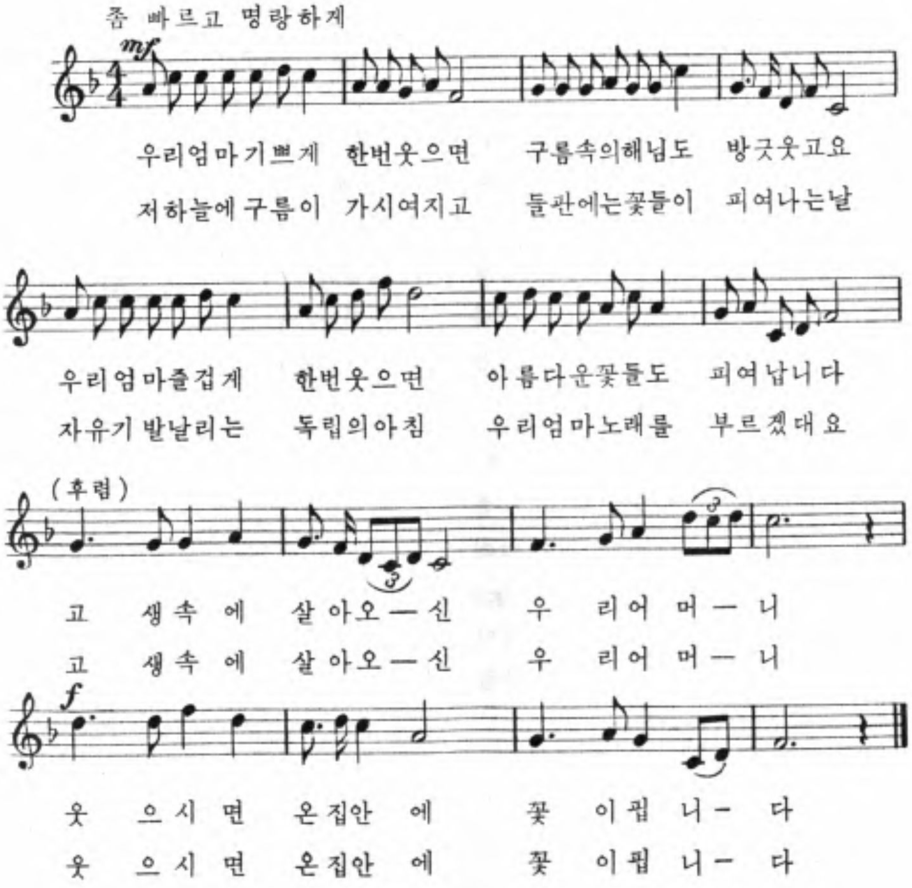
애처롭고 슬프도다 원쑤의 손에
불에 타고 몸이 찢겨 원통하게도
네 아버지 원한 품고 돌아갔구나

흐르는 눈물을 서로 닦으며
생각하니 살아갈 길 막막하구나
원한의 거친땅에 찬바람 분다

울지 말자 아이들아 울지를 말자
운다고서 이 원한이 가시여지랴
저 산을 넘어가서 살길을 찾자

억눌리고 짓밟히는 인민을 위해
이 한목숨 다 바쳐 싸워가리라
혁명의 붉은 맹세 굳게 다진다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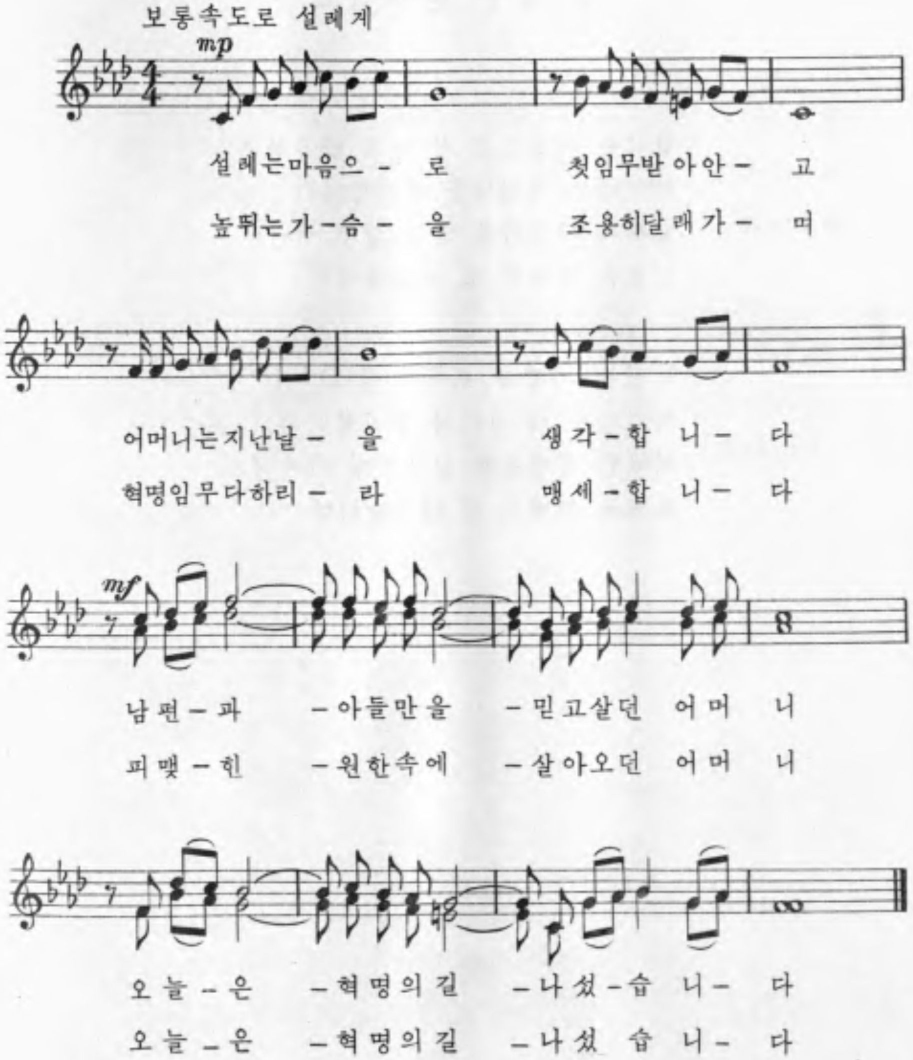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구름속의 해님도 방긋 웃고요
우리 엄마 즐겁게 한번 웃으면
아름다운 꽃들도 피여납니다
고생속에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웃으시면 온집안에 꽃이 핍니다

저 하늘에 구름이 가시여지고
들판에는 꽃들이 피여나는 날
자유기발 날리는 독립의 아침
우리 엄마 노래를 부르겠대요
고생속에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웃으시면 온집안에 꽃이 핍니다

첫 임무 받아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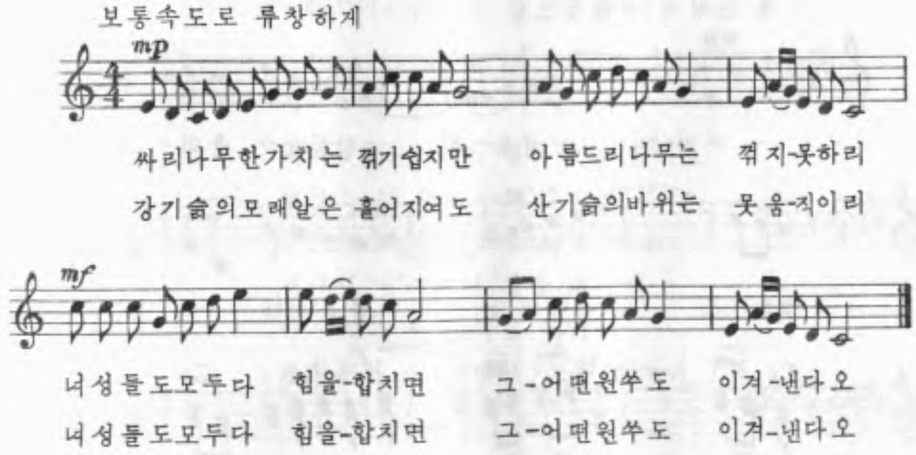


첫 임무 받아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임무 받아안고
어머니는 지난날을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들만을 믿고 살던 어머니
오늘은 혁명의 길 나섰습니다

높뛰는 가슴을 조용히 달래가며
혁명임무 다 하리라 맹세합니다
피맺힌 원한속에 살아오던 어머니
오늘은 혁명의 길 나섰습니다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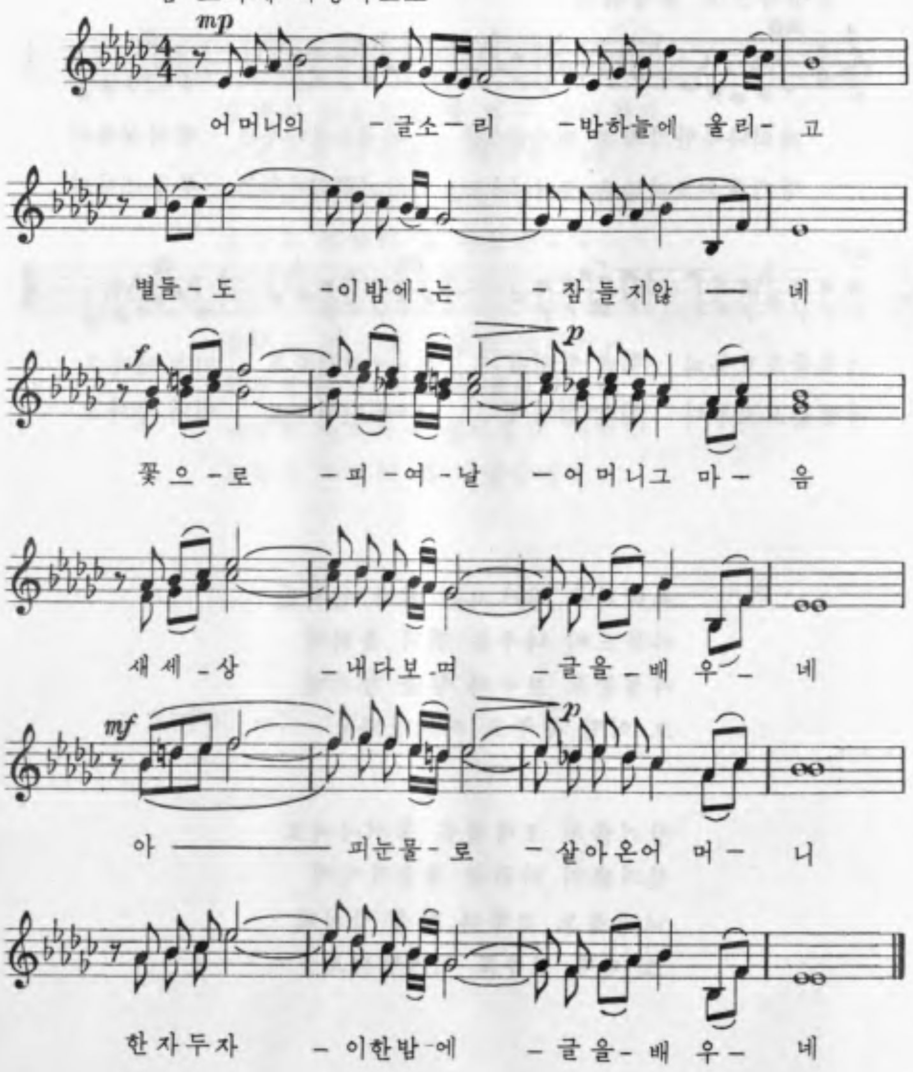


싸리나무 한가치는 꺾기 쉽지만
아름드리 나무는 꺾지 못하리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원쑤도 이겨낸다오

강기슭의 모래알은 흩어지여도
산기슭의 바위는 못움직이리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원쑤도 이겨낸다오

어머니는 글을 배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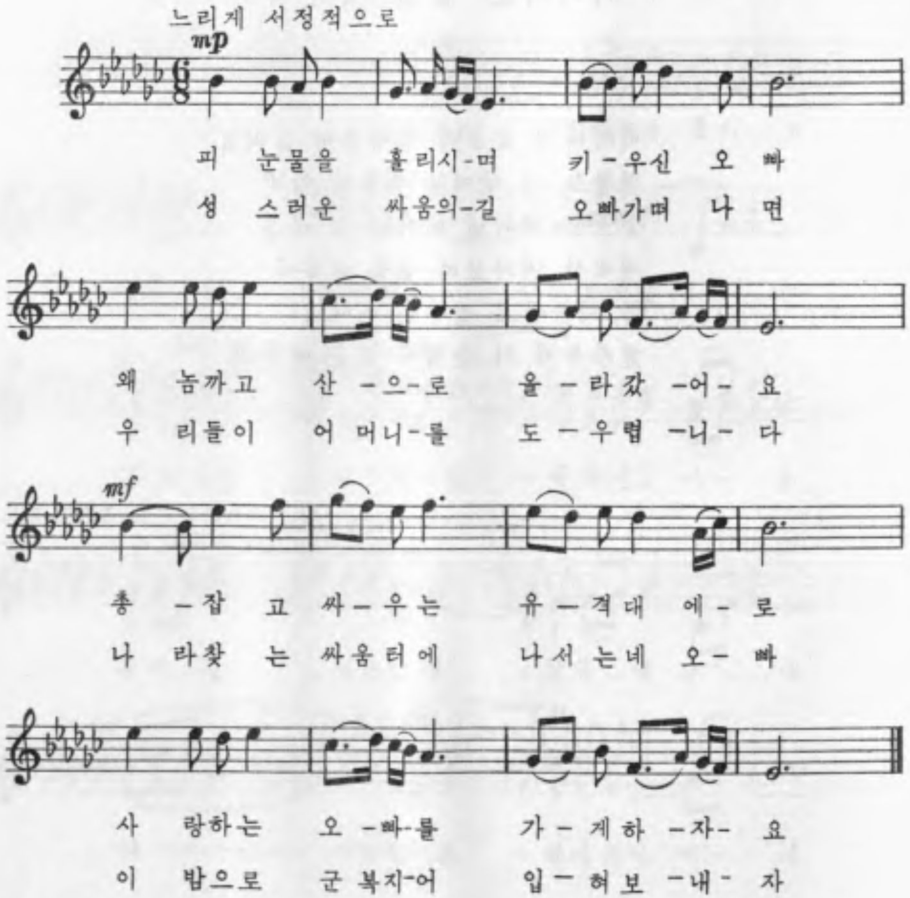
좀 느리게 서정적으로



어머니는 글을 배우네

어머니의 글소리 밤하늘에 울리고
별들도 이 밤에는 잠들지 않네
꽃으로 피여날 어머니 그 마음
새세상 내다보며 글을 배우네
아 피눈물로 살아온 어머니
한자두자 이 한밤에 글을 배우네

사랑하는 오빠를 유격대에 보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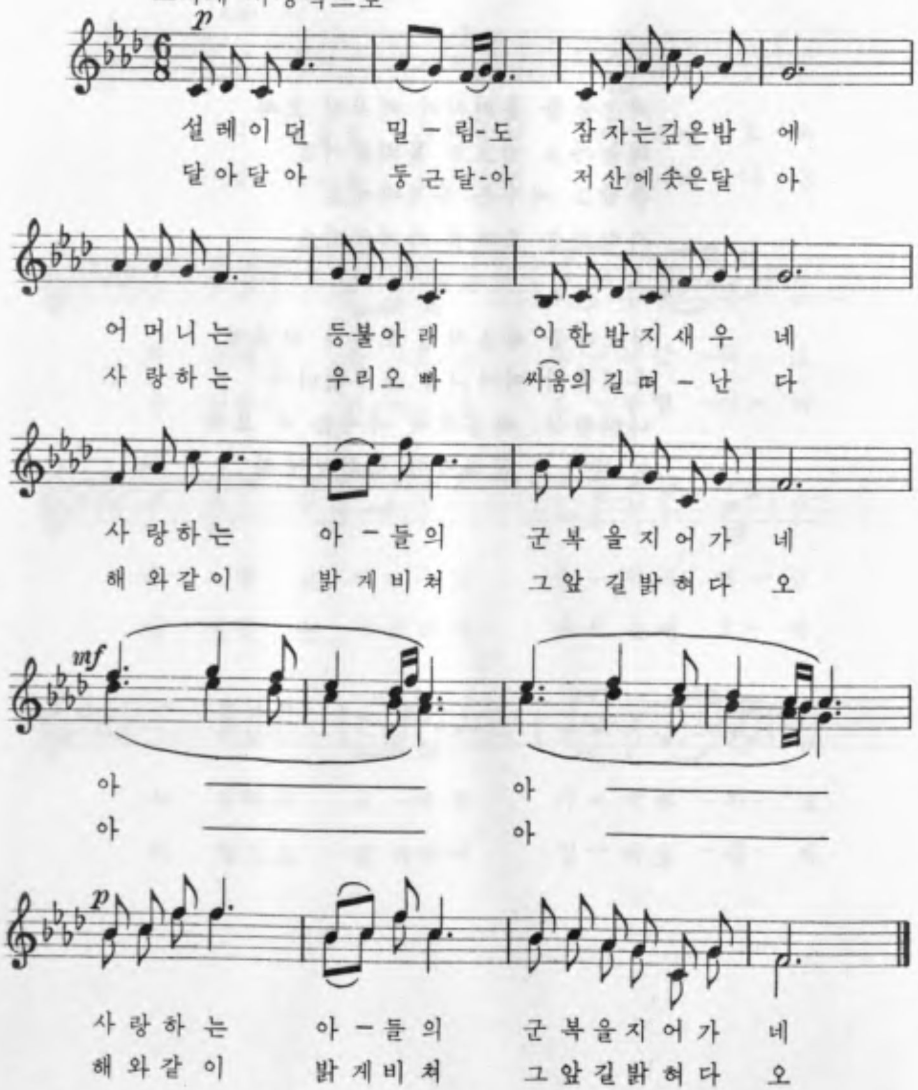


사랑하는 오빠를 유격대에 보내자요

피눈물을 흘리시며 키우신 오빠
왜놈까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총잡고 싸우는 유격대에로
사랑하는 오빠를 가게하자요

성스러운 싸움의길 오빠가 떠나면
우리들이 어머니를 도우렵니다
나라찾는 싸움터에 나서는 네 오빠
이 밥으로 군복지어 입혀보내자

그 앞길 밝혀다오

느리게 서정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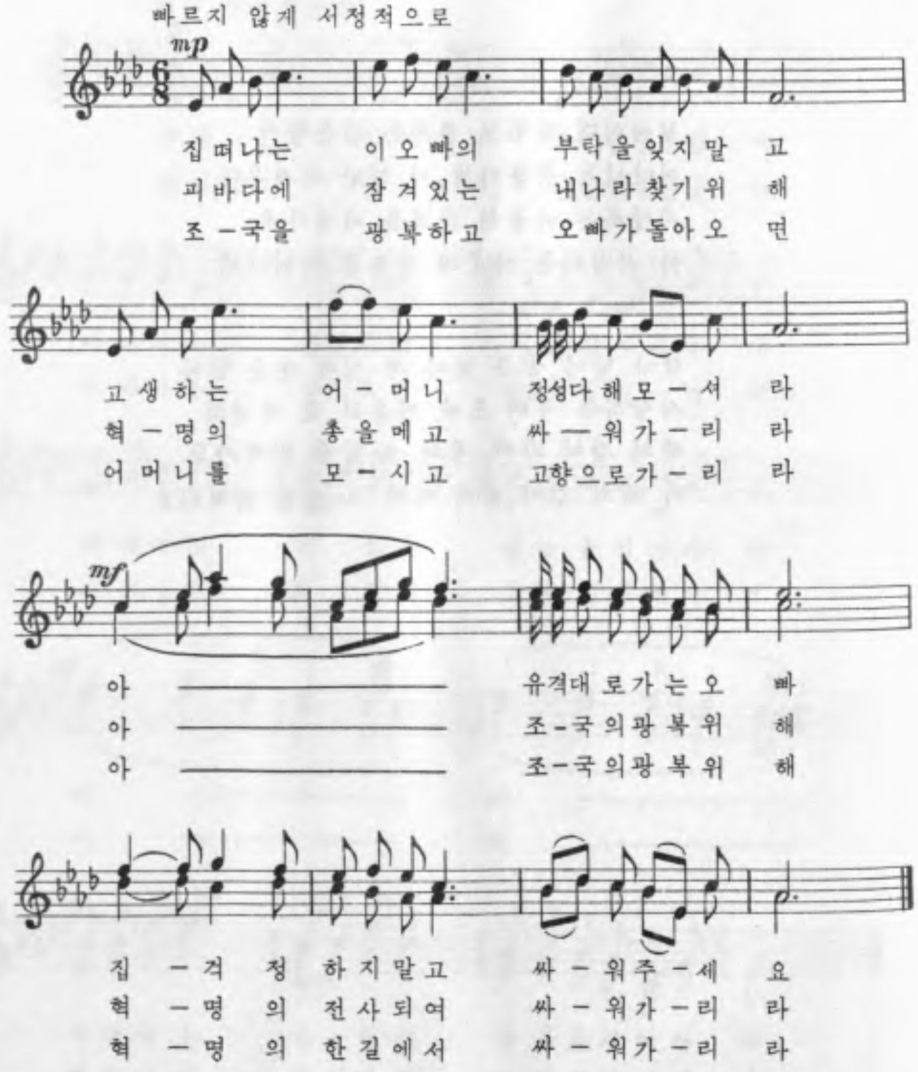


그 앞길 밝혀다오

설레이던 밀림도 잠자는 깊은밤에
어머니는 등불아래 이 한밤 지새우네
사랑하는 아들의 군복을 지어가네
아 사랑하는 아들의 군복을 지어가네

달아 달아 둥근 달아 저 산에 솟은 달아
사랑하는 우리 오빠 싸움의 길 떠난다
해와 같이 밝게 비쳐 그 앞길 밝혀다오
아 해와 같이 밝게 비쳐 그 앞길 밝혀다오

혁명의 한길에서 싸워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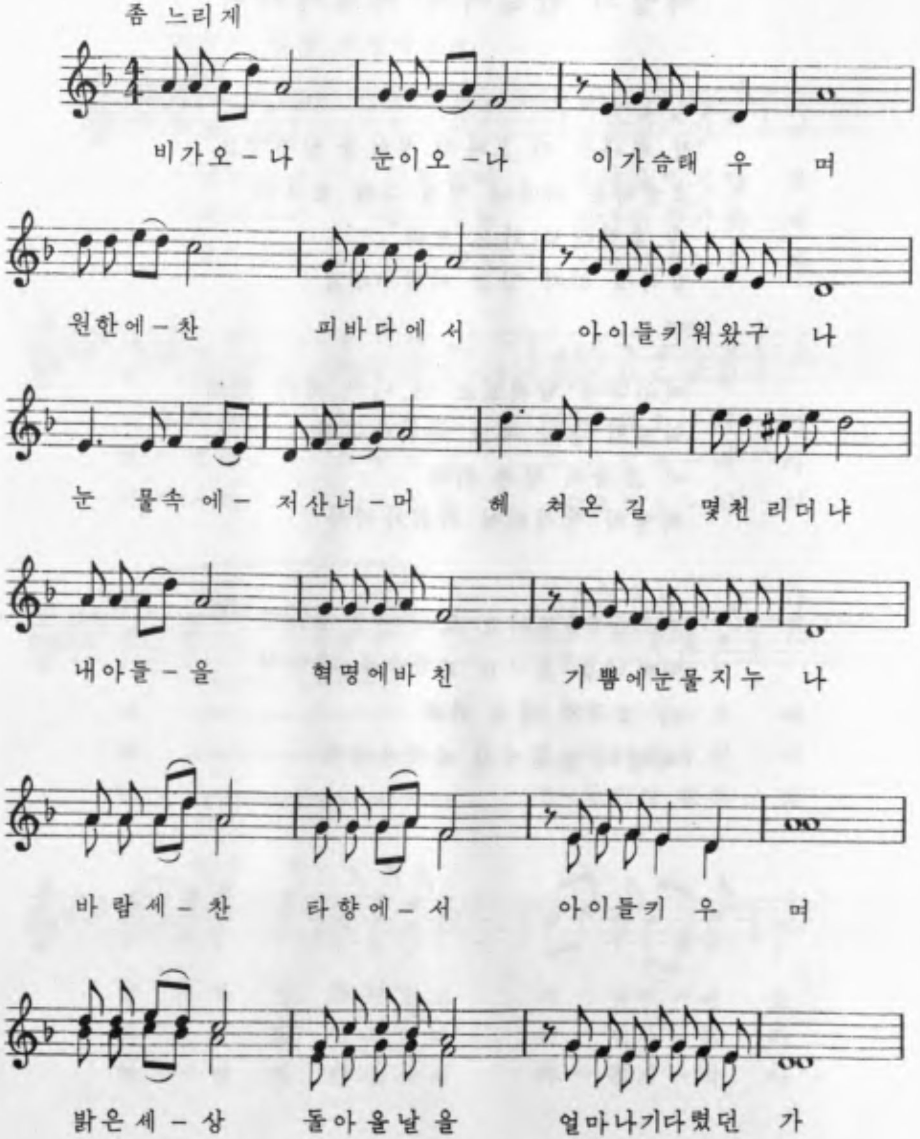
혁명의 한길에서 싸워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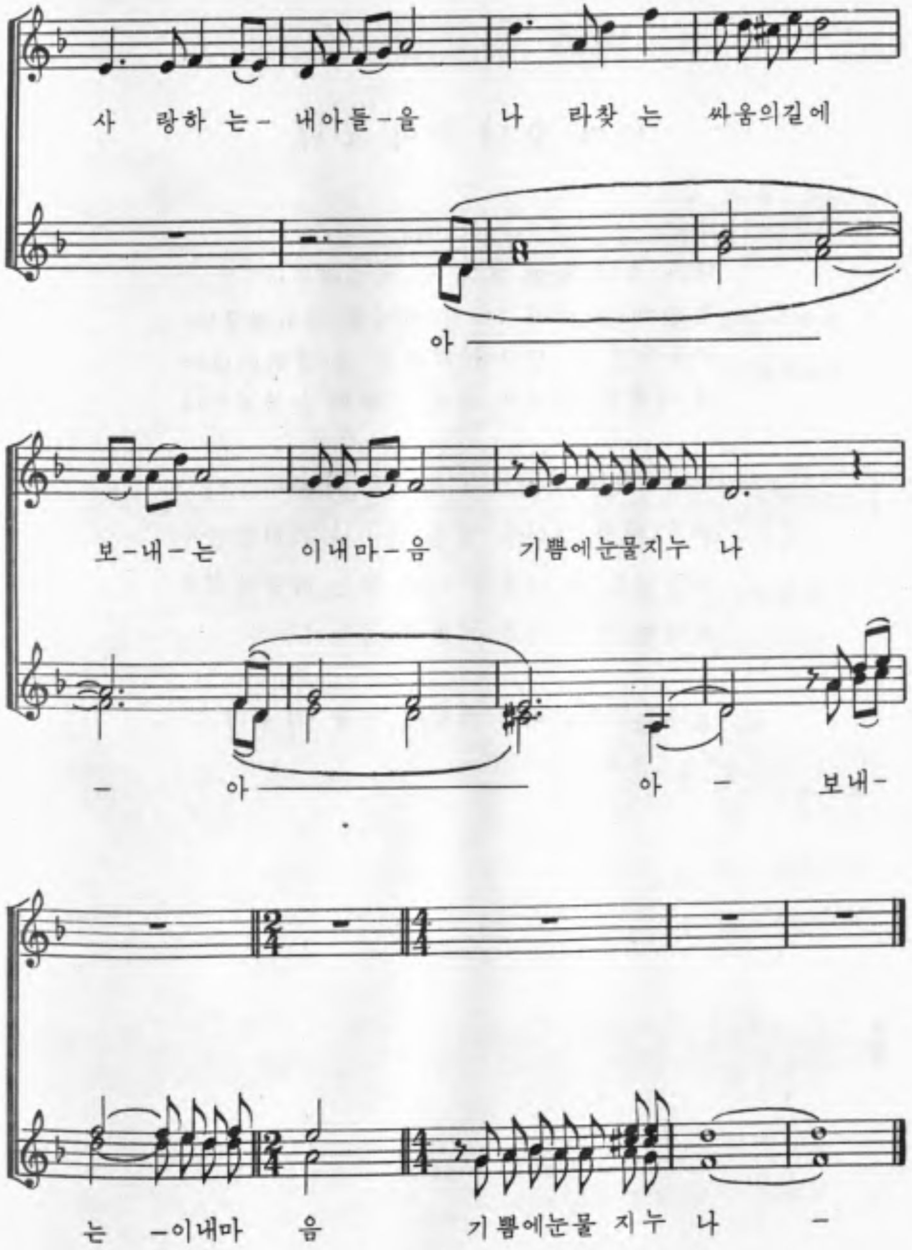
집 떠나는 이 오빠의 부탁을 잊지말고
고생하는 어머니 정성 다해 모셔라
아 유격대로 가는 오빠
집걱정 하지 말고 싸워주세요

피바다에 잠겨있는 내 나라 찾기 위해
혁명의 총을 메고 싸워가리라
아 조국의 광복 위해
혁명의 전사되여 싸워가리라

조국을 광복하고 오빠가 돌아오면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가리라
아 조국의 광복 위해
혁명의 한길에서 싸워가리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좀 느리게
비가오－나 눈이오－나 이가슴태 우 며
원한에－찬 피바다에서 아이들키워왔구 나
눈 물속 에－ 저산너－머 헤 쳐온 길 몇천 리더 냐
내아들－을 혁명에바 친 기쁨에눈물지누 나
바 람 세－찬 타향에－서 아이들키 우 며
밝은 세－상 돌아올날 을 얼마나기다렸던 가


사 랑하 는－ 내아들－을 나 라찾 는 싸움의길에
아
보－내－는 이내마－음 기쁨에눈물지누 나
－ 아 아 － 보내－
는 －이내마 음 기쁨에눈물 지누 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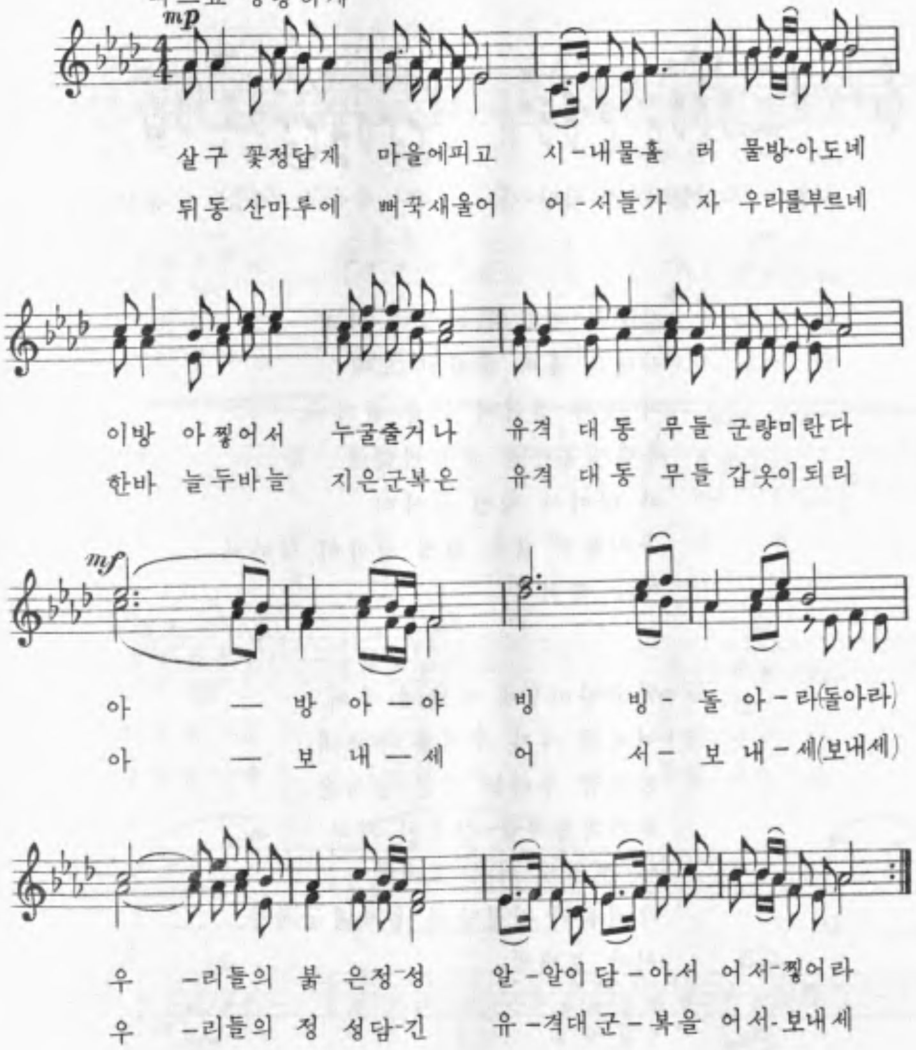
비가 오나 눈이 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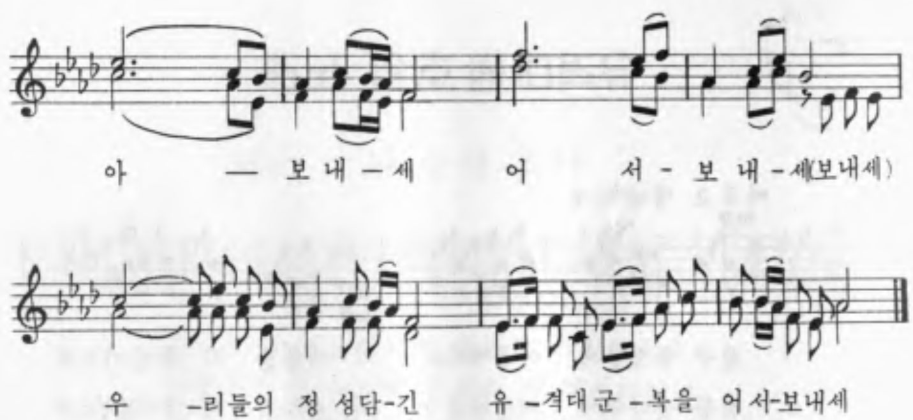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가슴태우며
원한에 찬 피바다에서 아이들 키워왔구나
눈물속에 저 산너머 헤쳐온 길 몇천리더냐
내 아들을 혁명에 바친 기쁨에 눈물지누나

바람 세찬 타향에서 아이들 키우며
밝은 세상 돌아올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나라 찾는 싸움의 길에
보내는 이내 마음 기쁨에 눈물지누나

보내는 이내 마음 기쁨에 눈물 지누나

유격대원호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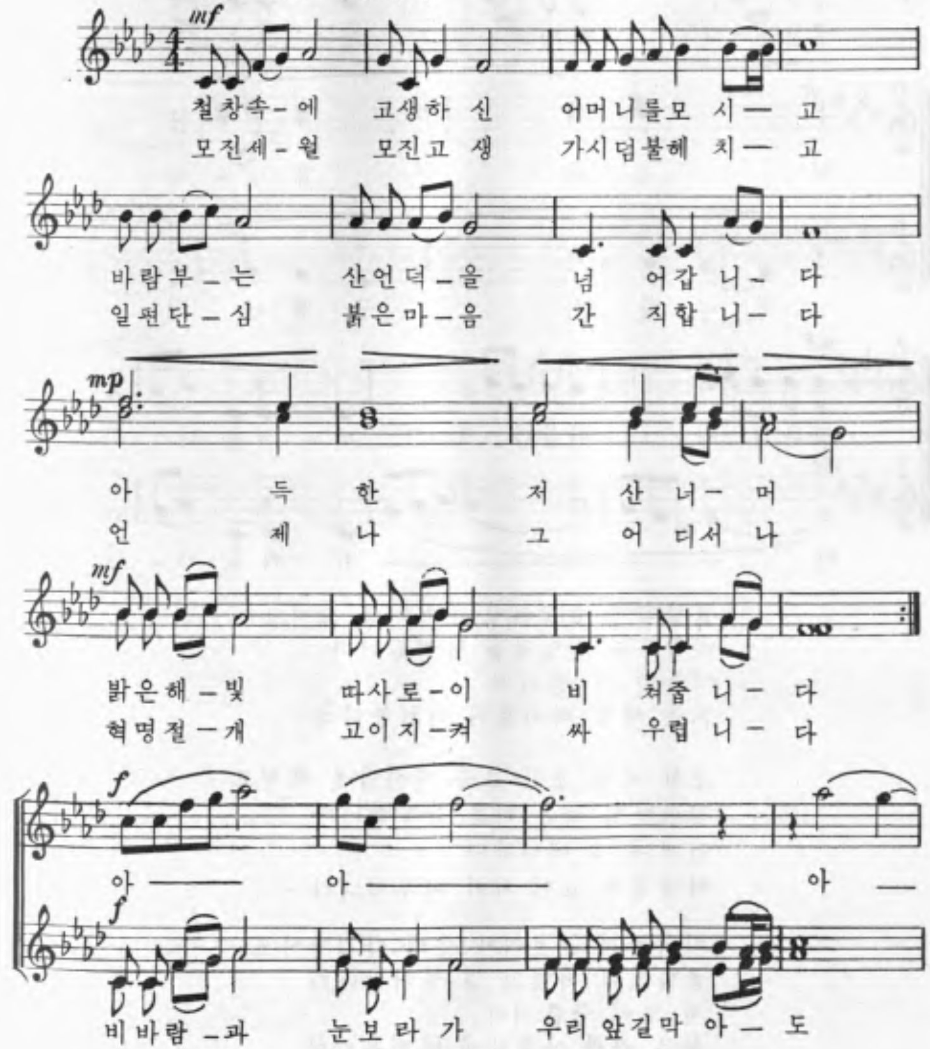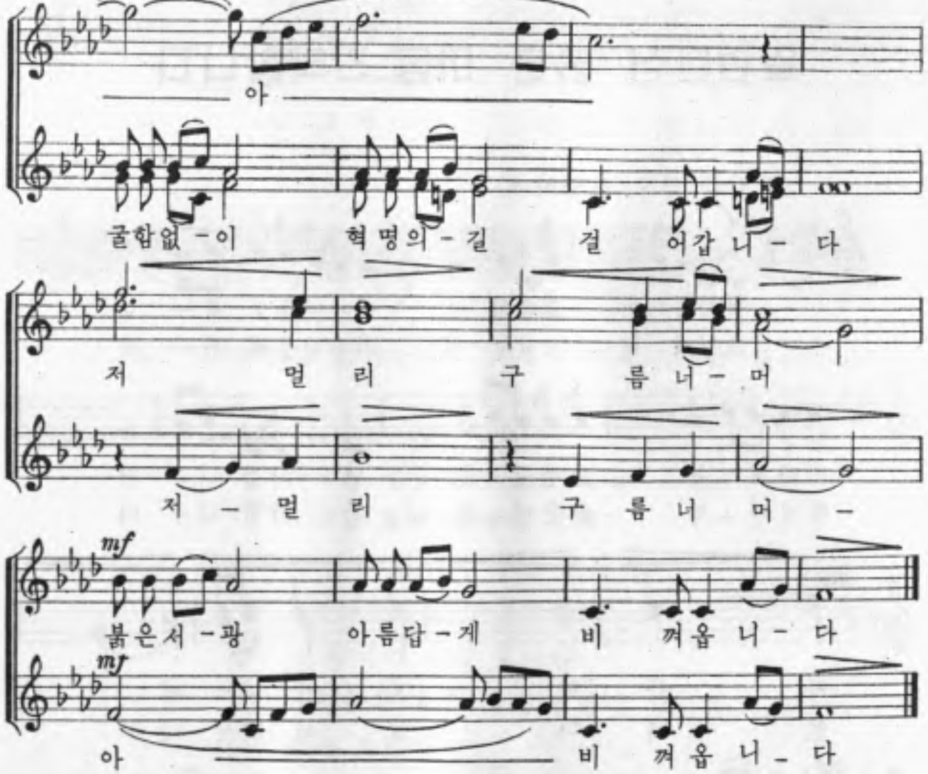




살구꽃 정답게 마을에 피고
시내물 흘러 물방아 도네
이 방아 찧어서 누굴 줄거나
유격대동무들 군량미란다
아 방아야 빙빙 돌아라
우리들의 붉은 정성 알알이 담아서
어서 찧어라

뒤동산마루에 뻐꾹새 울어
어서들 가자 우리를 부르네
한바늘 두바늘 지은 군복은
유격대동무들 갑옷이 되리
아 보내세 어서 보내세
우리들의 정성담긴 유격대군복을
어서 보내세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희망을 안고 처량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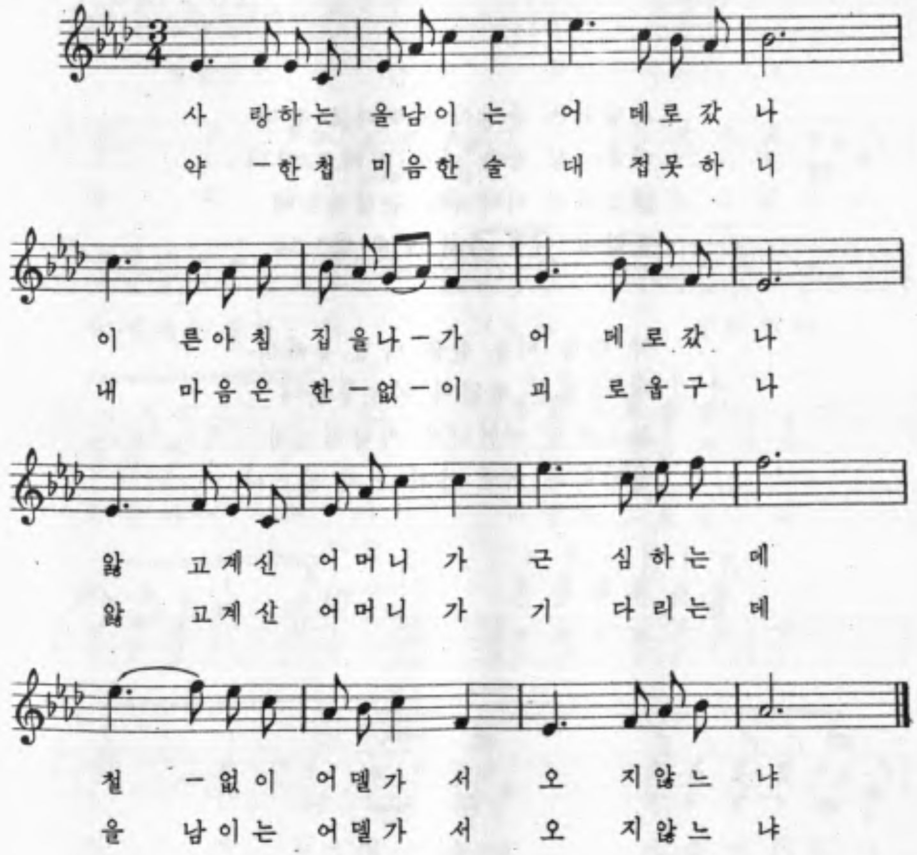




철창속에 고생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바람부는 산언덕을 넘어갑니다
아득한 저 산너머
밝은 해빛 따사로이 비쳐줍니다

모진 세월 모진 고생 가시덤불 헤치고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언제나 그 어디서나
혁명절개 고이 지켜 싸우렵니다

비바람과 눈보라가 우리 앞길막아도
굴함없이 혁명의 길 걸어갑니다
저 멀리 구름너머
붉은 서광 아름답게 비껴옵니다

사랑하는 을남이는 어데로 갔나

보통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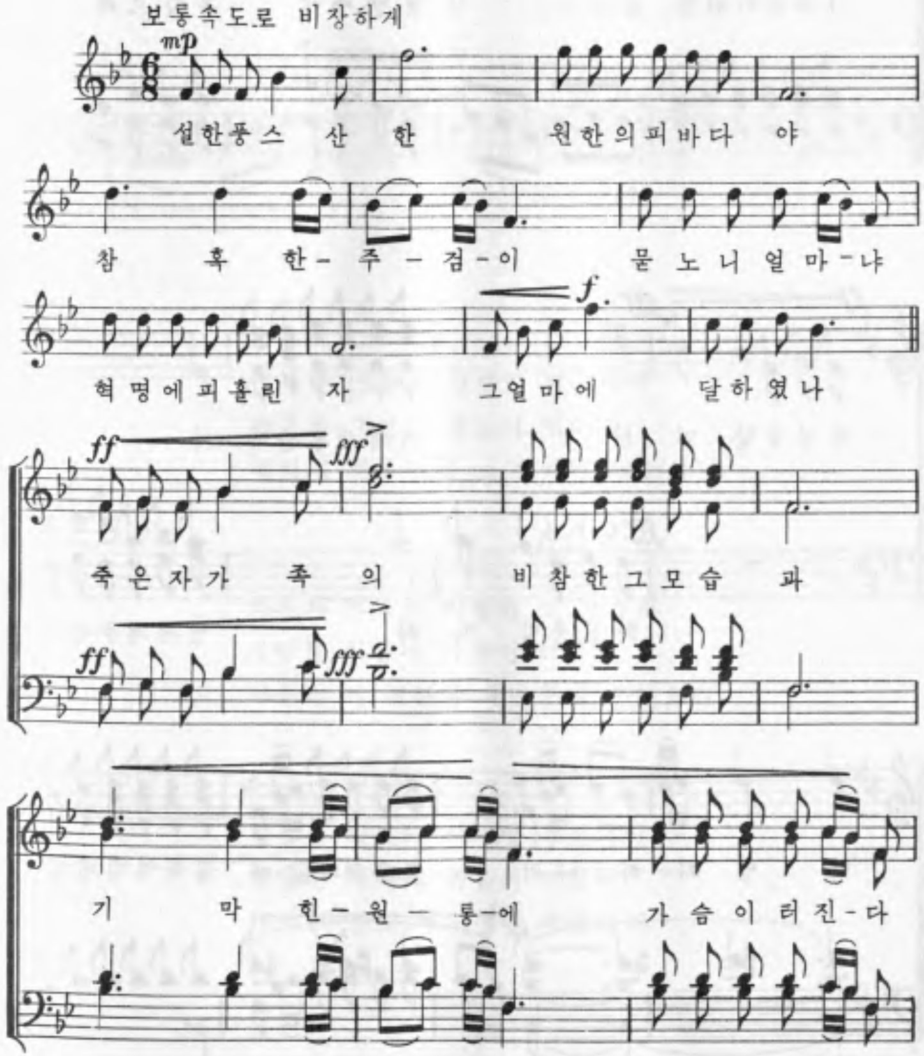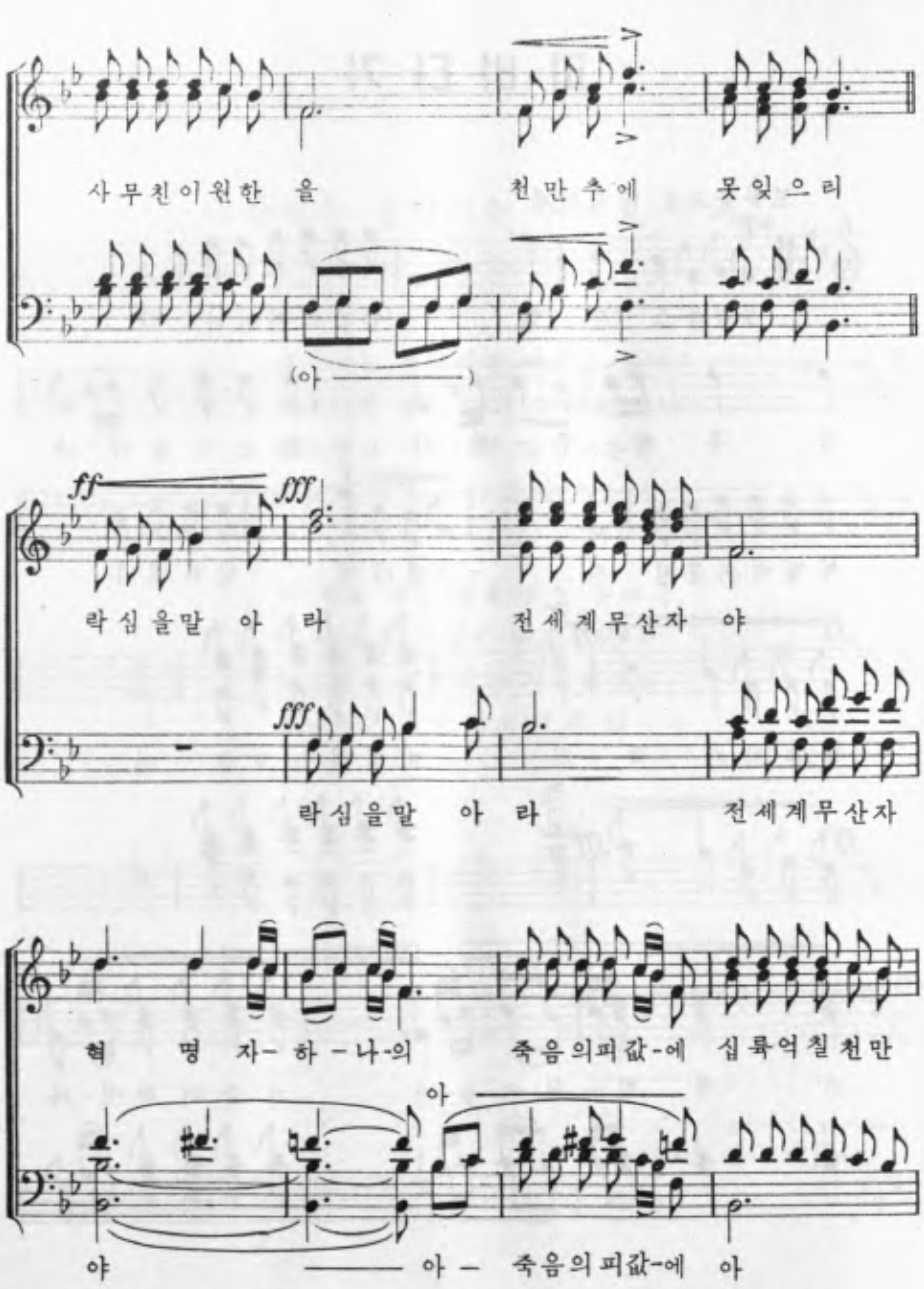


사랑하는 울남이는 어데로 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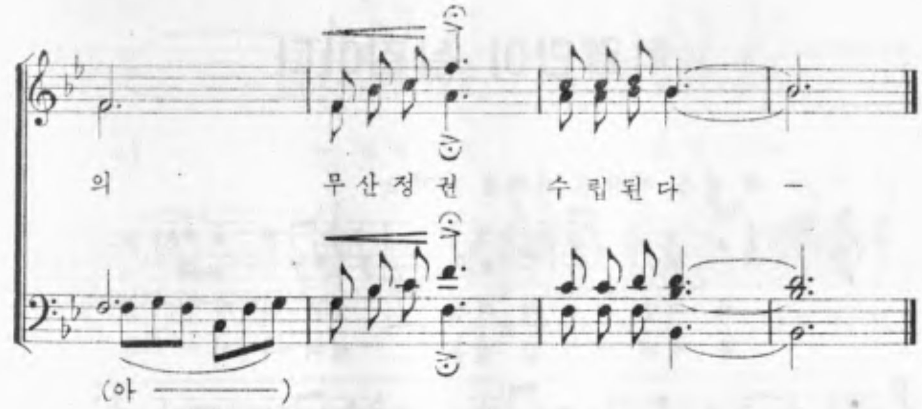
사랑하는 울남이는 어데로 갔나
이른아침 집을 나가 어데로 갔나
앓고계신 어머니가 근심하는데
철없이 어델 가서 오지 않느냐

약 한첩 미음 한술 대접 못하니
내 마음은 한없이 피로웁구나
앓고계신 어머니가 기다리는데
울남이는 어델 가서 오지 않느냐

피 바 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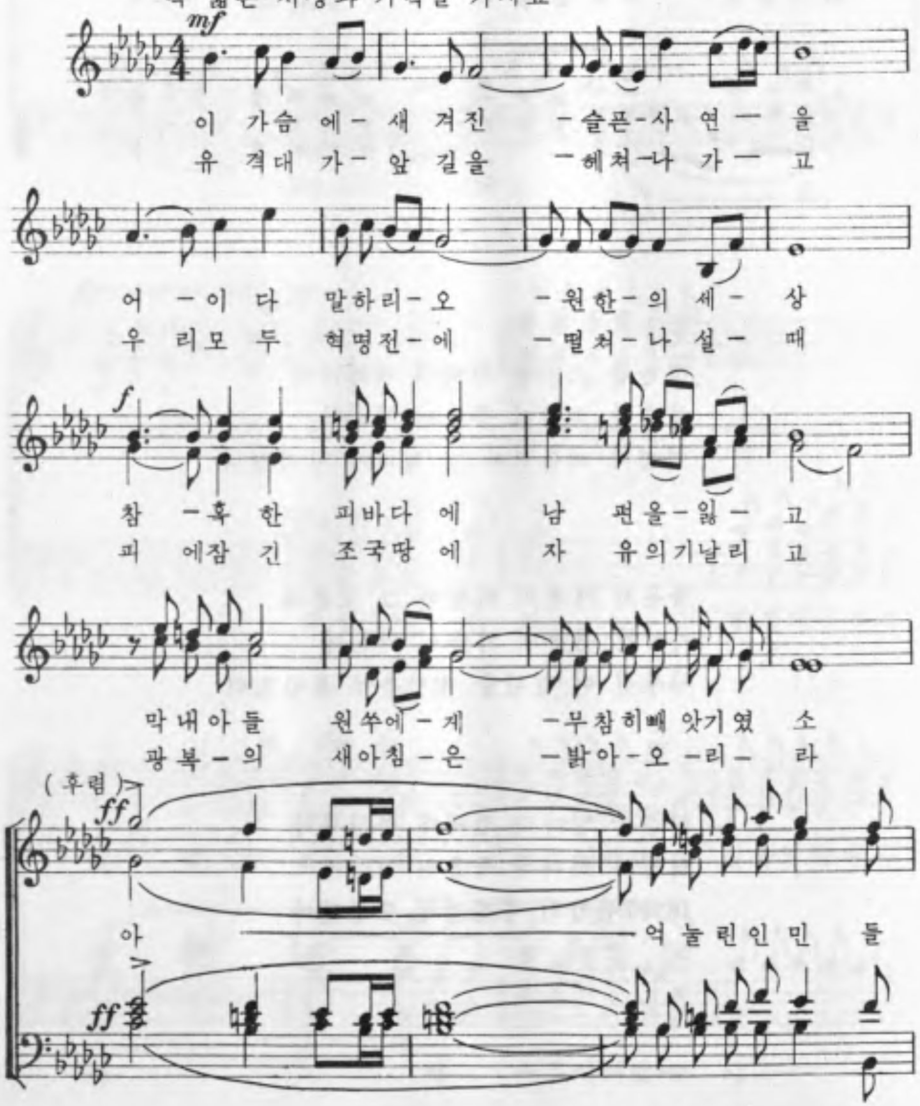






설한풍 스산한 원한의 피바다야
참혹한 주검이 묻노니 얼마냐
혁명에 피흘린자 그 얼마에 달하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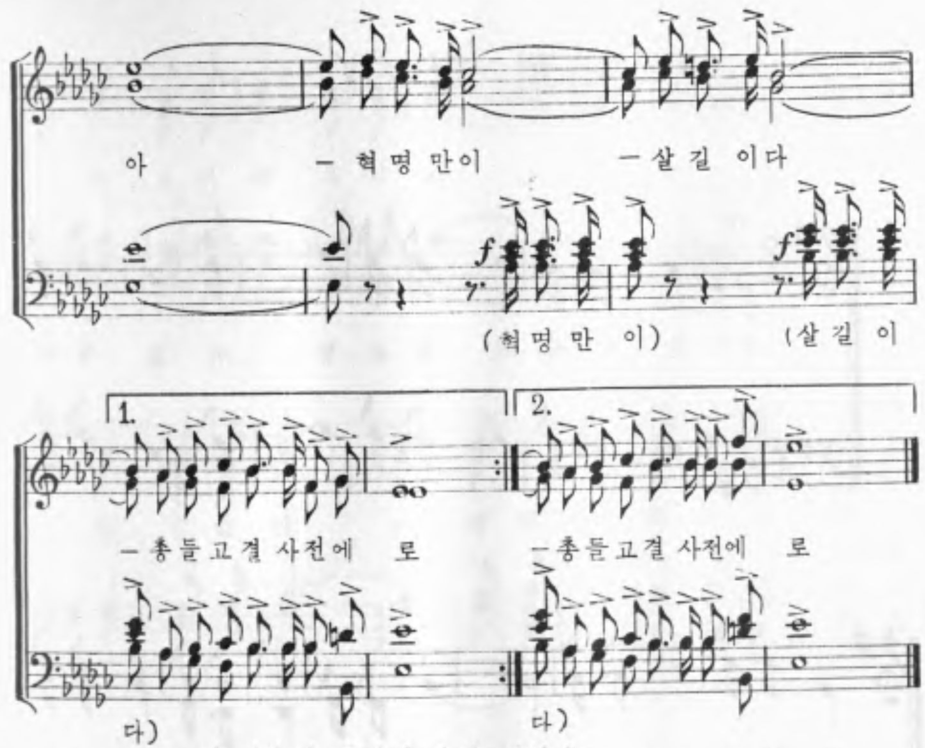
죽은자 가족의 비참한 그 모습과
기막힌 원통에 가슴이 터진다
사무친 이 원한을 천만추에 못잊으리

락심을 말아라 전세계 무산자야
혁명자 하나의 죽음의 피값에
16억7천만의 무산정권 수립된다

혁명만이 살길이다

폭 넓은 서정과 기백을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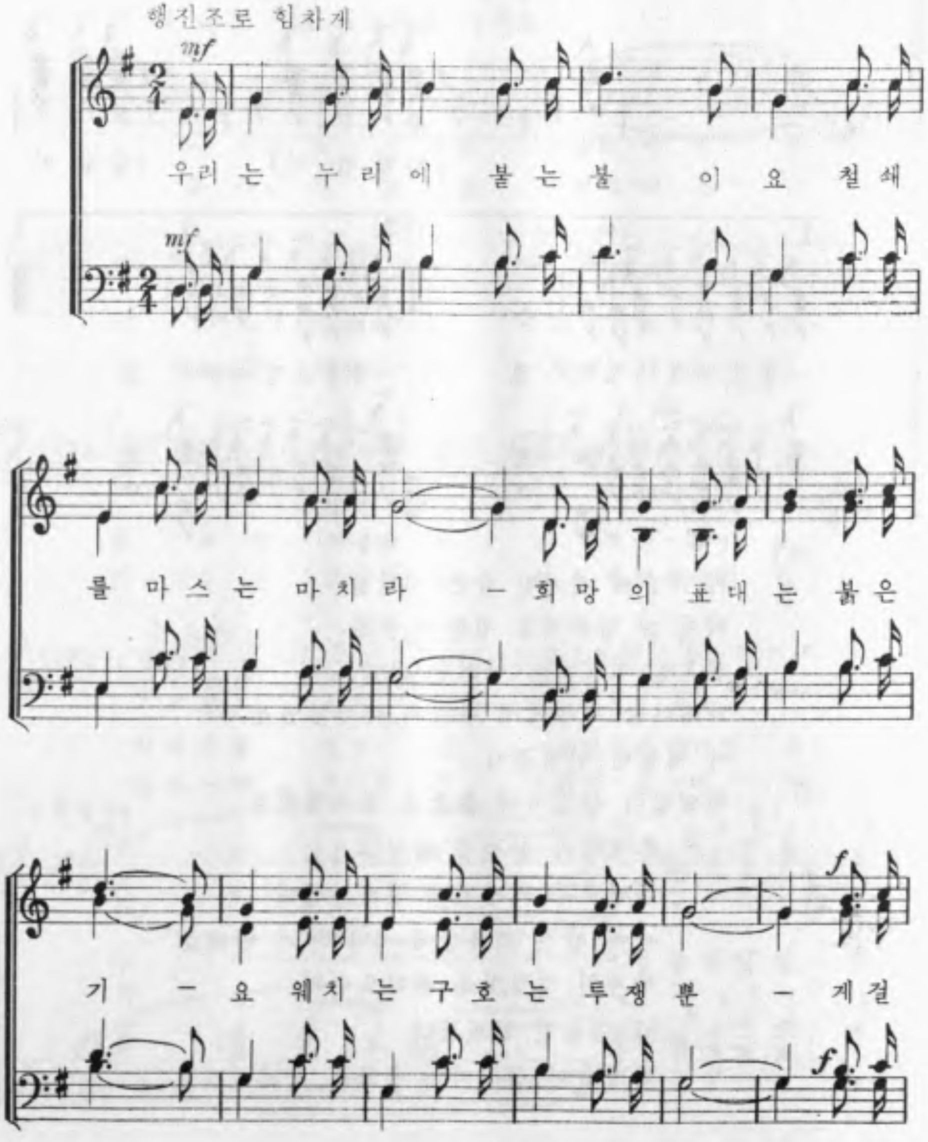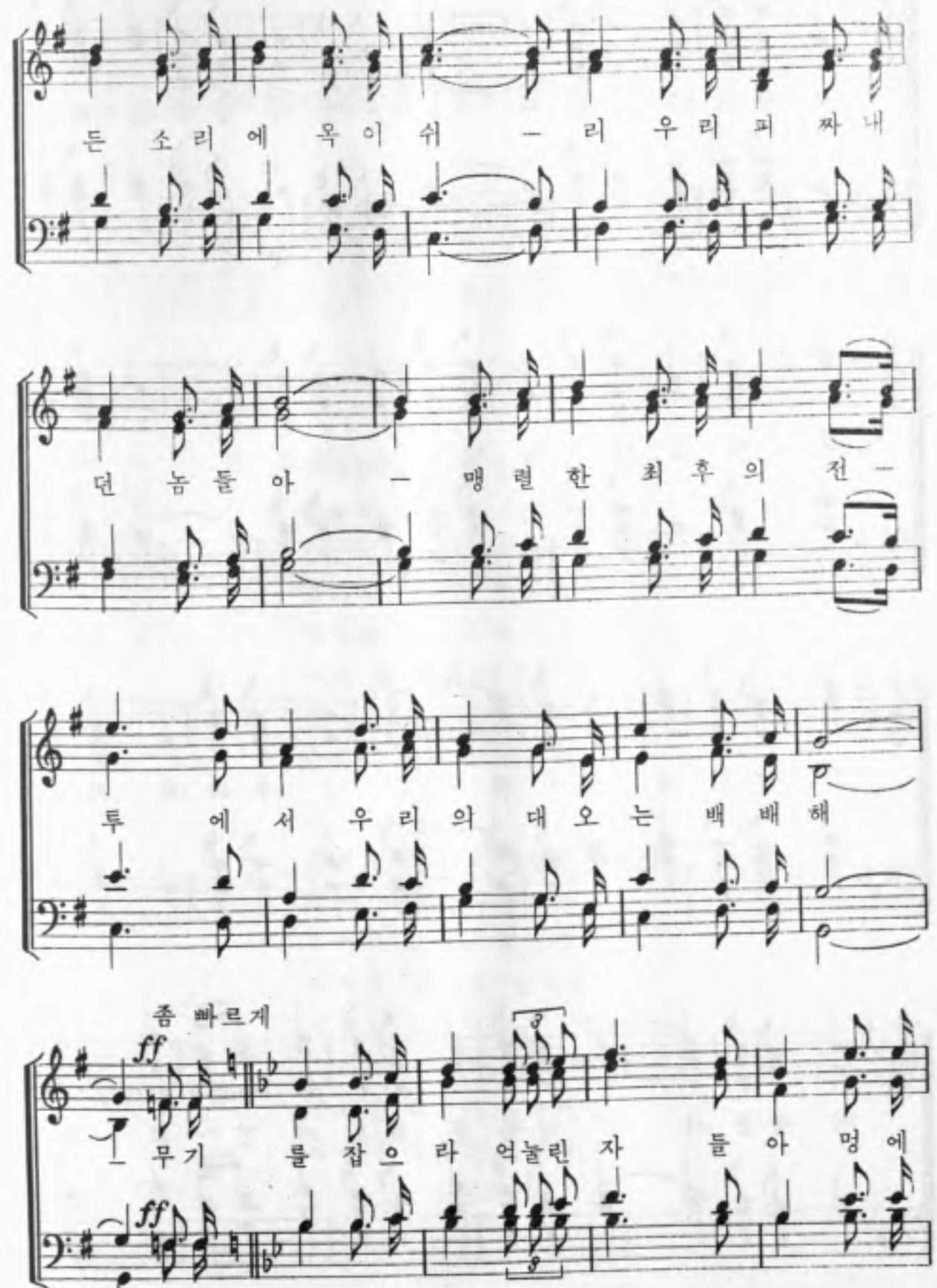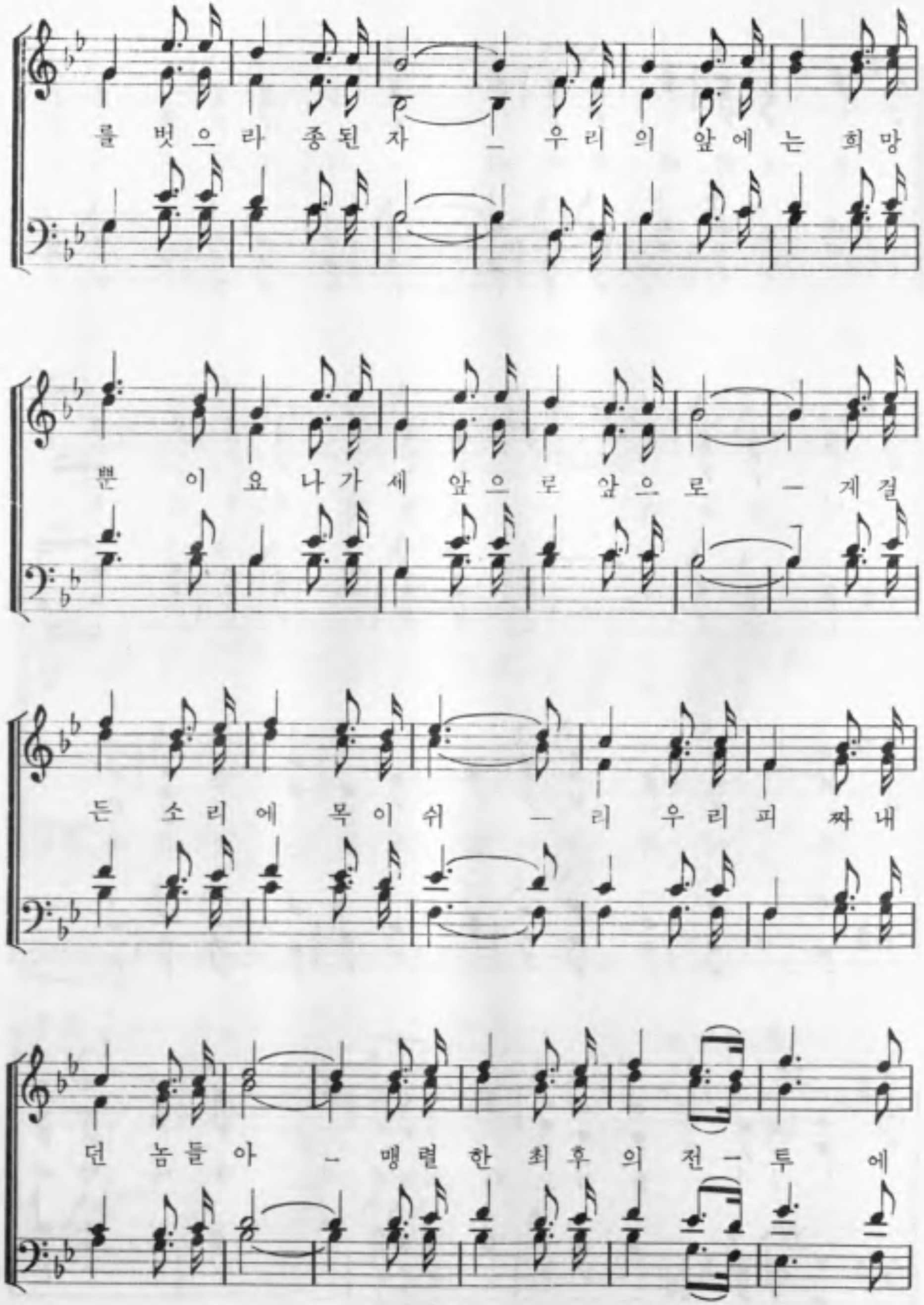




이 가슴에 새겨진 슬픈 사연을
어이 다 말하리오 원한의 세상
참혹한 피바다에 남편을 잃고
막내아들 원쑤에게 무참히 빼앗기였소
아 억눌린 인민들아
혁명만이 살길이다 총들고 결사전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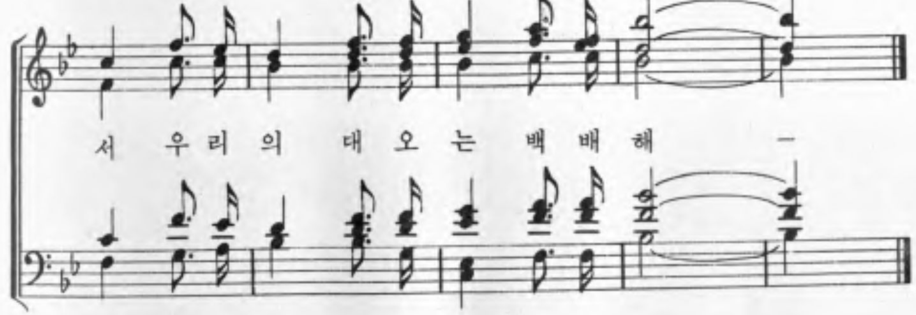
유격대가 앞길을 헤쳐나가고
우리모두 혁명전에 떨쳐나설때
피에 잠긴 조국땅에 자유의 기 날리고
광복의 새아침은 밝아오리라
아 억눌린 인민들아
혁명만이 살길이다 총들고 결사전에로

혁 명 가


행진조로 힘차게
우리는 누리에 붉는불 이요 철쇄
를 마스는 마치라 — 희망의 표대는 붉은
기 — 요 웨치는 구호는 투쟁뿐 — 계걸


든 소리에 목이 쉬 — 리 우리피 짜내
던 놈들아 — 맹렬한 최후의 전 —
투 에서 우리의 대오는 백배해
좀 빠르게
— 무기를 잡으라 억눌린 자 들아 멍에





우리는 누리에 붙는 불이요
철쇄를 마스는 마치라
희망의 표대는 붉은기요
웨치는 구호는 투쟁뿐
게걸든 소리에 목이 쉬리
우리 피 짜내던 놈들아
맹렬한 최후의 전투에서
우리의 대오는 백배해

무기를 잡으라 억눌린자들아
멍에를 벗으라 종된자
우리의 앞에는 희망뿐이요
나가세 앞으로 앞으로
게걸든 소리에 목이 쉬리
우리 피 짜내던 놈들아
맹렬한 최후의 전투에서
우리의 대오는 백배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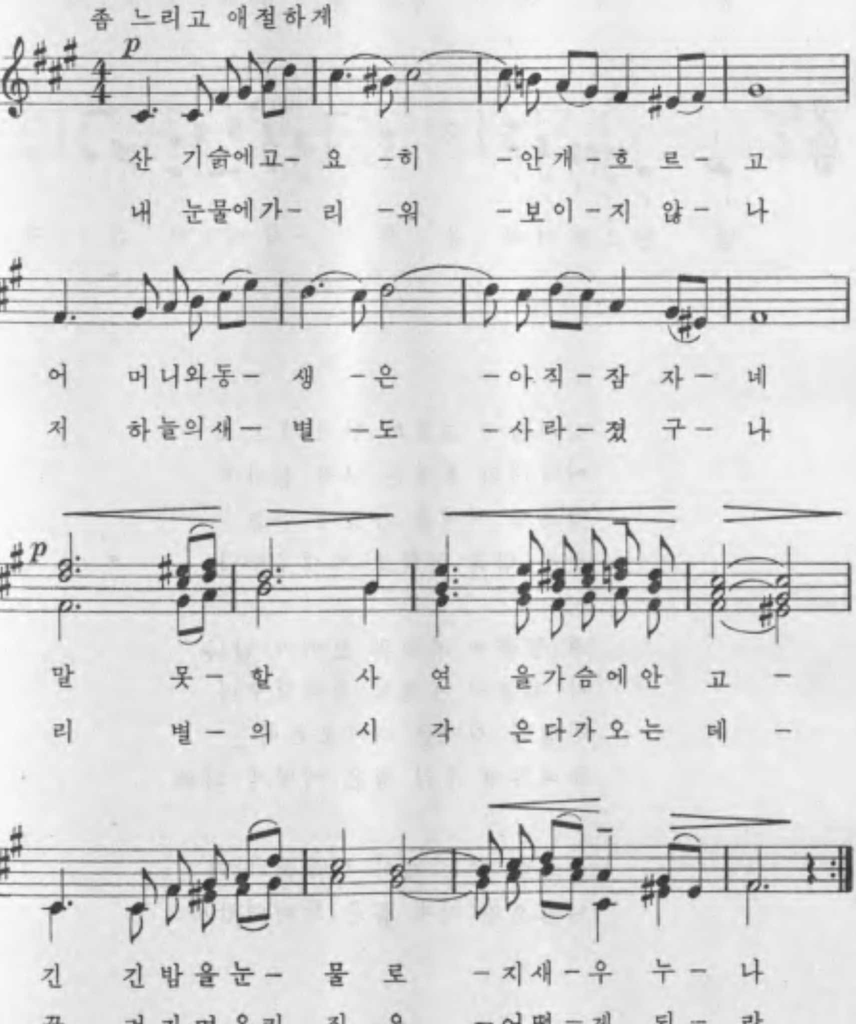
불후의고전적명작 《꽃파는처녀》를각색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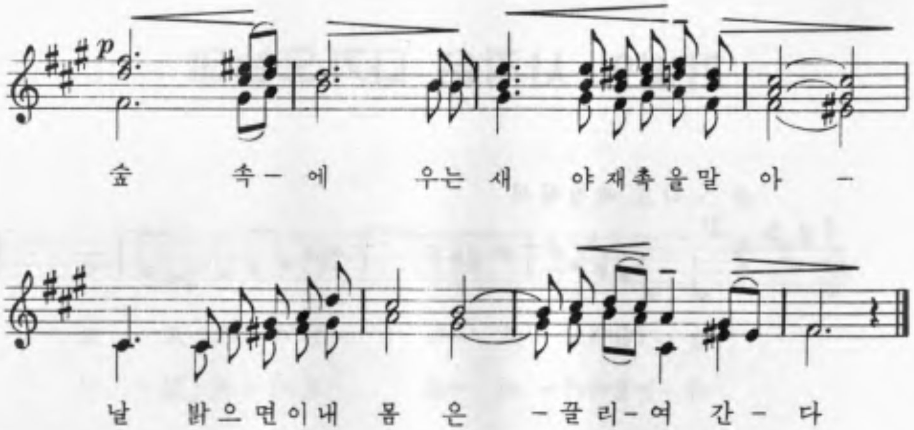
혁명가극 꽃파는처녀

THE REVOLUTIONARY OPERA
"THE FLOWER GIRL"
BASED ON THE IMMORTAL CLASSIC
"THE FLOWER GIRL"

L'OPERA REVOLUTIONNAIRE
"LA JEUNE BOUQUETIERE"
ADAPTATION DU CHEF-D'ŒUVRE
CLASSIQUE ET IMMORTEL
"LA JEUNE BOUQUETIERE"

리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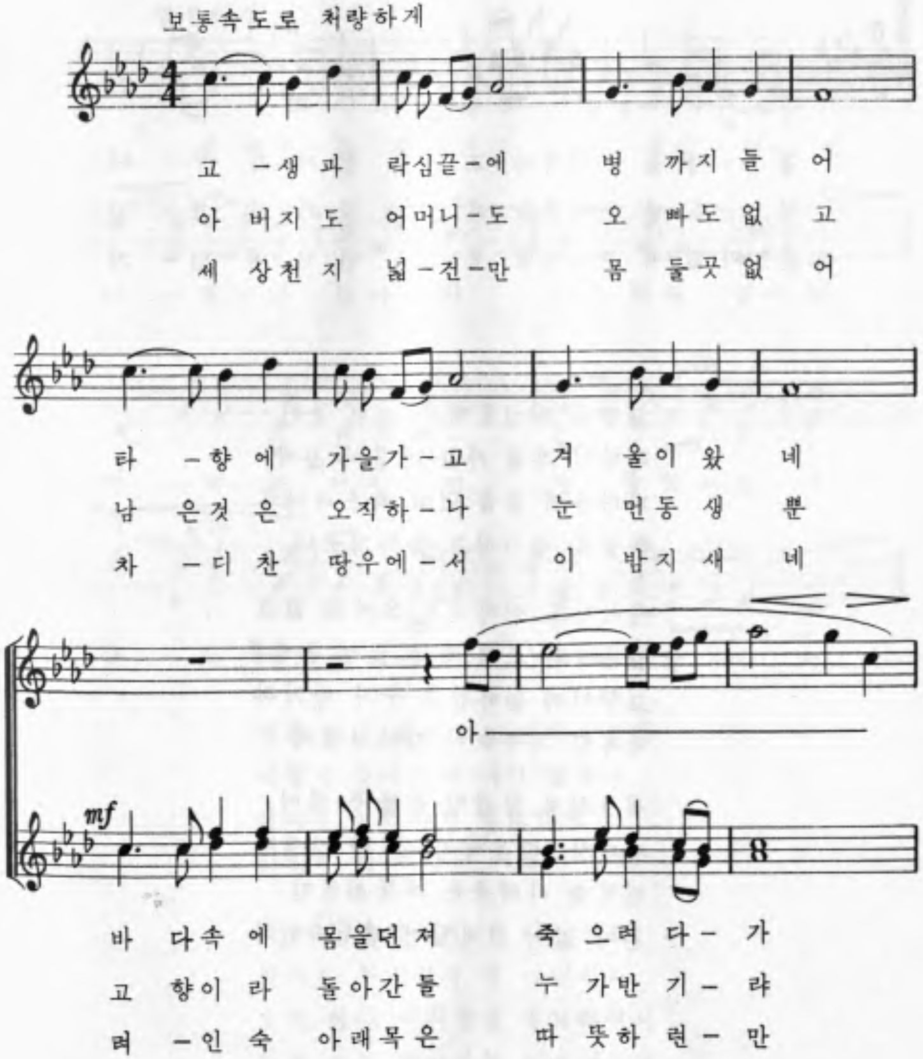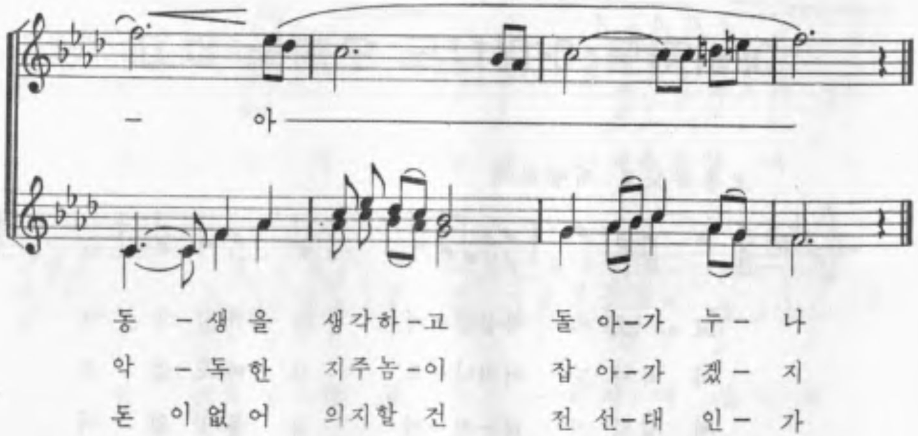




산기슭에 고요히 안개 흐르고
어머니와 동생은 아직 잠자네
말못할 사연을 가슴에 안고
긴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누나

내 눈물에 가리워 보이지 않나
저 하늘의 새별도 사라졌구나
리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
끌려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랴

숲속에 우는 새야 재촉을 말아
날밝으면 이내 몸은 끌리여간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도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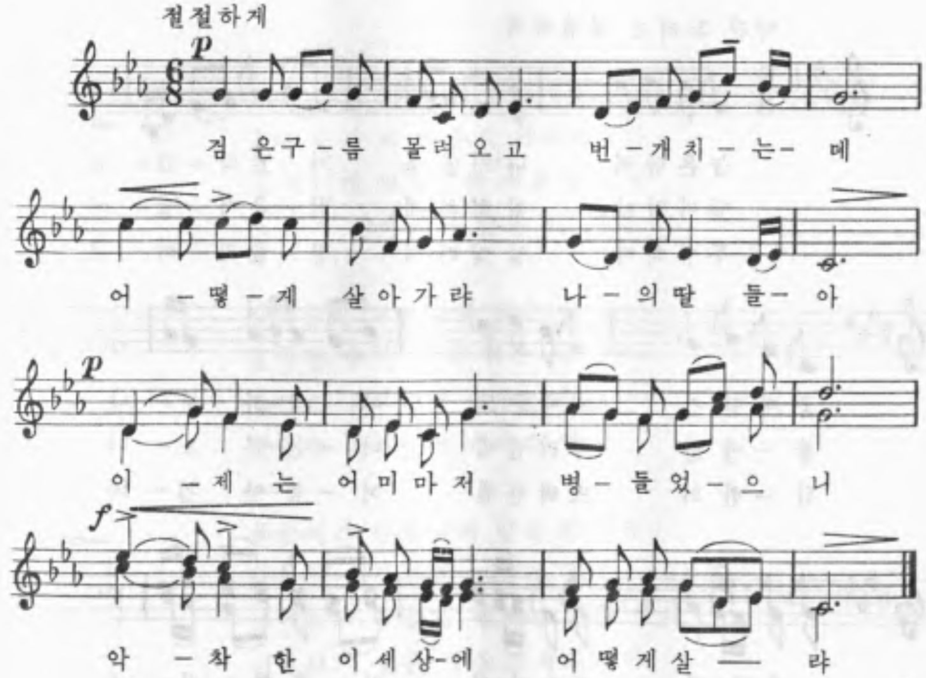




고생과 락심끝에 병까지 들어
타향에 가을 가고 겨울이 왔네
바다속에 몸을 던져 죽으려다가
동생을 생각하고 돌아가누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도 없고
남은것은 오직 하나 눈먼 동생뿐
고향이라 돌아간들 누가 반기랴
악독한 지주놈이 잡아가겠지

세상천지 넓건만 몸둘곳 없어
차디찬 땅우에서 이 밤 지새네
려인숙 아래목은 따뜻하련만
돈이 없어 의지할건 전선대인가

검은 구름 몰려오고 번개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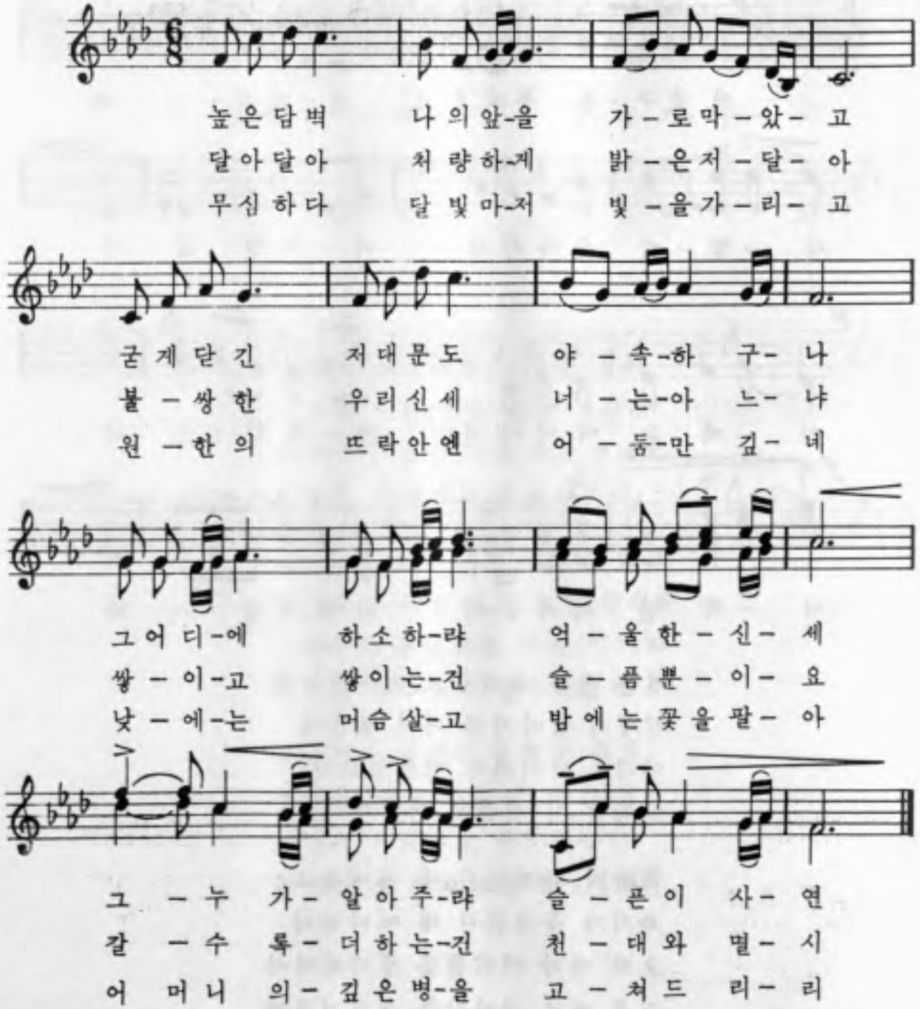


검은 구름 몰려오고 번개치는데
어떻게 살아가랴 나의 딸들아
이제는 어미마저 병들었으니
악착한 이 세상에 어떻게 살랴

목숨이 아까와서 내 아니살고
죽기가 무서워서 내 아니산다
오직 하나 너희들을 생각하여서
기를 쓰고 살아가는 어머니로다

달아 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

약간 느리고 애절하게



달아 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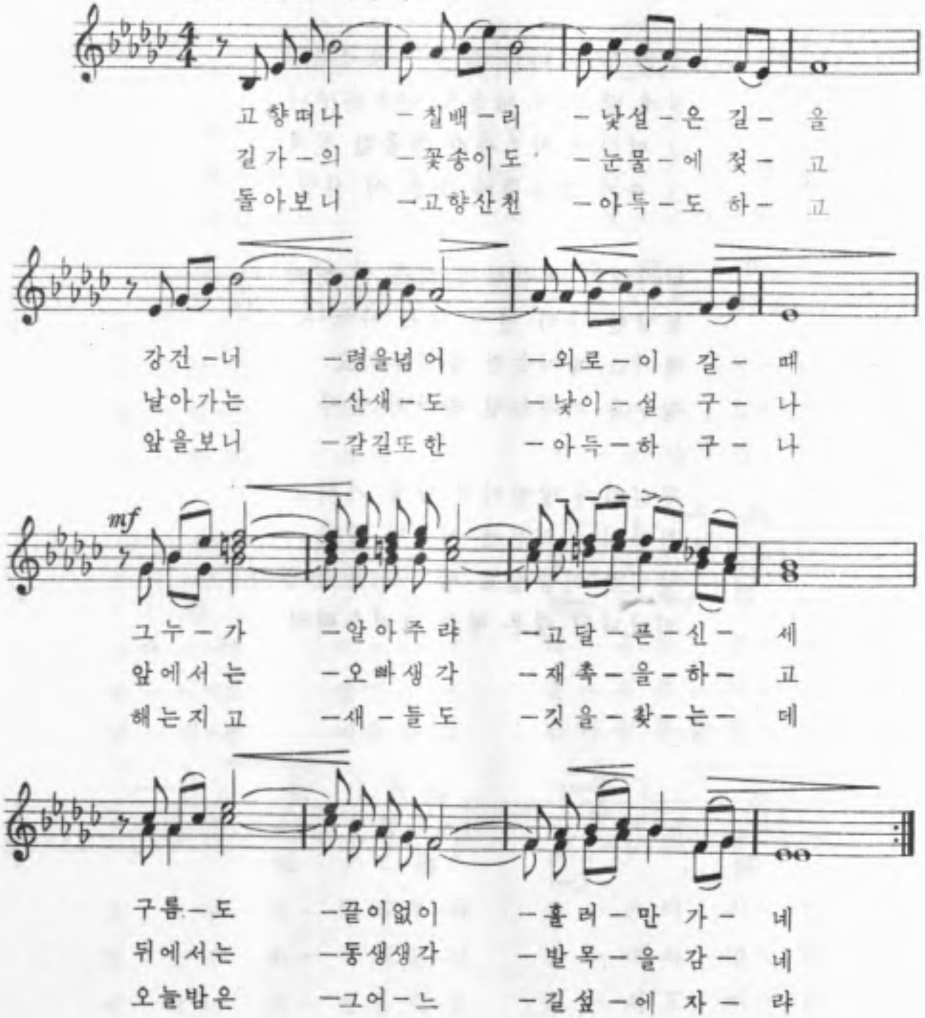
높은 담벅 나의 앞을 가로막았고
굳게 닫긴 저 대문도 야속하구나
그 어디에 하소하랴 억울한 신세
그 누가 알아주랴 슬픈 이 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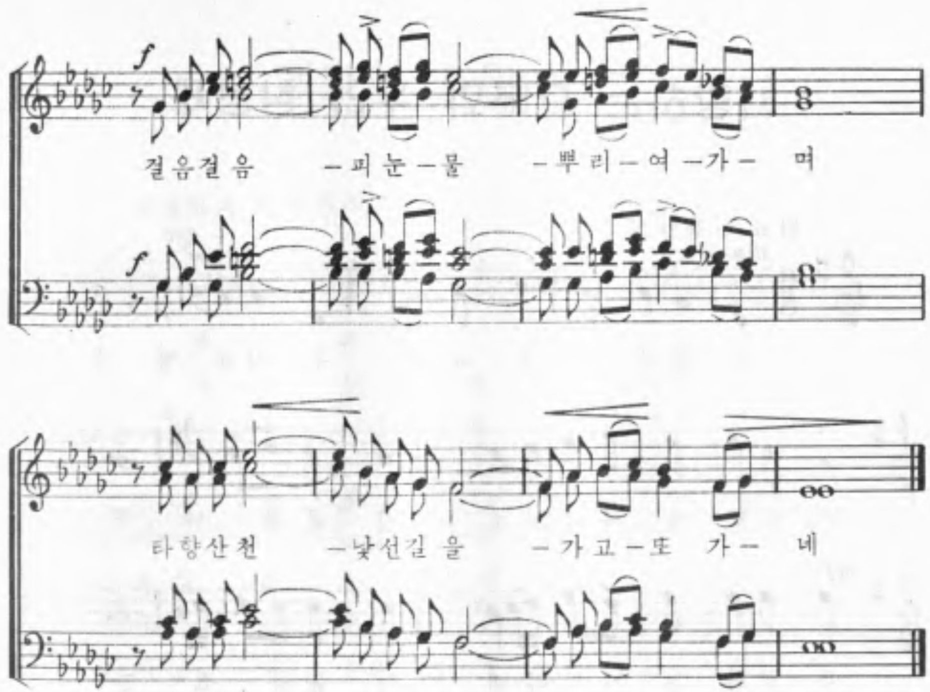
달아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
불쌍한 우리 신세 너는 아느냐
쌓이고 쌓이는건 슬픔뿐이요
갈수록 더하는건 천대와 멸시

무심하다 달빛마저 빛을 가리고
원한의 뜨락안엔 어둠만 깊네
낮에는 머슴살고 밤에는 꽃을 팔아
어머니의 깊은 병을 고쳐드리리

고향 떠나 칠백리

보통속도로 서정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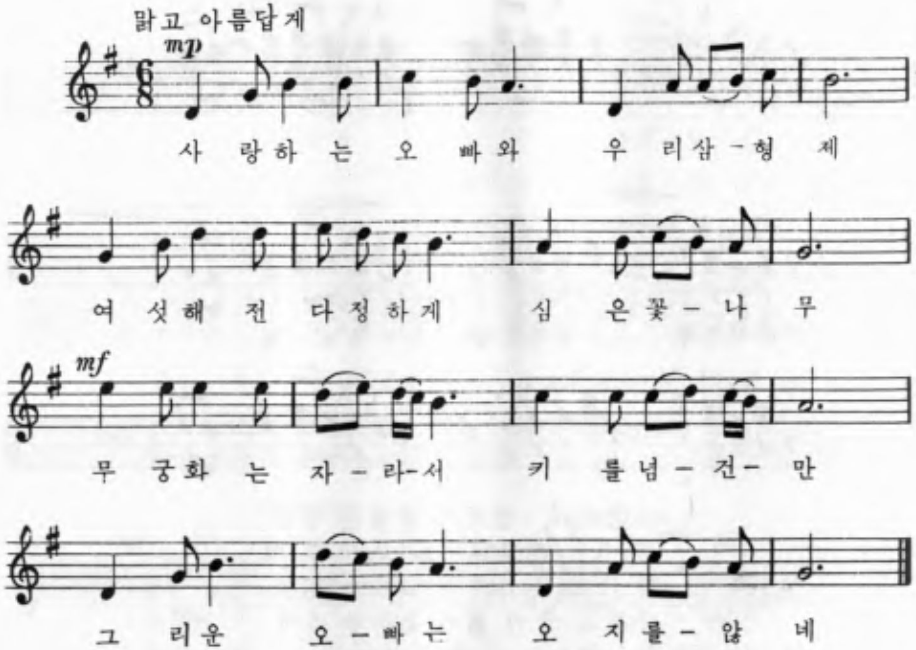




고향떠나 칠백리 낯설은 길을
강 건너 령을넘어 외로이 갈 때
그 누가 알아주랴 고달픈 신세
구름도 끝이 없이 흘러만 가네

길가의 꽃송이도 눈물에 젖고
날아가는 산새도 낯이 설구나
앞에서는 오빠 생각 재촉을 하고
뒤에서는 동생 생각 발목을 감네

돌아보니 고향산천 아득도 하고
앞을 보니 갈길 또한 아득하구나
해는 지고 새들도 깃을 찾는데
오늘밤은 그 어느 길섶에 자랴

걸음걸음 피눈물 뿌리여가며
타향산천 낯선 길을 가고 또 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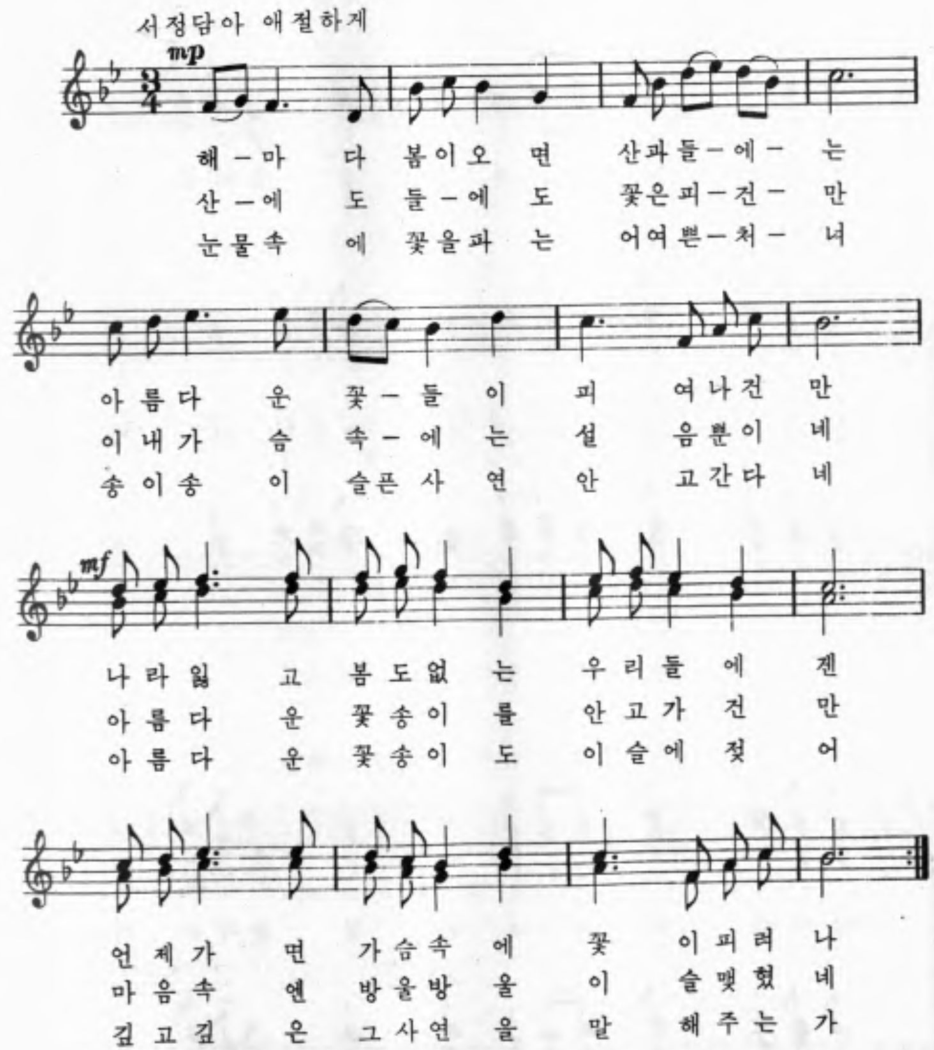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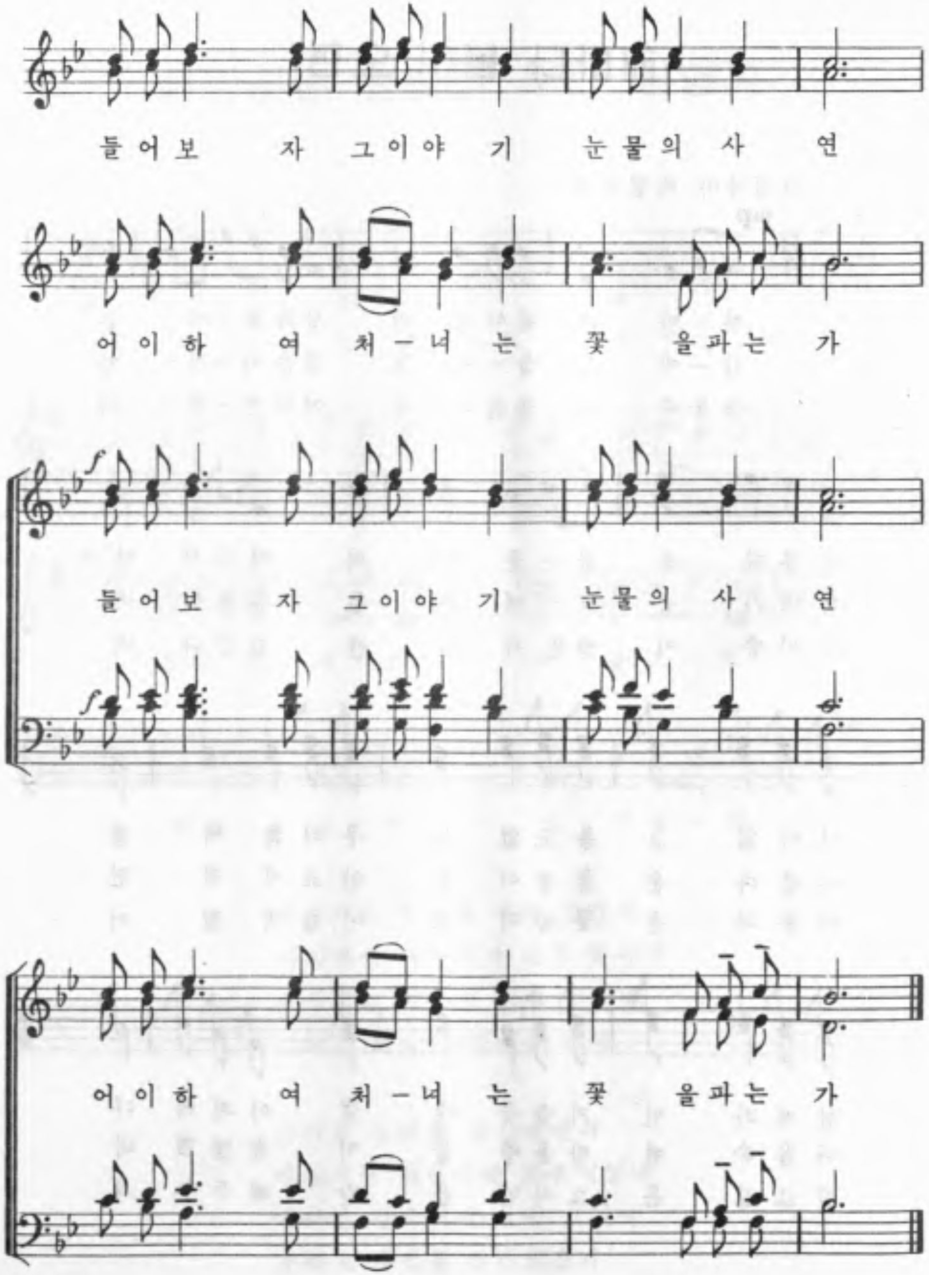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여섯해전 다정하게 심은 꽃나무
무궁화는 자라서 키를 넘건만
그리운 오빠는 오지를 않네

그리운 오빠를 생각하면서
아침저녁 정성다해 가꾸어왔네
머나먼 감옥에서 고향 그리며
오빠도 우리를 생각하겠지

해마다 봄이 오면





해마다 봄이 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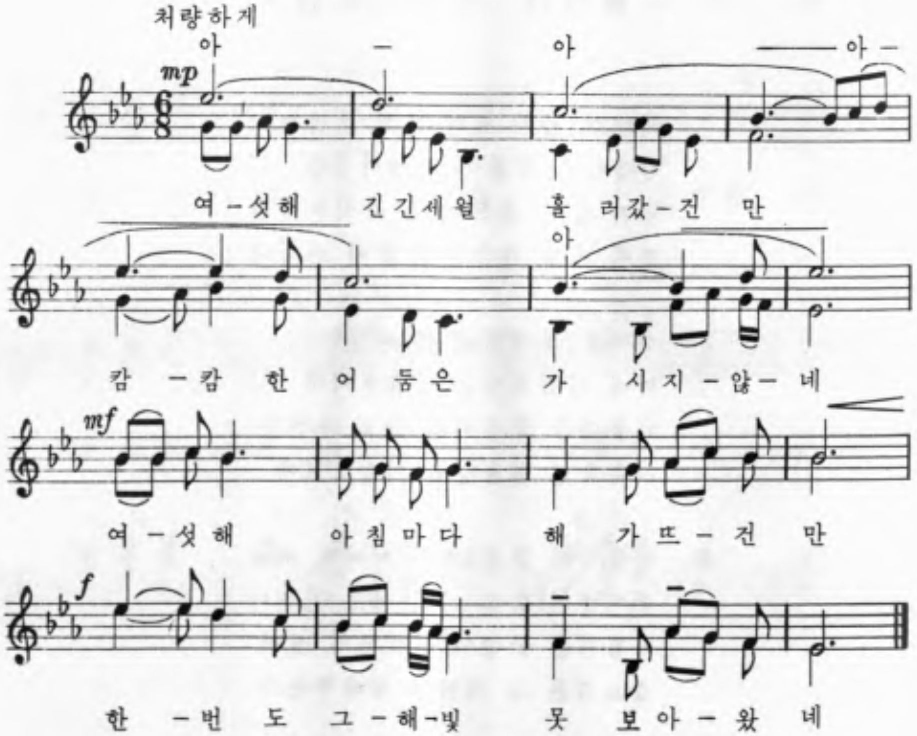
해마다 봄이 오면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여나건만
나라 잃고 봄도 없는 우리들에겐
언제 가면 가슴속에 꽃이 피려나

산에도 들에도 꽃은 피건만
이내 가슴속에는 설음뿐이네
아름다운 꽃송이를 안고 가건만
마음속엔 방울방울 이슬맺혔네

눈물속에 꽃을 파는 어여쁜 처녀
송이송이 슬픈 사연 안고 간다네
아름다운 꽃송이도 이슬에 젖어
깊고깊은 그 사연을 말해주는가

들어보자 그 이야기 눈물의 사연
어이하여 처녀는 꽃을 파는가
들어보자 그 이야기 눈물의 사연
어이하여 처녀는 꽃을 파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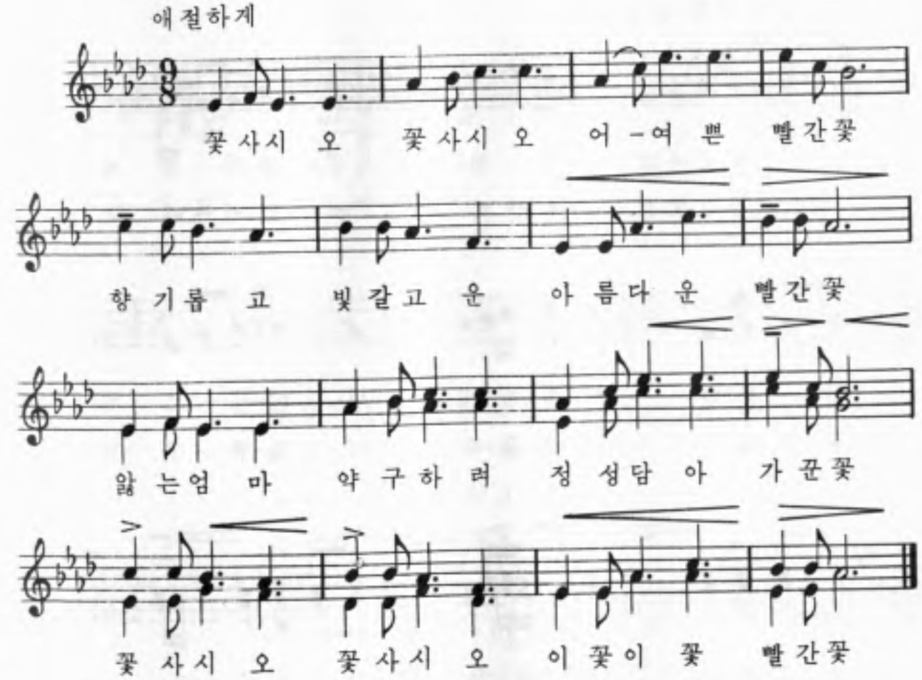
나 혼자만 빈집에 홀로 남아서



여섯해 긴긴 세월 흘러갔건만
캄캄한 어둠은 가시지 않네
여섯해 아침마다 해가 뜨건만
한번도 그 해빛 못보아왔네

어머니는 지주집에 머슴을 살고
언니는 오늘도 산에 갔겠지
나혼자만 빈집에 홀로 남아서
배고프고 마음도 쓸쓸하구나

꽃파는 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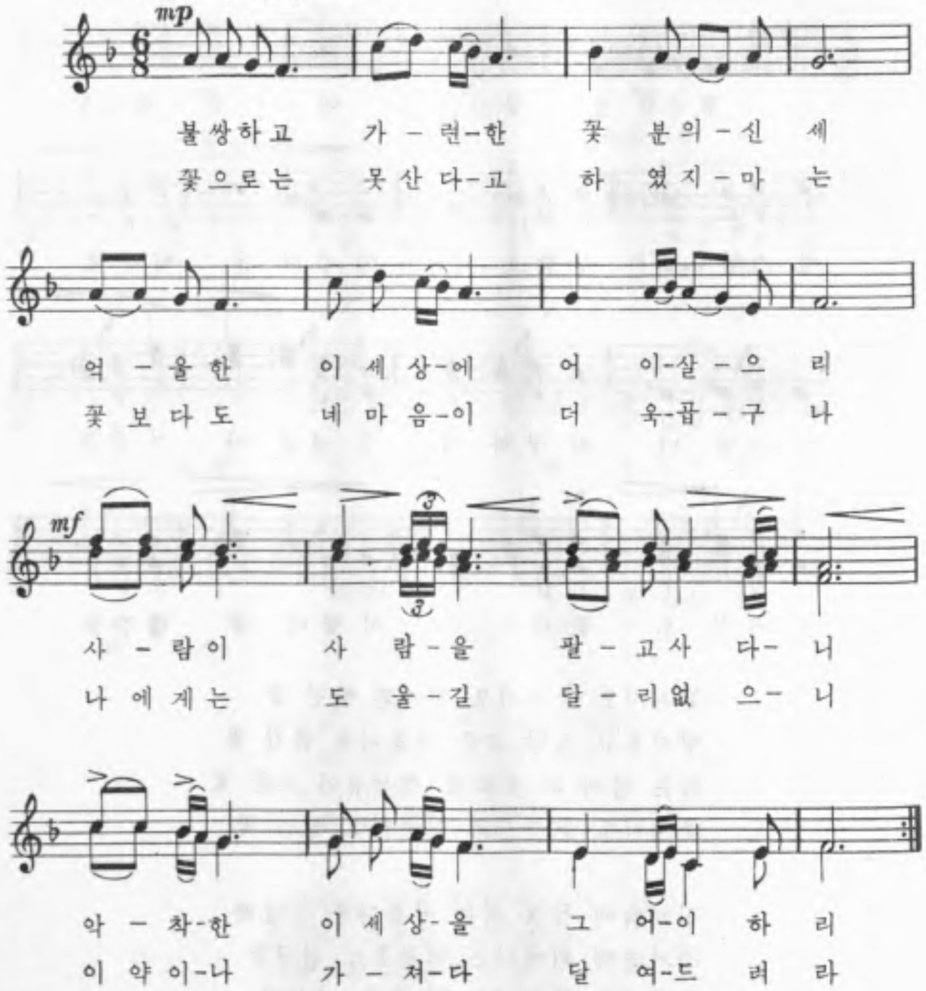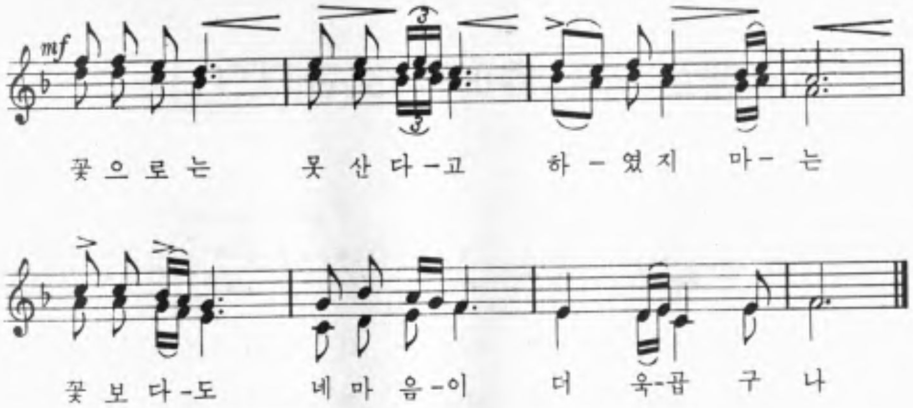


꽃사시오 꽃사시오 어여쁜 빨간 꽃
향기롭고 빛갈 고운 아름다운 빨간 꽃
앓는 엄마 약 구하려 정성담아 가꾼 꽃
꽃사시오 꽃사시오 이꽃이꽃 빨간 꽃

산기슭에 곱게 피는 아름다운 진달래
산기슭에 피여나는 연분홍빛 살구꽃
꽃사시오 꽃사시오 이 꽃을 사시면
설음많은 가슴에도 새봄빛이 안겨요

꽃보다도 네마음이 더욱 곱구나

동정어린 심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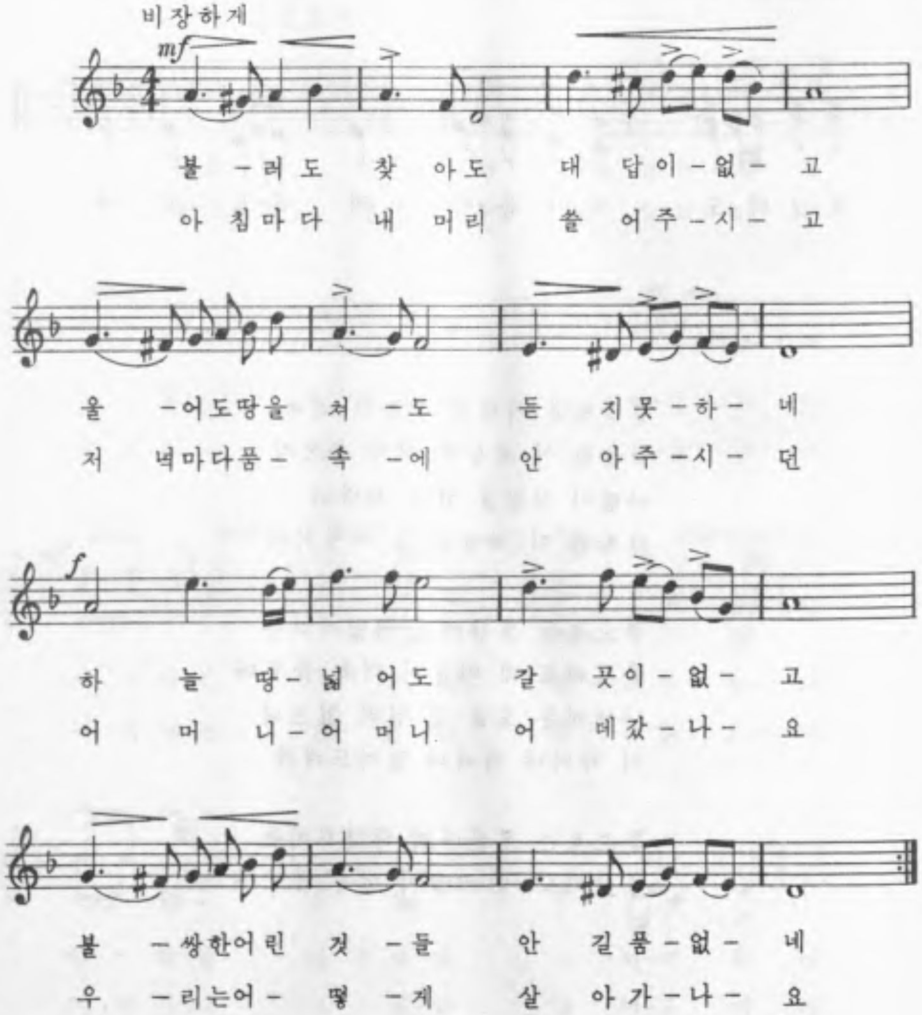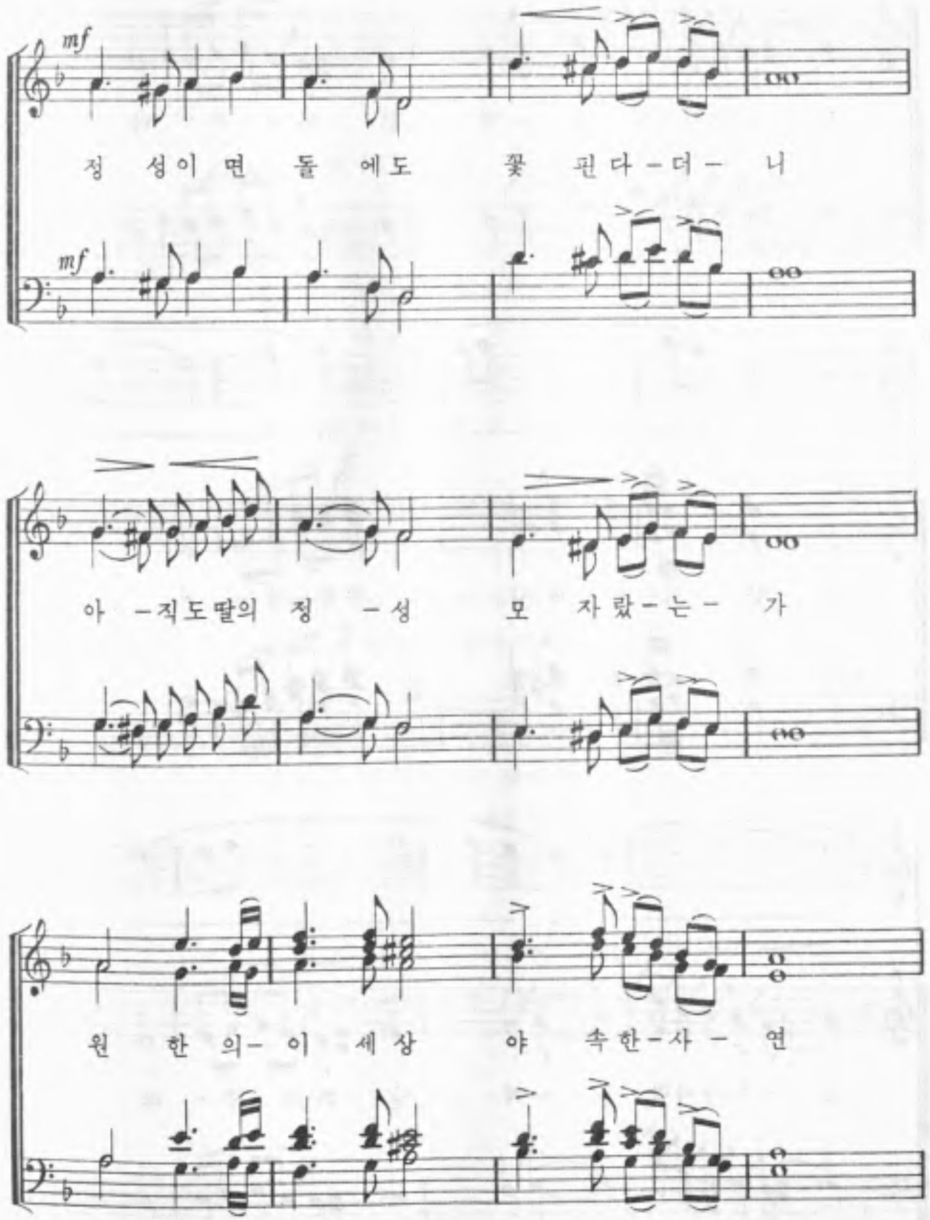




불쌍하고 가련한 꽃분의 신세
억울한 이 세상에 어이 살으리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사다니
악착한 이 세상을 그 어이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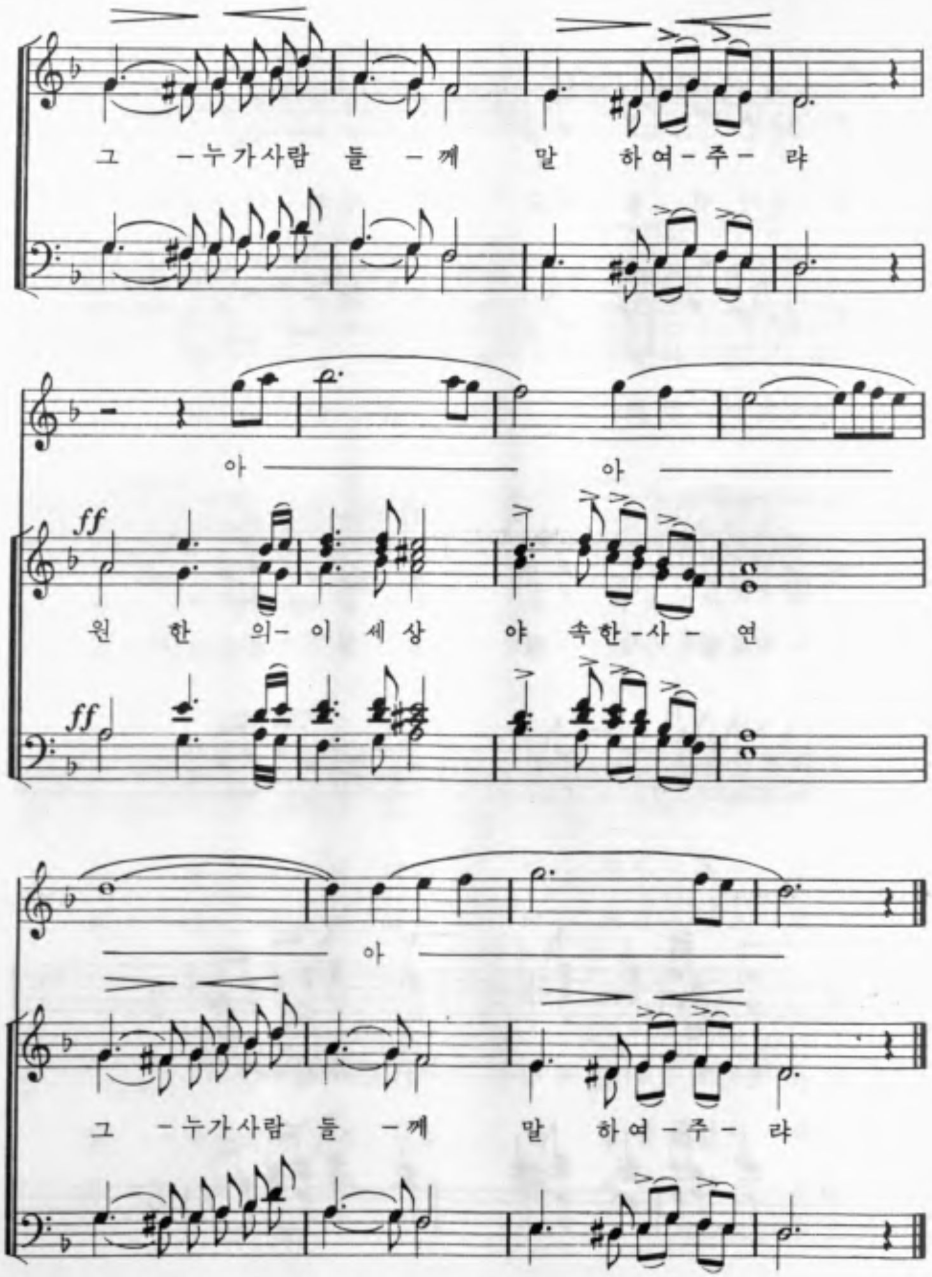
꽃으로는 못산다고 하였지마는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
나에게는 도울 길 달리 없으니
이 약이나 가져다 달여드려라

꽃으로는 못산다고 하였지마는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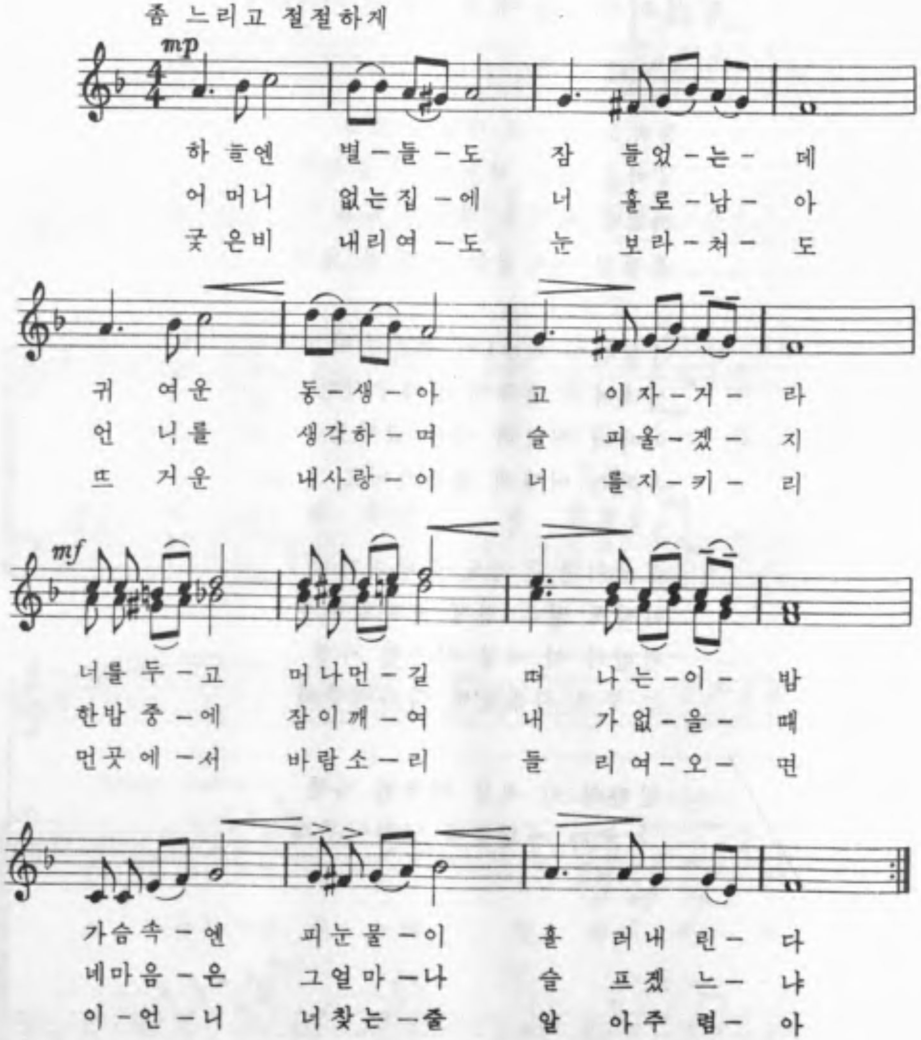
불러도 찾아도 대답이 없고
울어도 땅을 쳐도 듣지 못하네
하늘땅 넓어도 갈곳이 없고
불쌍한 어린것들 안길 품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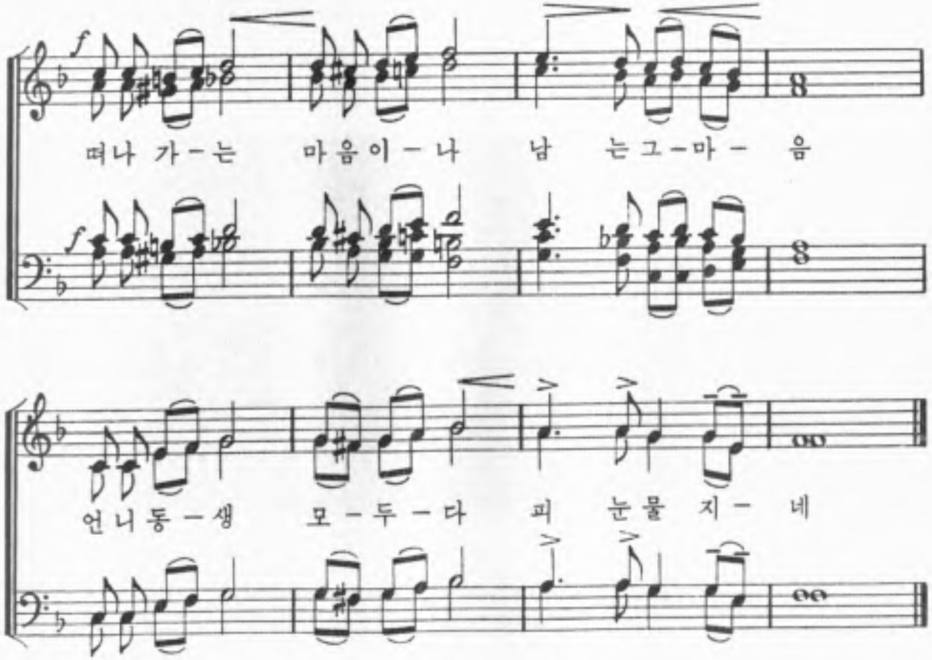
아침마다 내 머리 쓸어주시고
저녁마다 품속에 안아주시던
어머니 어머니 어데 갔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
아직도 딸의 정성 모자랐는가
원한의 이 세상 야속한 사연
그 누가 사람들께 말하여주랴

원한의 이 세상 야속한 사연
그 누가 사람들께 말하여주랴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





하늘엔 별들도 잠들었는데
귀여운 동생아 고이 자거라
너를 두고 머나먼 길 떠나는 이 밤
가슴속엔 피눈물이 흘러내린다

어머니 없는 집에 너 홀로 남아
언니를 생각하며 슬피 울겠지
한밤중에 잠이 깨여 내가 없을 때
네 마음은 그 얼마나 슬프겠느냐

궂은비 내리여도 눈보라쳐도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
먼곳에서 바람소리 들리여오면
이 언니 너 찾는줄 알아주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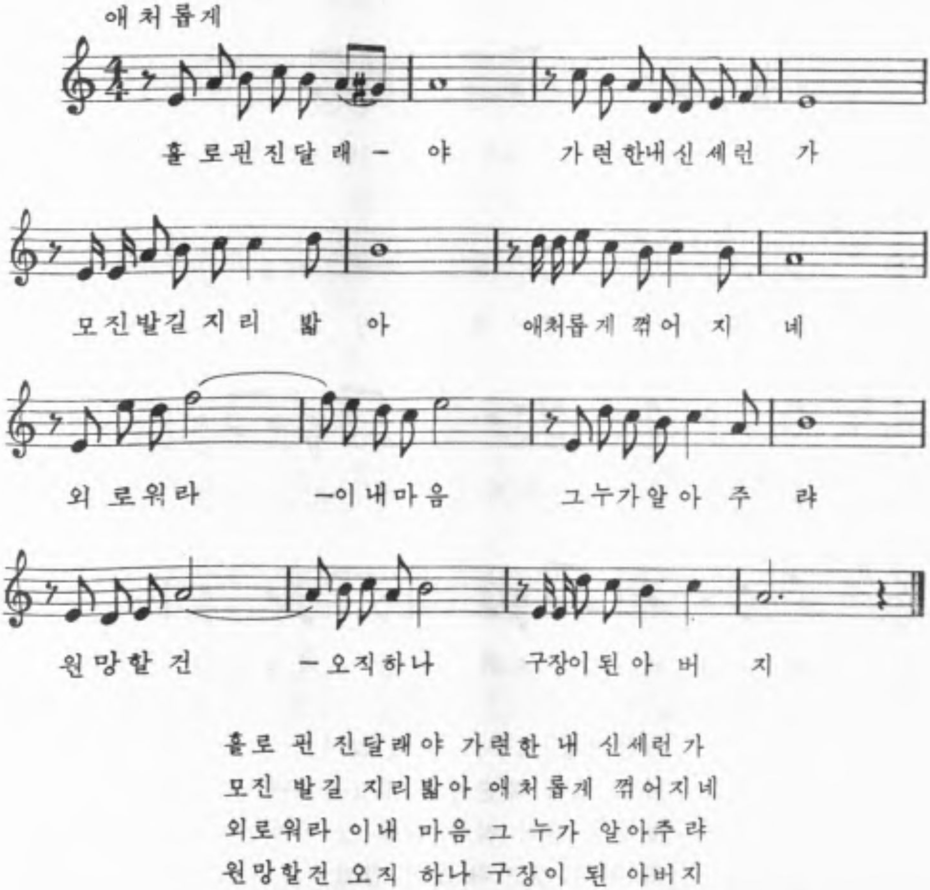
떠나가는 마음이나 남는 그 마음
언니 동생 모두다 피눈물지네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THE REVOLUTIONARY OPERA
"TELL YE FOREST"

L'OPERA REVOLUTIONNAIRE
"PARLE, FORET"

홀로 핀 진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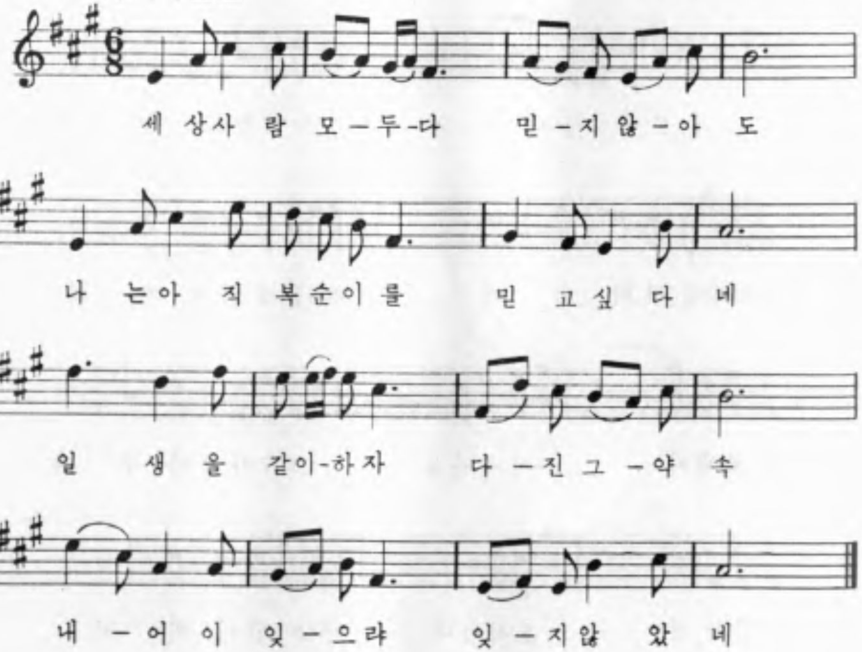


홀로 핀 진달래야 가련한 내 신세런가
모진 발길 지리밟아 애처롭게 꺾어지네
외로워라 이내 마음 그 누가 알아주랴
원망할건 오직 하나 구장이 된 아버지

다정하던 동무들도 이제는 나를 버리고
살뜰하던 이웃들은 만나서도 말 안하네
외로워라 이내 마음 그 누가 알아주랴
원망할건 오직 하나 구장이 된 아버지

내 어이 잊으랴

정서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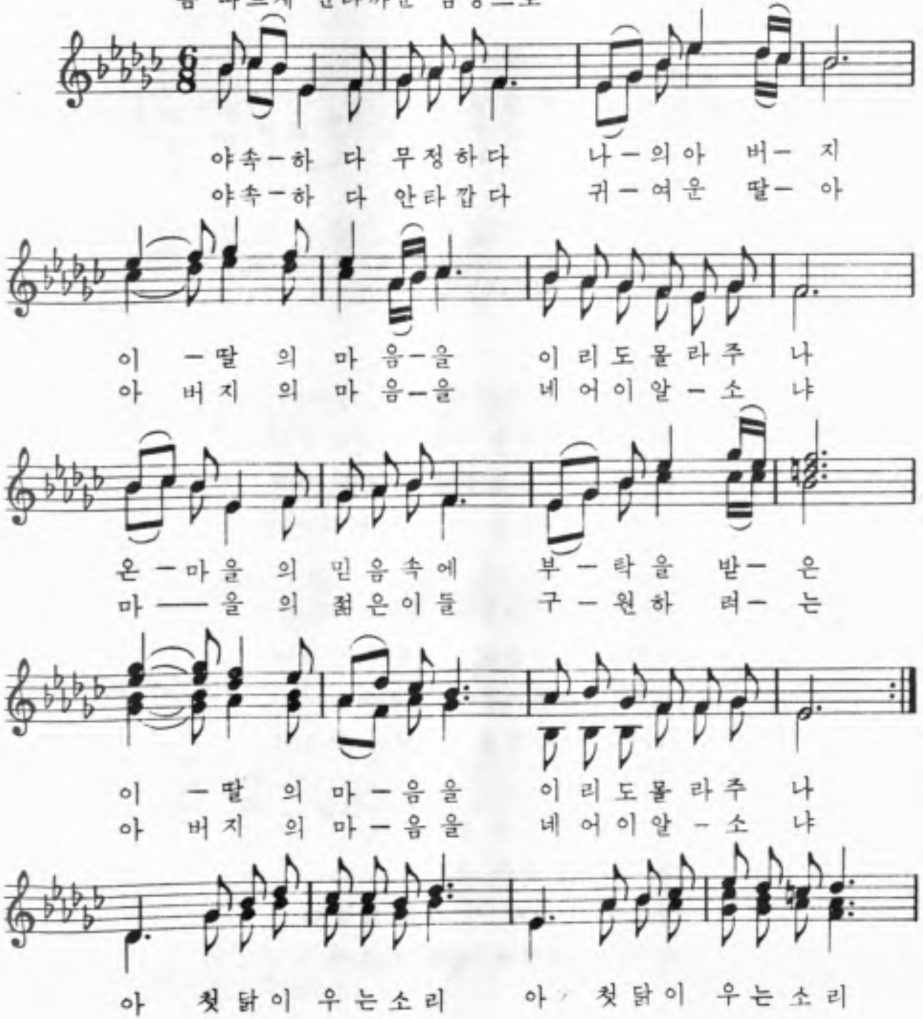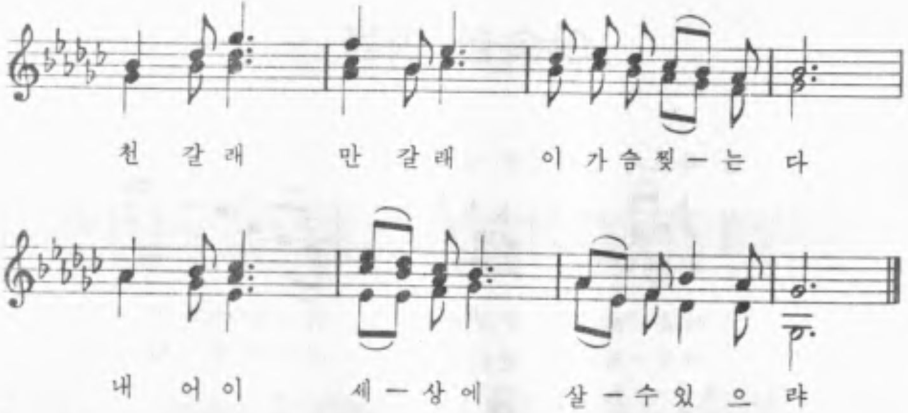


세상사람 모두다 믿지 않아도
나는 아직 복순이를 믿고싶다네
일생을 같이 하자 다진 그 약속
내 어이 잊으랴 잊지 않았네

나도 어이 잊었으랴 굳은 그 약속
죄많은 아버지의 딸이 된 이 몸
가슴속 마음만은 변함없으나
우리 어찌 한길에서 봄을 맞으리

약속한 마음

좀 빠르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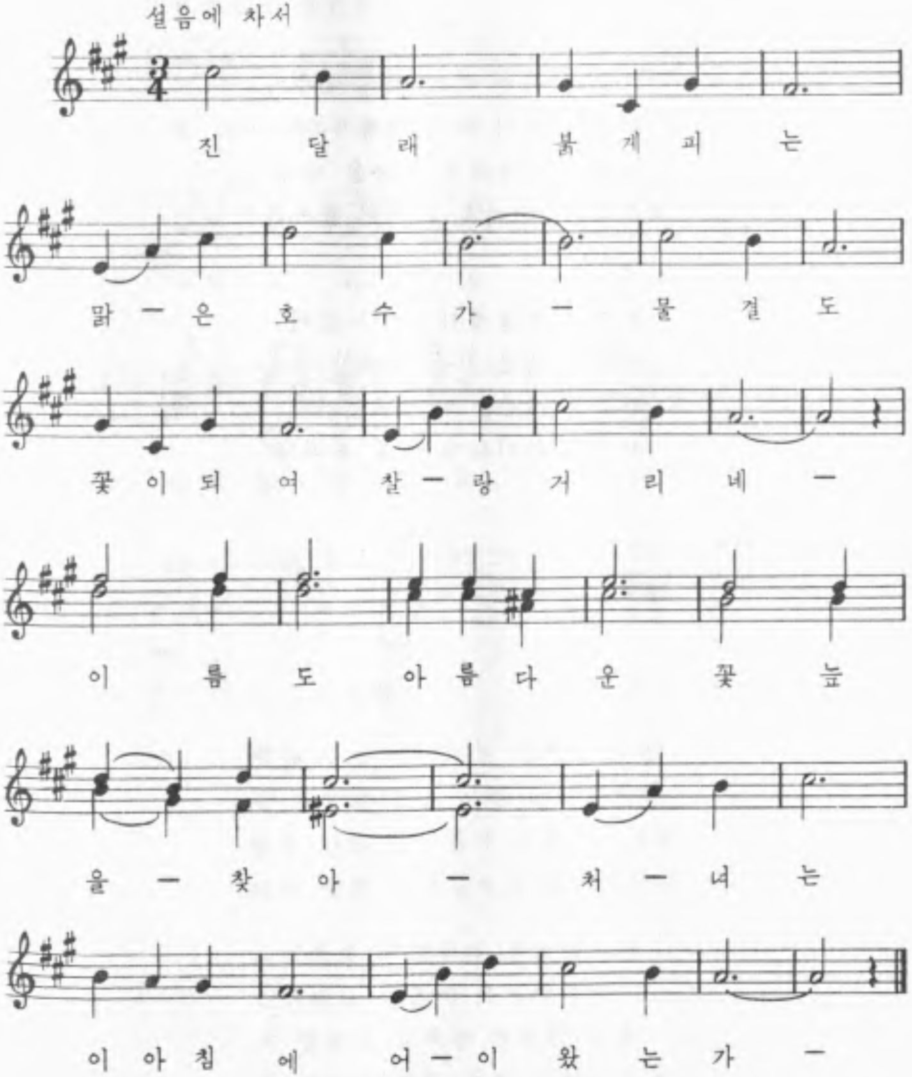




야속하다 무정하다 나의 아버지
이 딸의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나
온 마을의 믿음속에 부탁을 받은
이 딸의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나

야속하다 안타깝다 귀여운 딸아
아버지의 마음을 네 어이 알소냐
마을의 젊은이들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네 어이 알소냐

아 첫닭이 우는 소리
아 첫닭이 우는 소리
천갈래 만갈래 이 가슴 찢는다
내 어이 세상에 살수 있으랴

꽃 늪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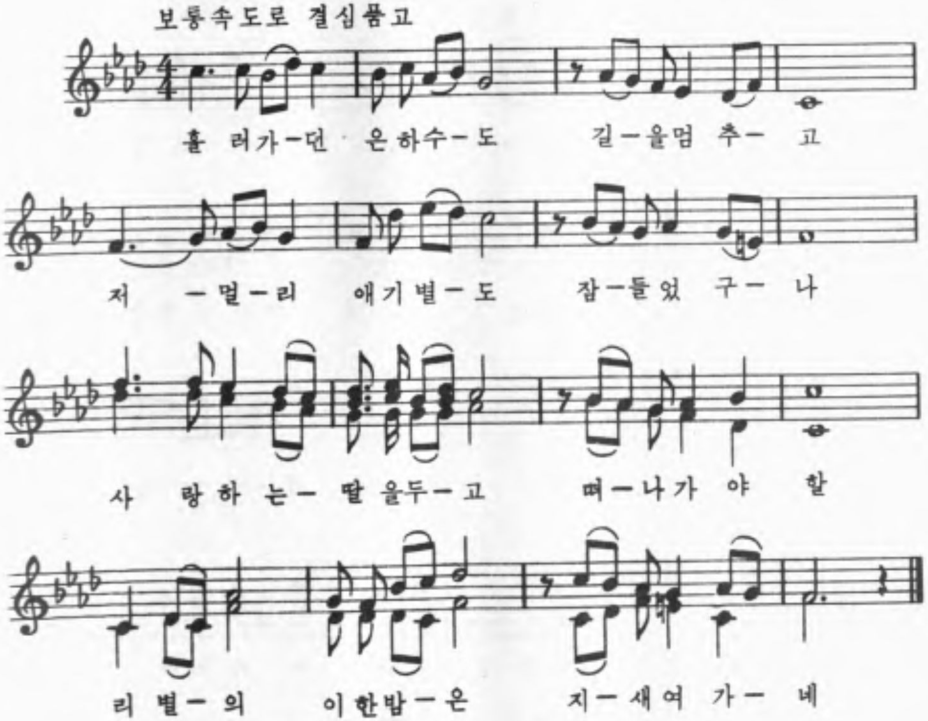


꽃 늪 가

진달래 붉게 피는 맑은 호수가
물결도 꽃이 되여 찰랑거리네
이름도 아름다운 꽃늪을 찾아
처녀는 이 아침에 어이 왔는가

호수엔 꽃물결이 넘쳐나는데
가슴엔 깊은 시름 고여만 가네
산천은 아름답기 그지없건만
처녀는 어이하여 눈물 흘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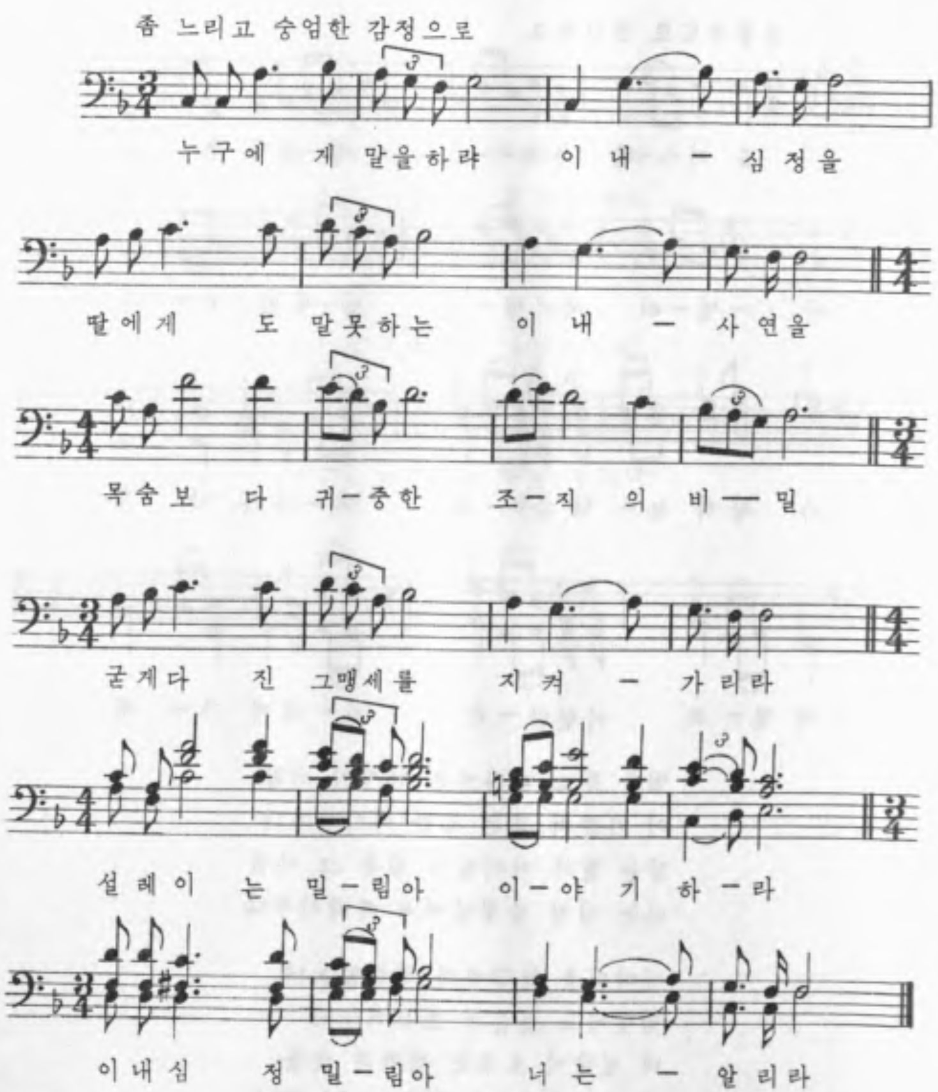
리별의 이 한밤은 지새여가네



딸을 두고 떠나가는 마지막 이밤
이 가슴의 깊은 사연 어이할거나
말을 할가 어이할가 깊은 그 사연
타는 심정 갈림길에서 헤매이누나

아버지를 원망하다 잠들었느냐
잠결에도 설음에 흐느끼누나
네 얼굴에 흐르는 원한의 눈물
내 가슴에 피로 맺혀 고이는구나

설레이는 밀림아 이야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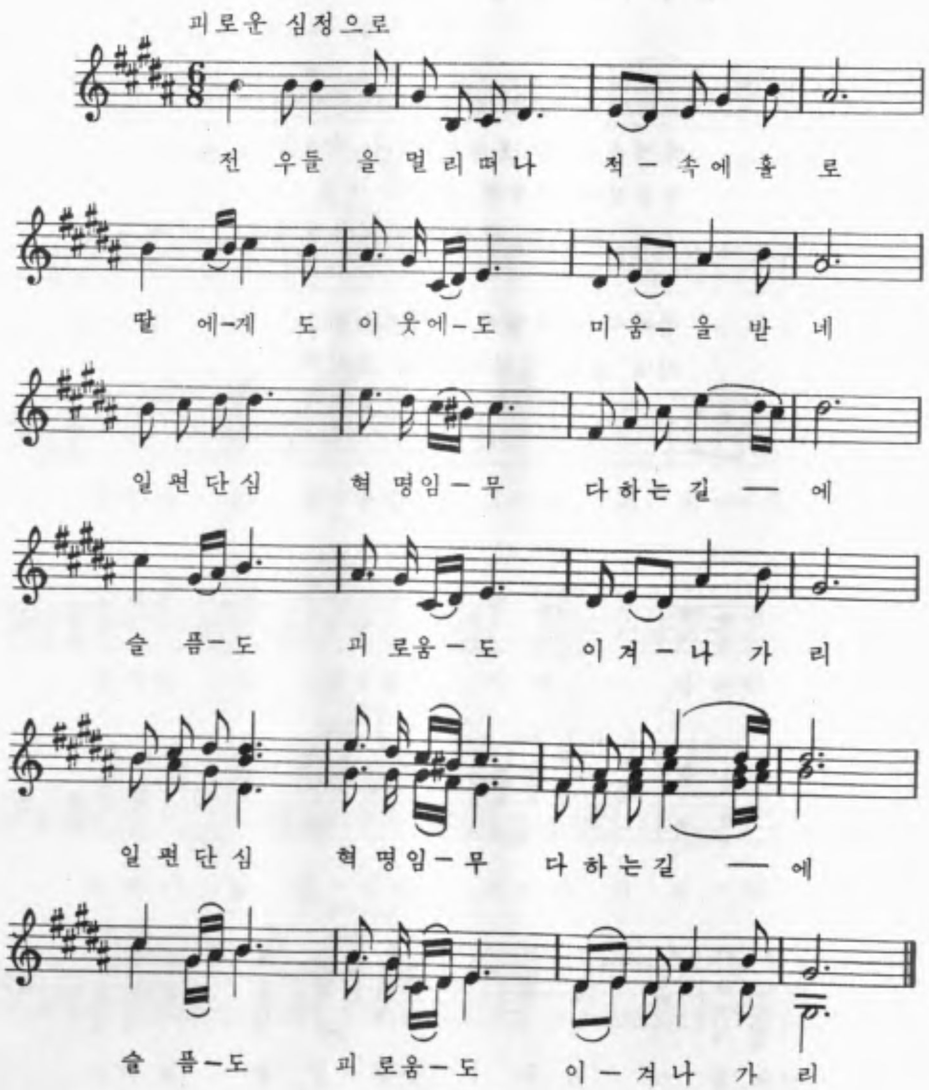


설레이는 밀림아 이야기하라

누구에게 말을 하랴 이내 심정을
딸에게도 말 못하는 이내 사연을
목숨보다 귀중한 조직의 비밀
굳게 다진 그 맹세를 지켜가리라

설레이는 밀림아 이야기하라
이내 심정 밀림아 너는 알리라

일편단심 혁명임무 다하는 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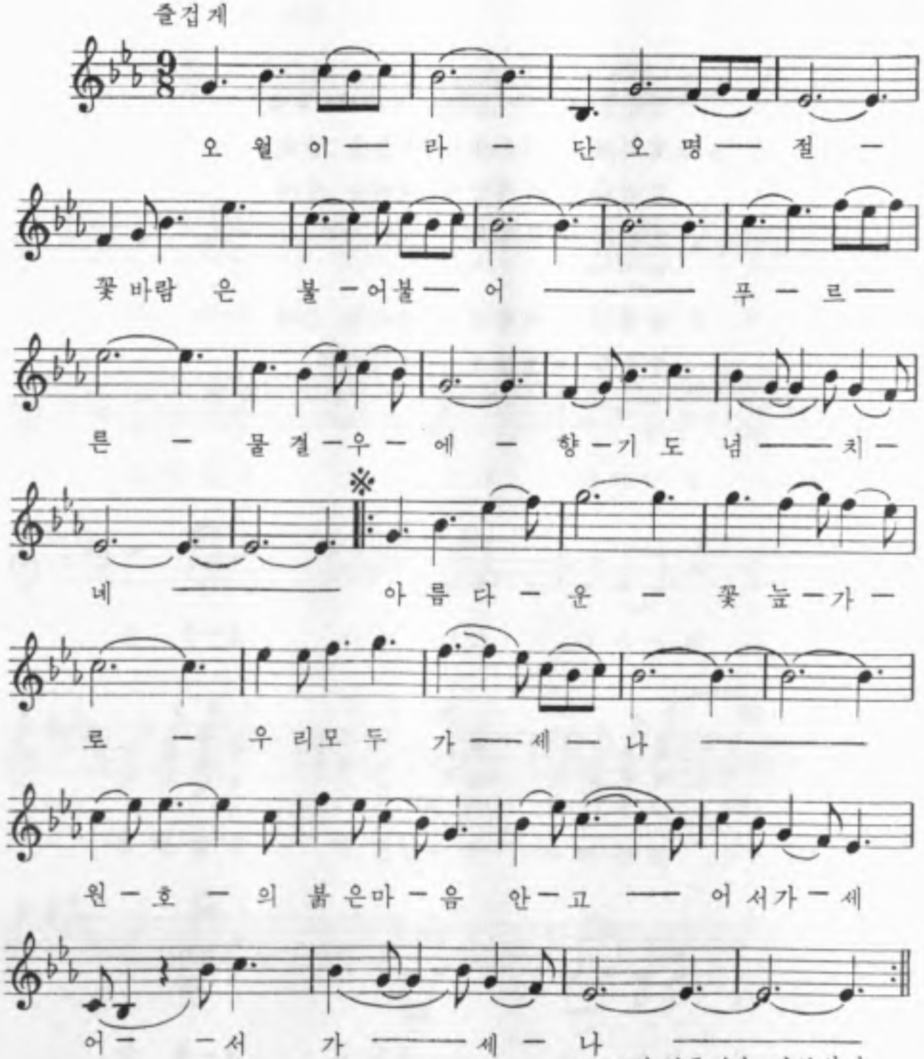


일편단심 혁명임무 다하는 길에

전우들을 멀리 떠나 적속에 홀로
딸에게도 이웃에도 미움을 받네
일편단심 혁명임무 다하는 길에
슬픔도 괴로움도 이겨나가리

일편단심 혁명임무 다하는 길에
슬픔도 괴로움도 이겨나가리

인민혁명군동무들에게 어서 보내세



※ 2절 부를때만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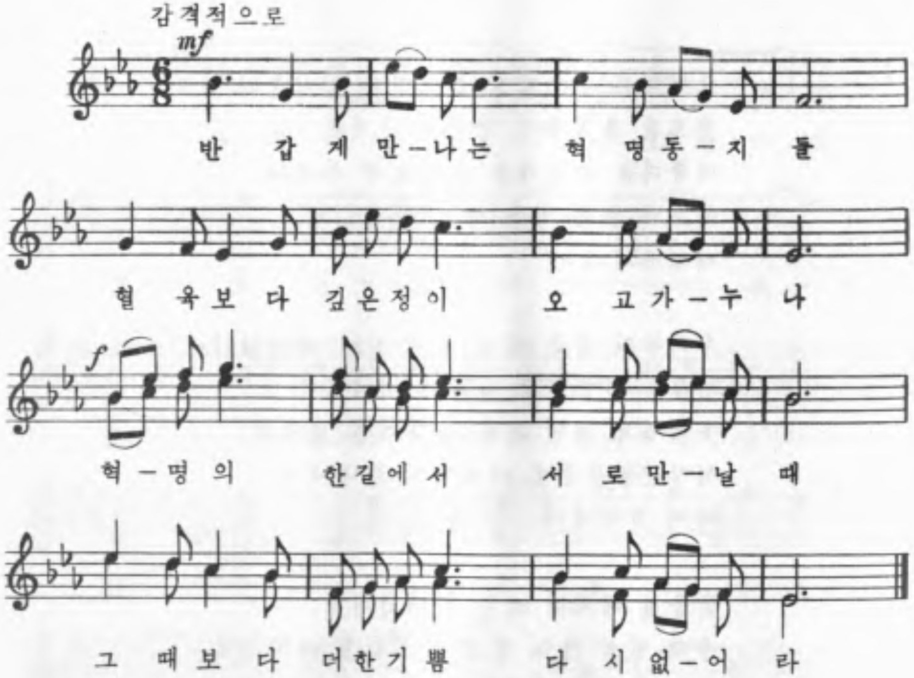
인민혁명군동무들에게 어서 보내세

오월이라 단오명절 꽃바람은 불어불어
푸르른 물결우에 향기도 넘치네
아름다운 꽃늪가로 우리모두 가세나
원호의 붉은 마음 안고 어서가세
어서가세나

우리들의 붉은 정성 꽃이 되여 피여났니
연분홍 진달래꽃 늪가에 피여났네
조국광복 새날 위해 군량미를 보내세
혁명군동무들께 어서어서 보내세나
어서 보내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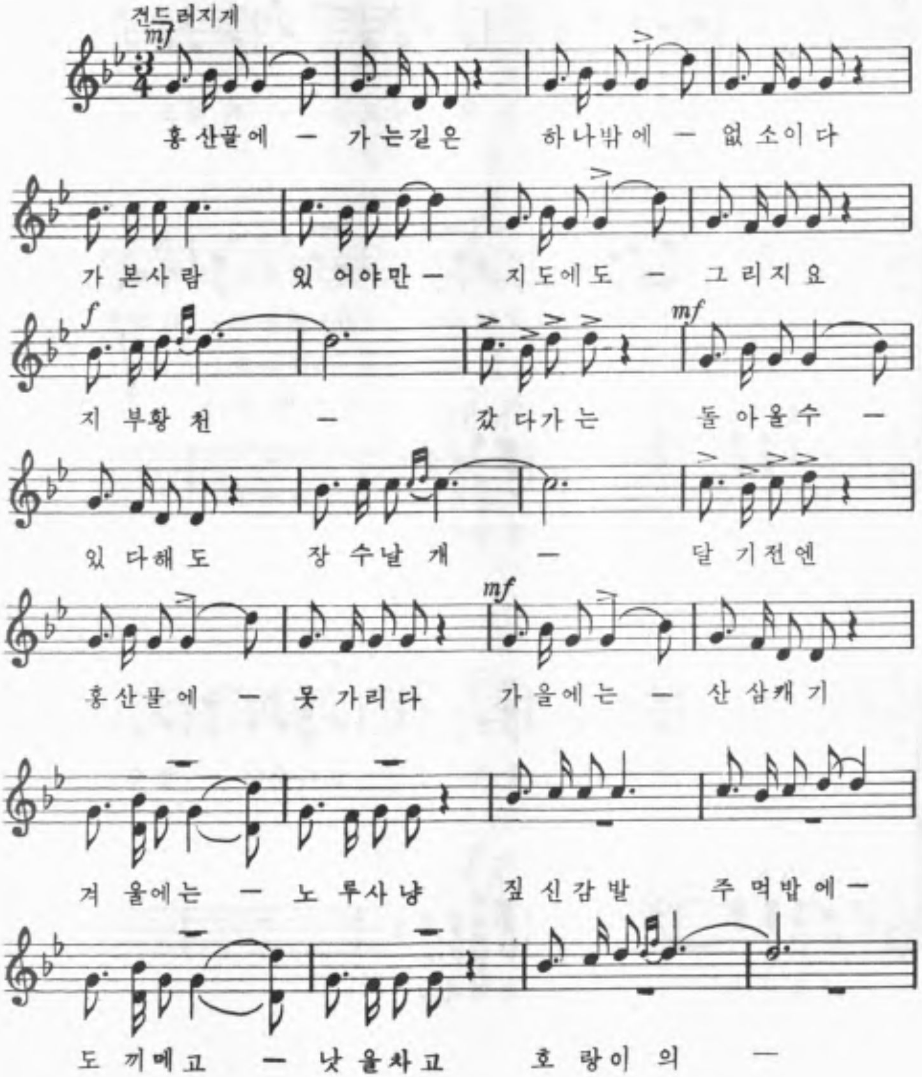
꽃물결 헤치며 배는 떠나간다네
우리 정성 가득 싣고 둥실둥실 떠나가네
승리의 날 기다리는 우리 마음 전해다오
혁명군동무들께 어서어서 전해다오
어서 전해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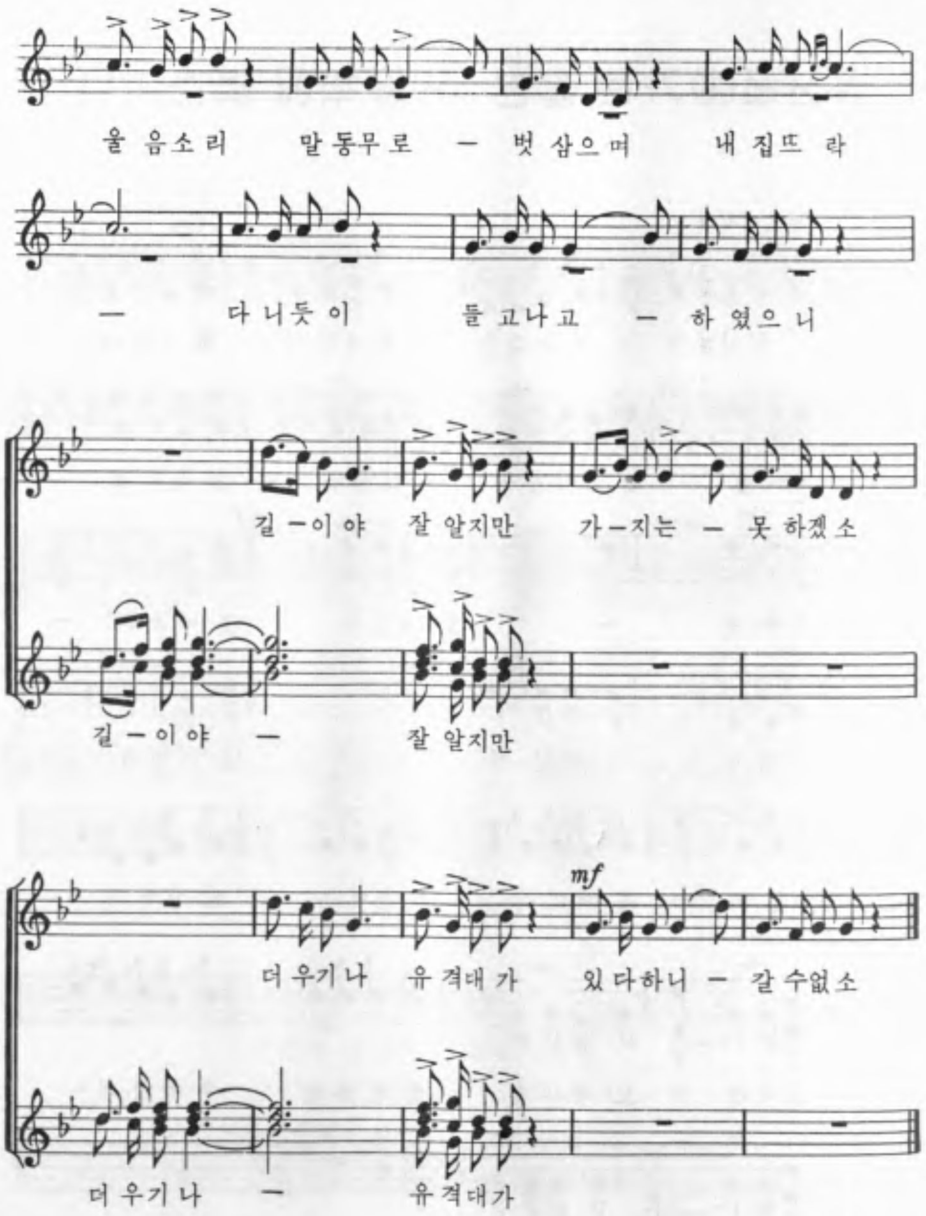
반갑게 만나는 혁명동지들



반갑게 만나는 혁명동지들
혈육보다 깊은 정이 오고가누나
혁명의 한길에서 서로 만날 때
그때보다 더 한 기쁨 다시 없어라

홍산골에 가는 길은 하늘밖에 없소이다





홍산골로 가는 길은 하늘밖에 없소이다

홍산골에 가는 길은 하늘밖에 없소이다
가본 사람 있어야만 지도에도 그리지요
지부황천 갔다가는 돌아올수 있다해도
장수날개 달기전엔 홍산골에 못가리다

가을에는 산삼캐기 겨울에는 노루사냥
짚신감발 주먹밥에 도끼 메고 낫을 차고
호랑이의 울음소리 말동무로 벗삼으며
내 집 뜨락 다니듯이 들고나고 하였으니
길이야 잘 알지만 가지는 못하겠소
더우기나 유격대가 있다 하니 갈수 없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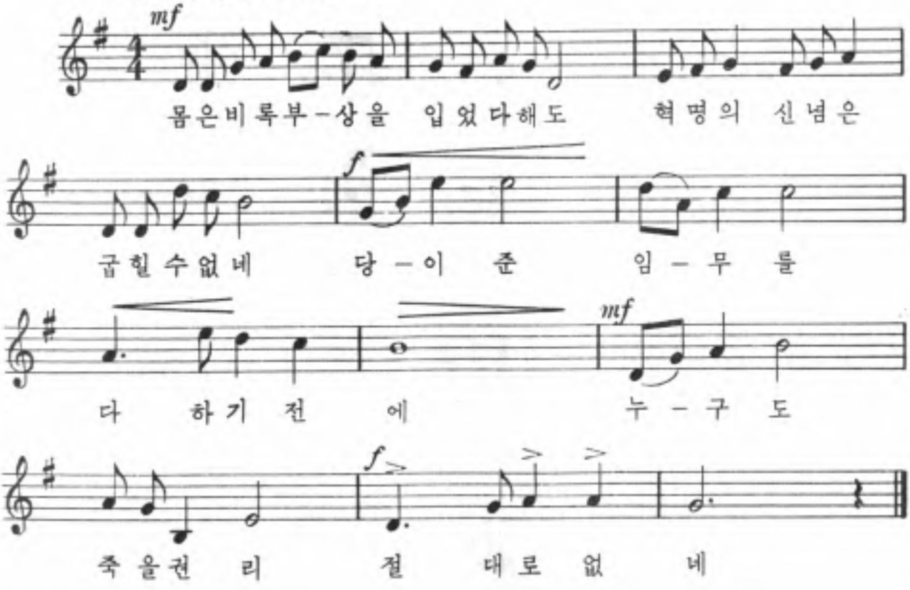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THE REVOLUTIONARY OPERA
"A TRUE DAUGHTER OF THE PARTY"

L'OPERA REVOLUTIONNAIRE
"FILLE VERITABLE DU PAR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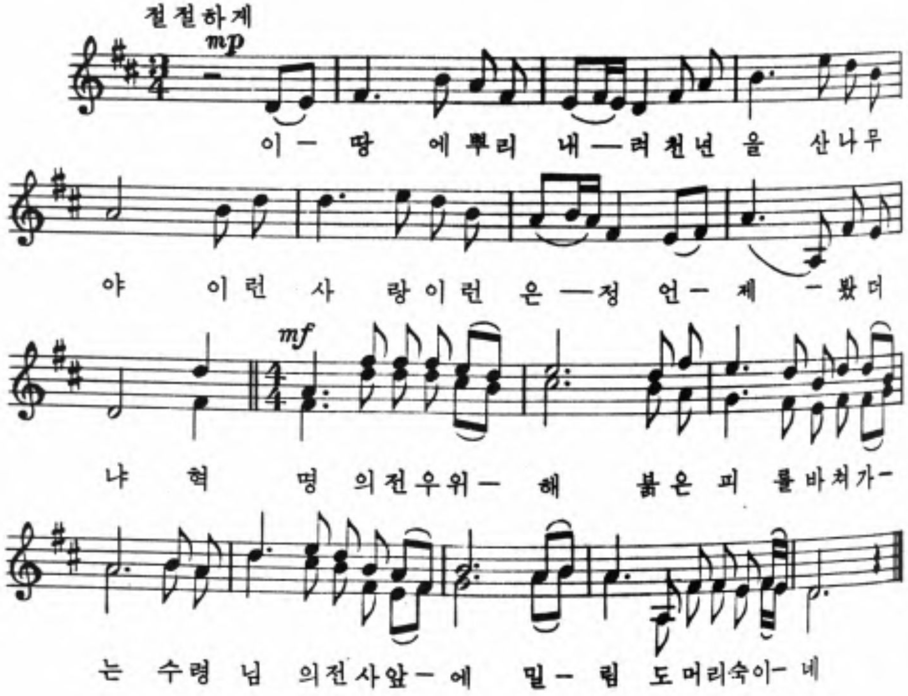
혁명의 신념을 굽힐수 없네

절절하게 호소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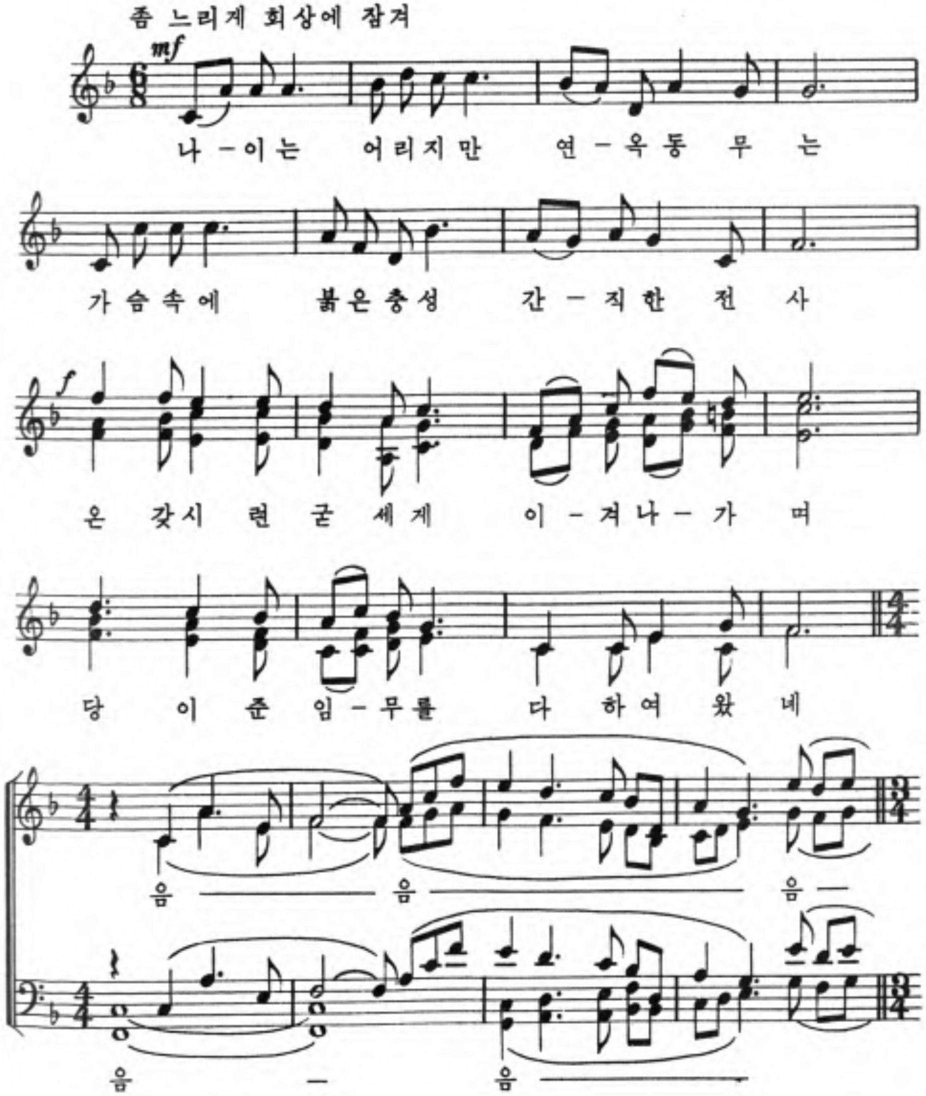


몸은 비록 부상을 입었다해도
혁명의 신념은 굽힐수 없네
당이 준 임무를 다하기전에
누구도 죽을 권리 절대로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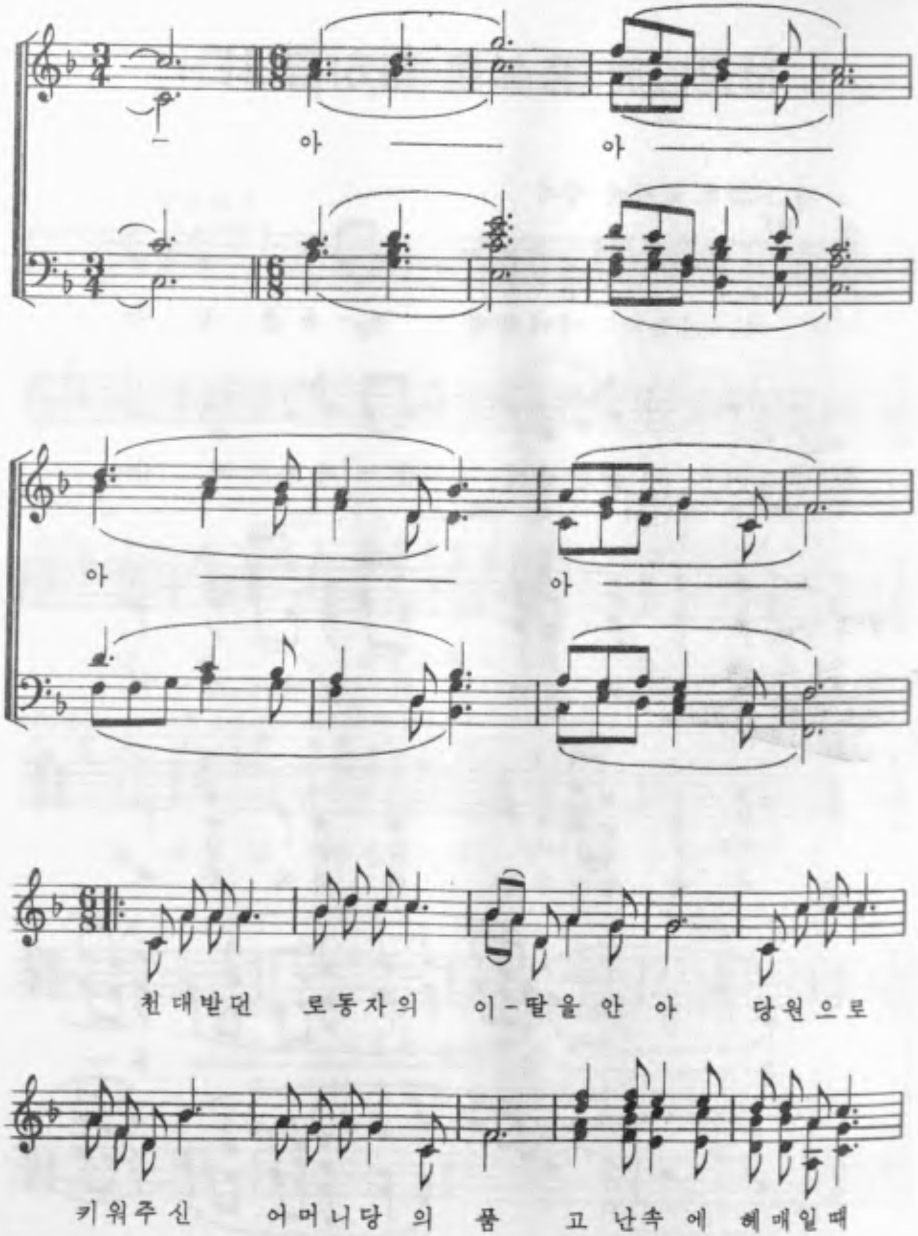
수혈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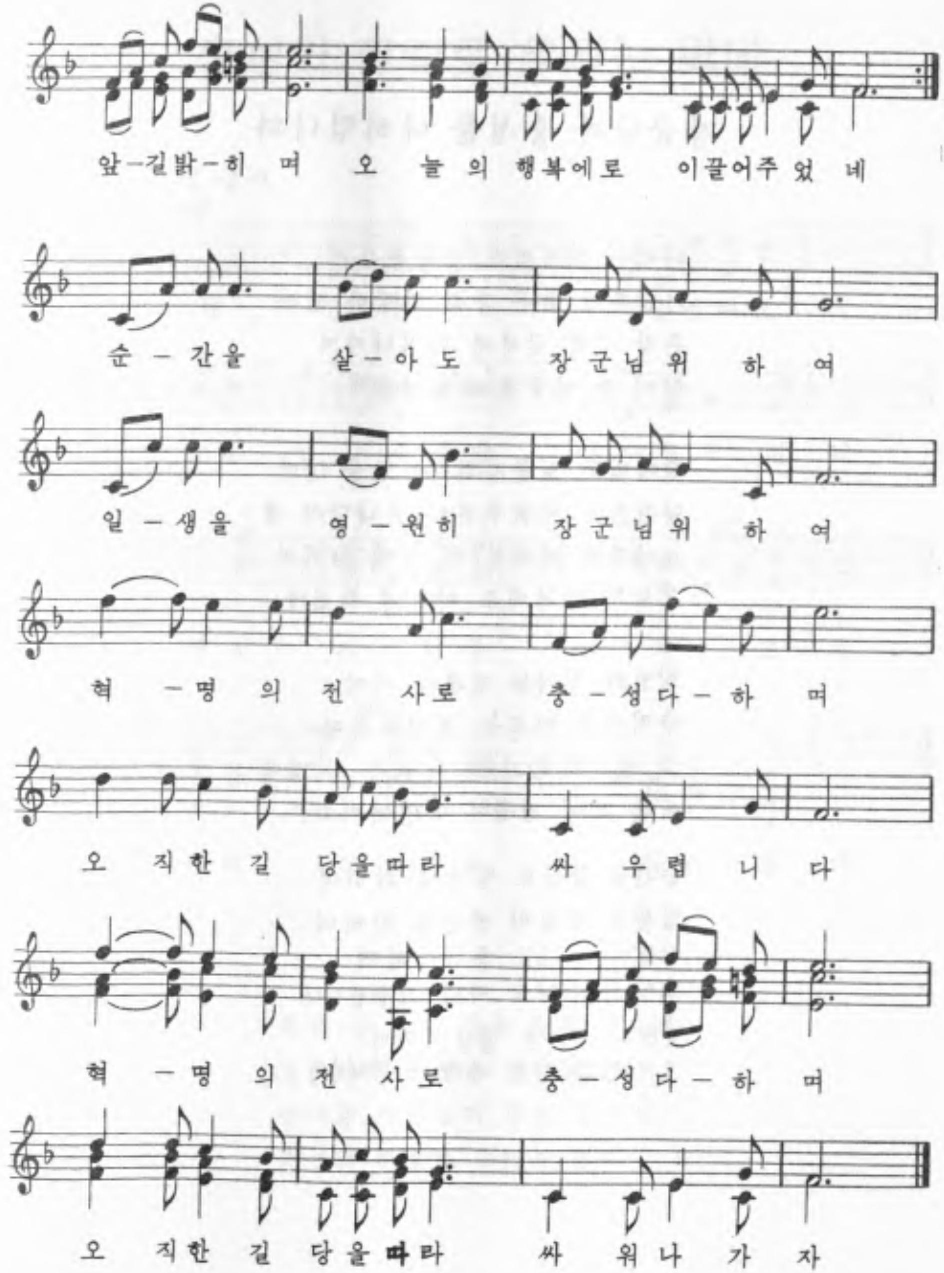


하늘에는 북두칠성 밝은 빛을 뿌리고
숲속에 안개는 고요히 흐르네
성스러운 싸움에 목숨바쳐 달려나갈
혁명의 전우여 어서 일떠서시라

장군님께 충성을 다하렵니다





아 —— 아 ——
아 —— 아 ——
천대받던 로동자의 이-딸을 안 아 당원으로
키워주신 어머니당 의 품 고 난속 에 헤매일때



앞-길밝-히 며 오 늘 의 행복에로 이끌어주 었 네
순 - 간을 살-아도 장군님위 하 여
일 - 생을 영 - 원히 장 군 님 위 하 여
혁 -명 의 전 사로 충-성다-하 며
오 직한 길 당을따라 싸 우렵 니 다
혁 -명 의 전 사로 충-성 다 - 하 며
오 직한 길 당을따라 싸 워나 가 자

장군님께 충성을 다하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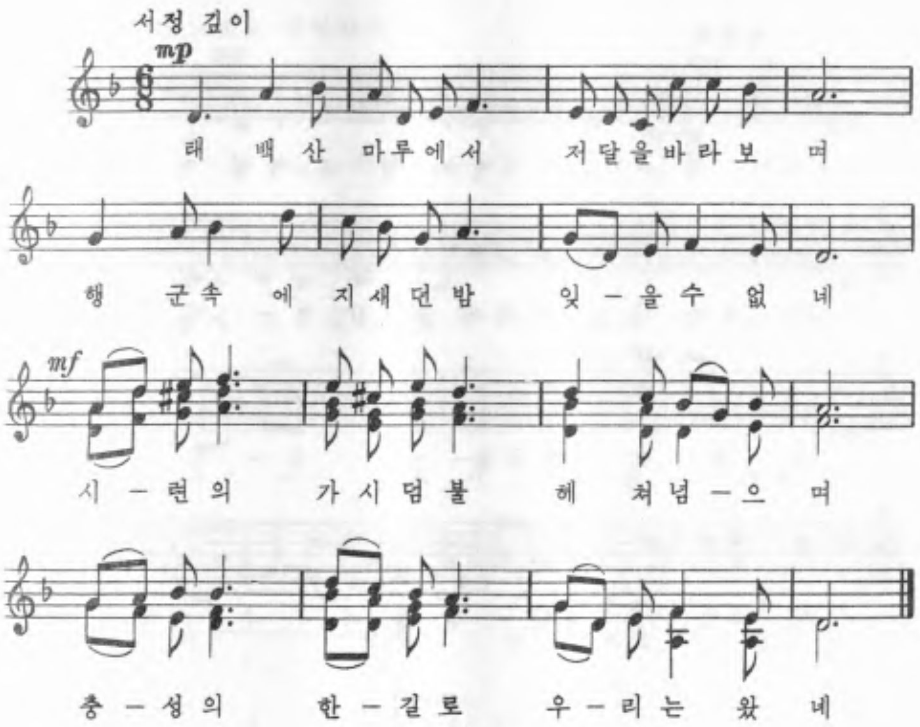
나이는 어리지만 연옥동무는
가슴속에 붉은 충성 간직한 전사
온갖 시련 굳세게 이겨나가며
당이 준 임무를 다하여왔네

천대받던 로동자의 이 딸을 안아
당원으로 키워주신 어머니당의 품
고난속에 헤매일 때 앞길 밝히며
오늘의 행복에로 이끌어 주었네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승리에로 이끄는 조선로동당
그 품속에 안기는 높은 이 영예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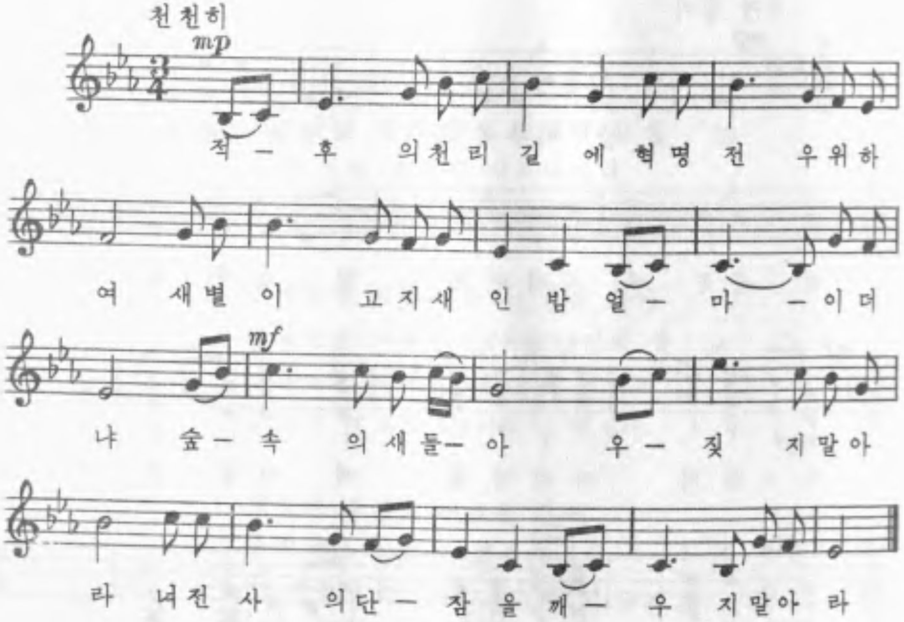
순간을 살아도 장군님 위하여
일생을 영원히 장군님 위하여
혁명의 전사로 충성다하며
오직 한길 당을 따라 싸우렵니다
혁명의 전사로 충성다하며
오직 한길 당을 따라 싸워나가자

충성의 한길로 우리는 왔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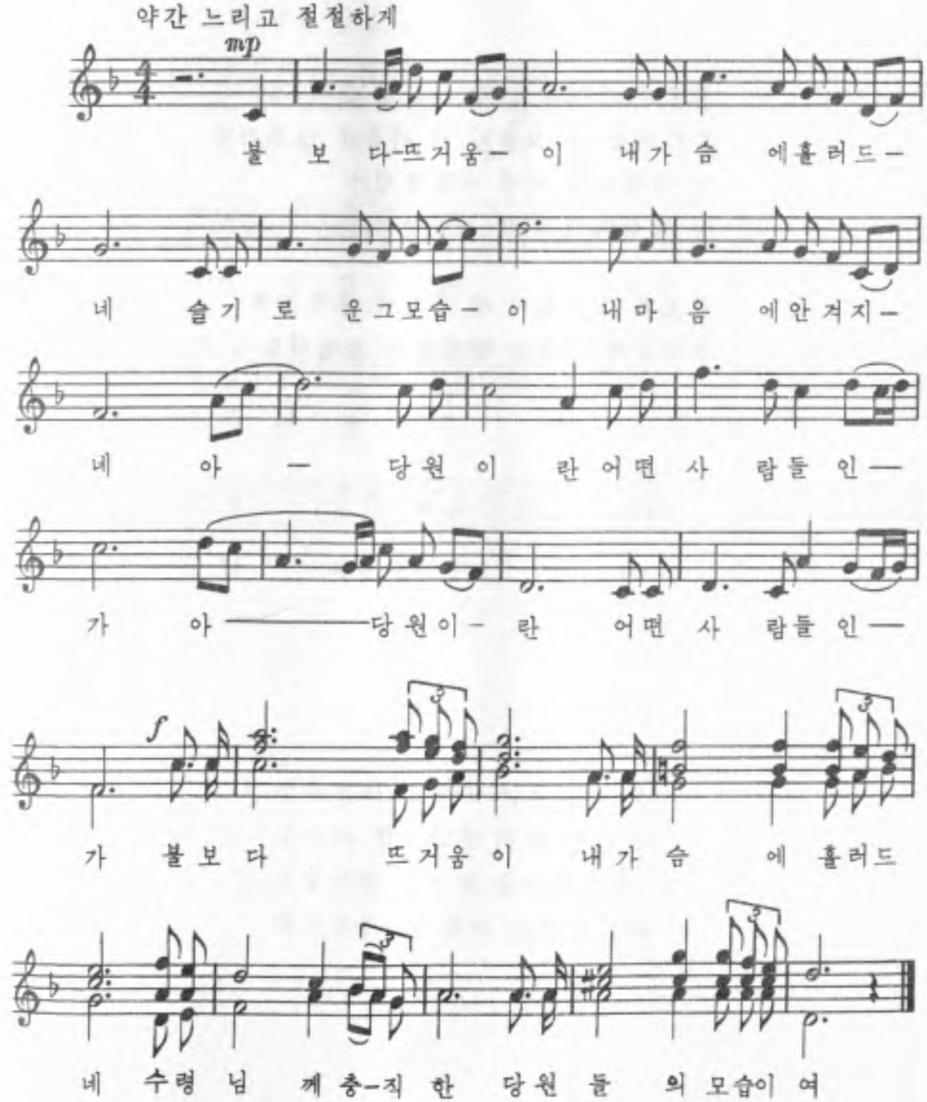
험한 산 깊은 강을 함께 넘으며
걸음마다 우정은 깊어졌다네
한마음 장군님의 품을 찾아서
충성의 한길로 우리는 왔네

녀전사의 단잠을 깨우지 말아라



산을 넘어 수천리 강을 건너 수천리
당을 따라 찾아온 길 얼마이더냐
충성의 붉은마음 아로새기며
수령님의 넓은 품을 찾아갑니다

아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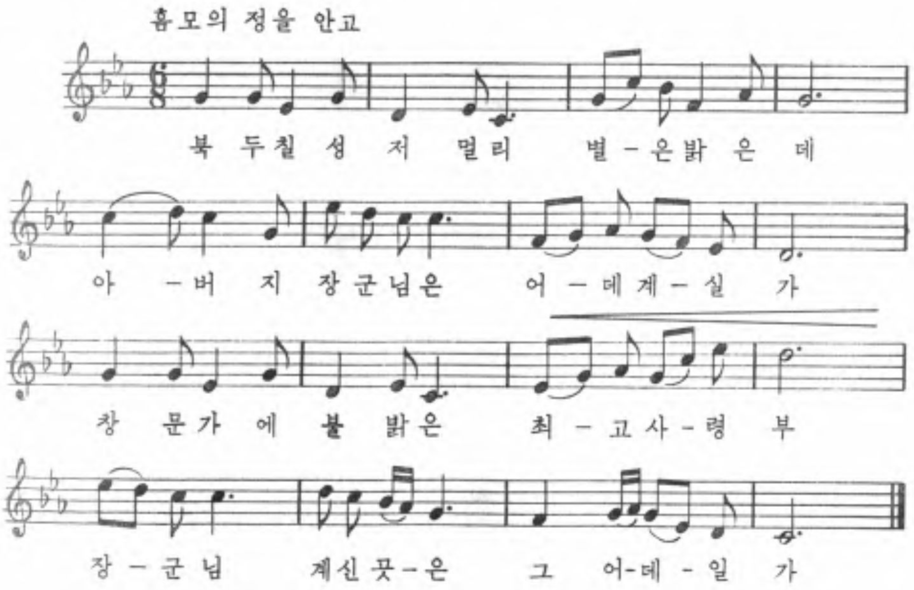


아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불보다 뜨거움이 내 가슴에 흘러드네
슬기로운 그 모습이 내 마음에 안겨지네
아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아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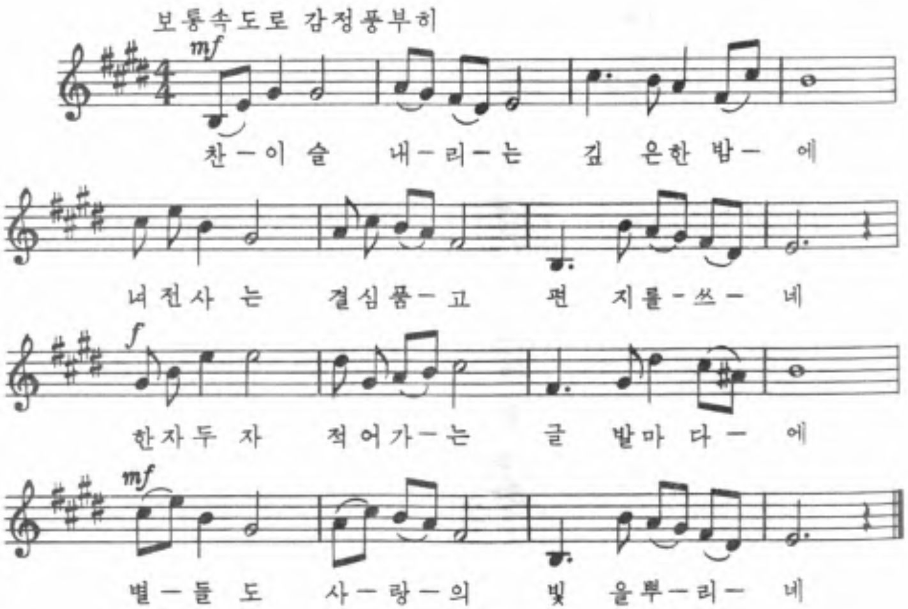
불보다 뜨거움이 내 가슴에 흘러드네
수령님께 충직한 당원들의 모습이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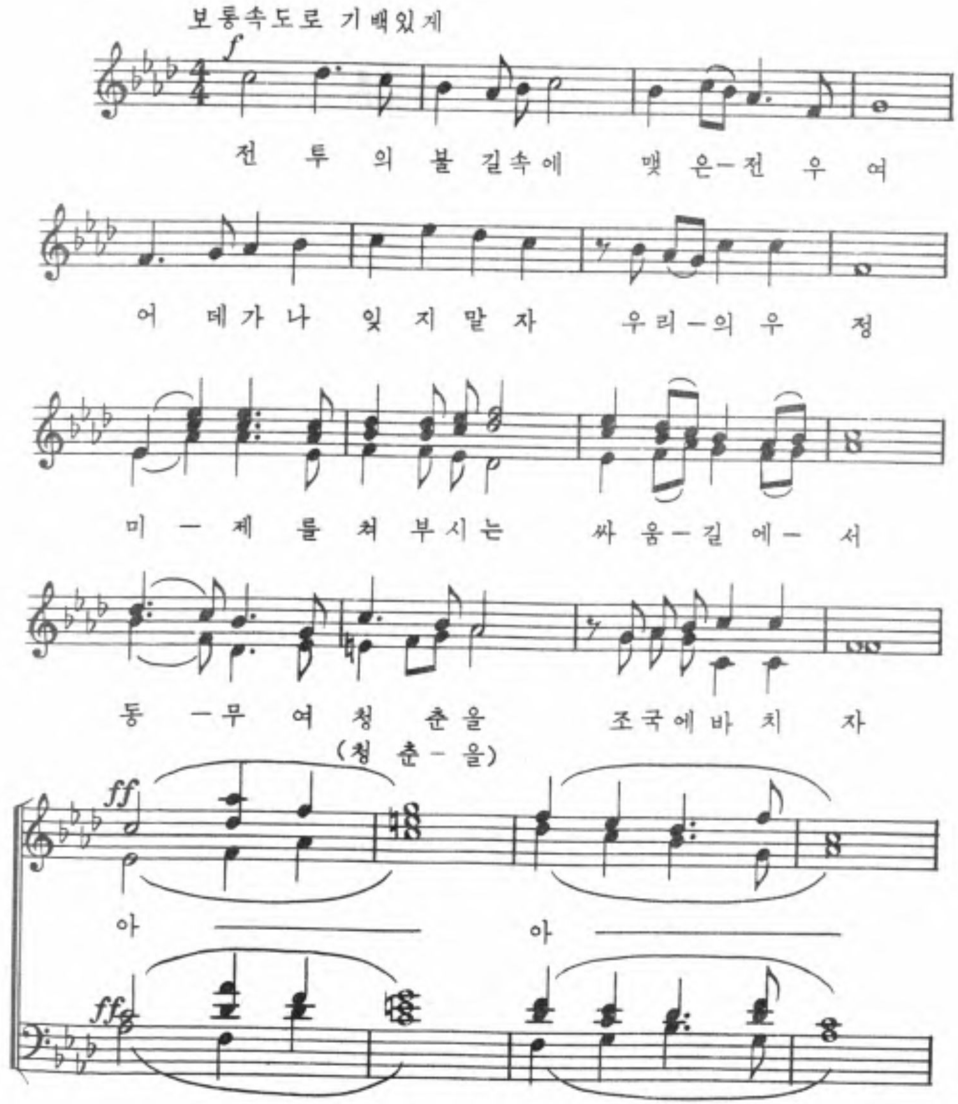


적후천리 밀림속 밤은 깊은데
우리의 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가을바람 찬바람 불어올수록
따사로운 그 품이 그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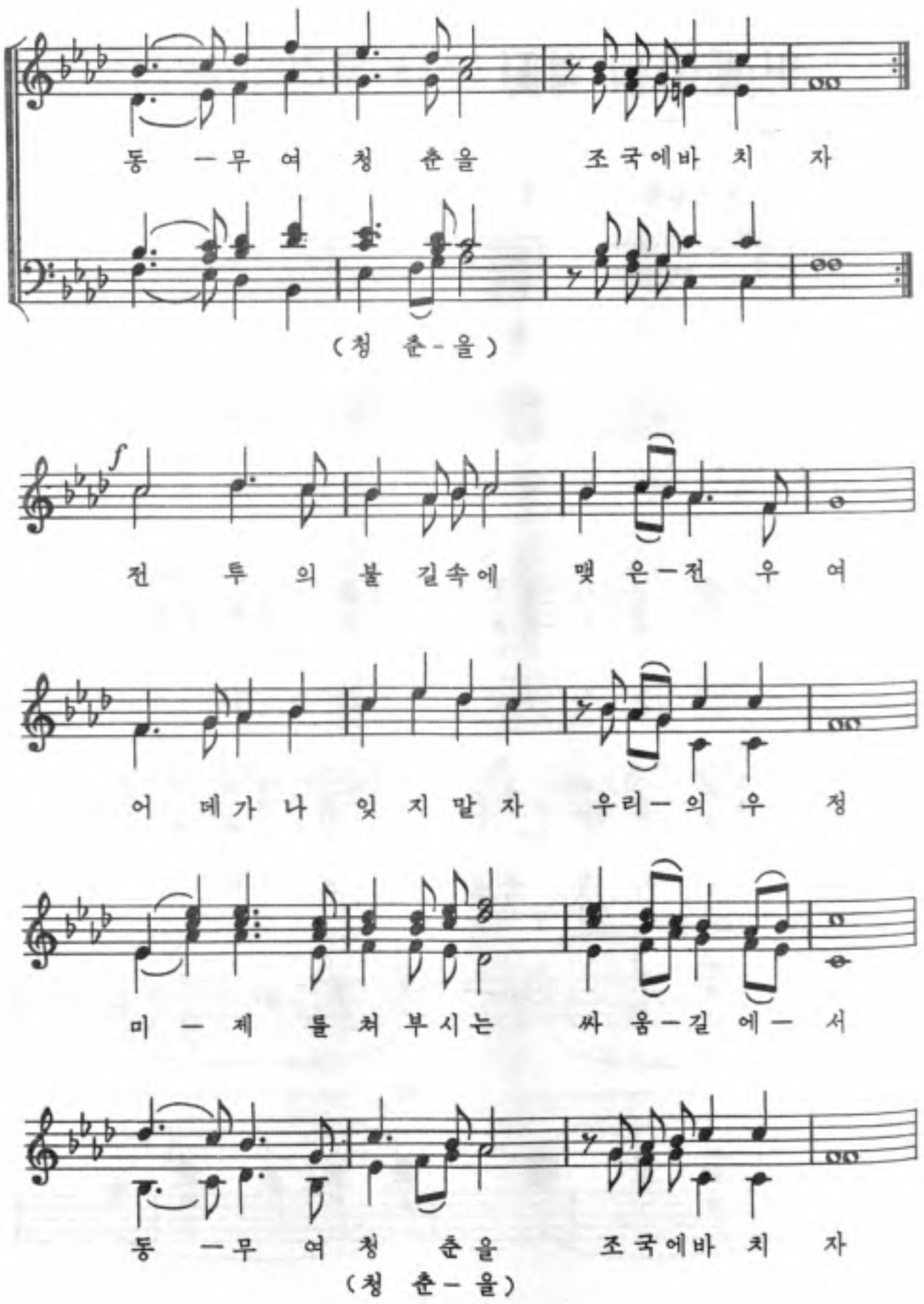
별빛도 사랑의 빛을 뿌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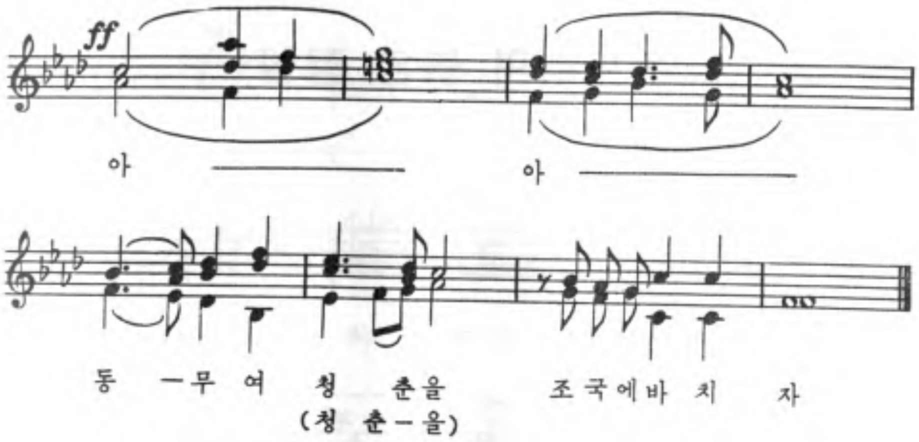


혁명의 전우 위해 먼길 떠나는
간호원의 그 모습 가슴뜨겁네
험한 길을 헤쳐가는 녀전사앞에
별이여 밝은 빛을 뿌리여다오

어데 가나 잊지말자 우리의 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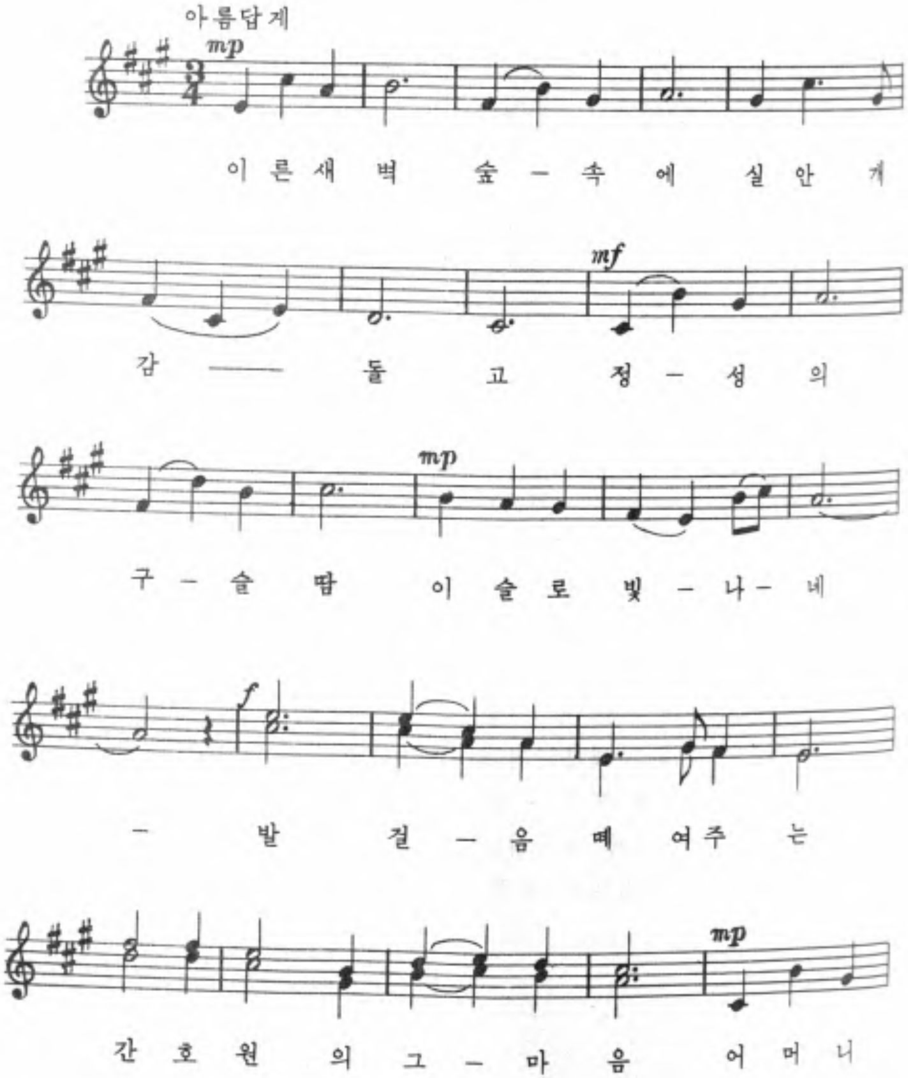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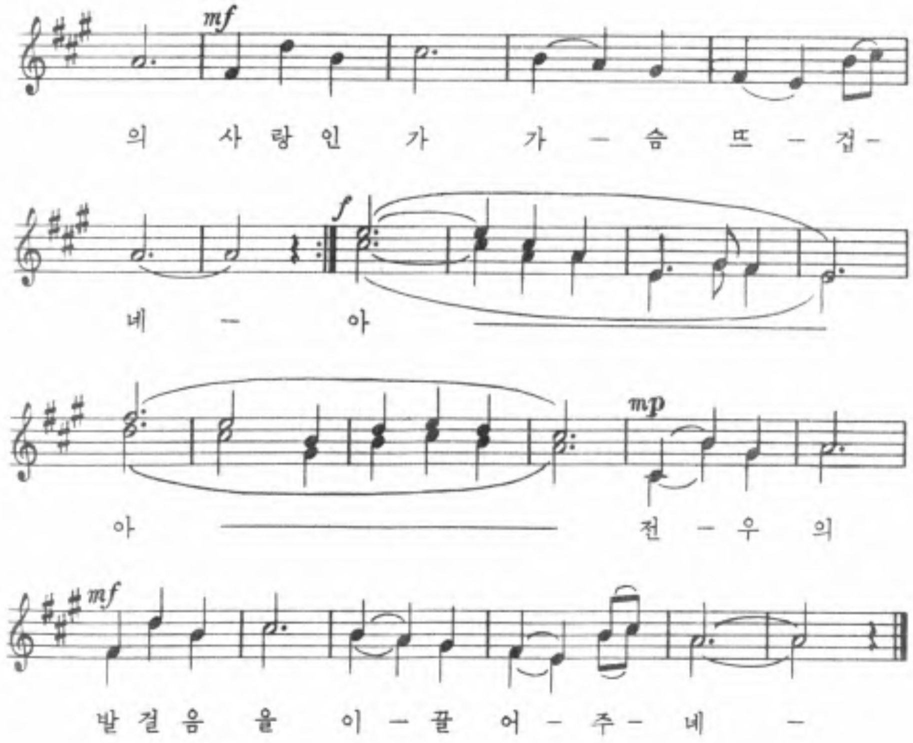


전투의 불길속에 맺은 전우여
어데 가나 잊지 말자 우리의 우정
미제를 쳐부시는 싸움길에서
동무여 청춘을 조국에 바치자
아 동무여 청춘을 조국에 바치자

어데 가나 잊지 못할 전우들이여
승리의 광장에서 다시 만나자
미제를 쳐부신 자랑을 안고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자
아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자

간호원의 붉은 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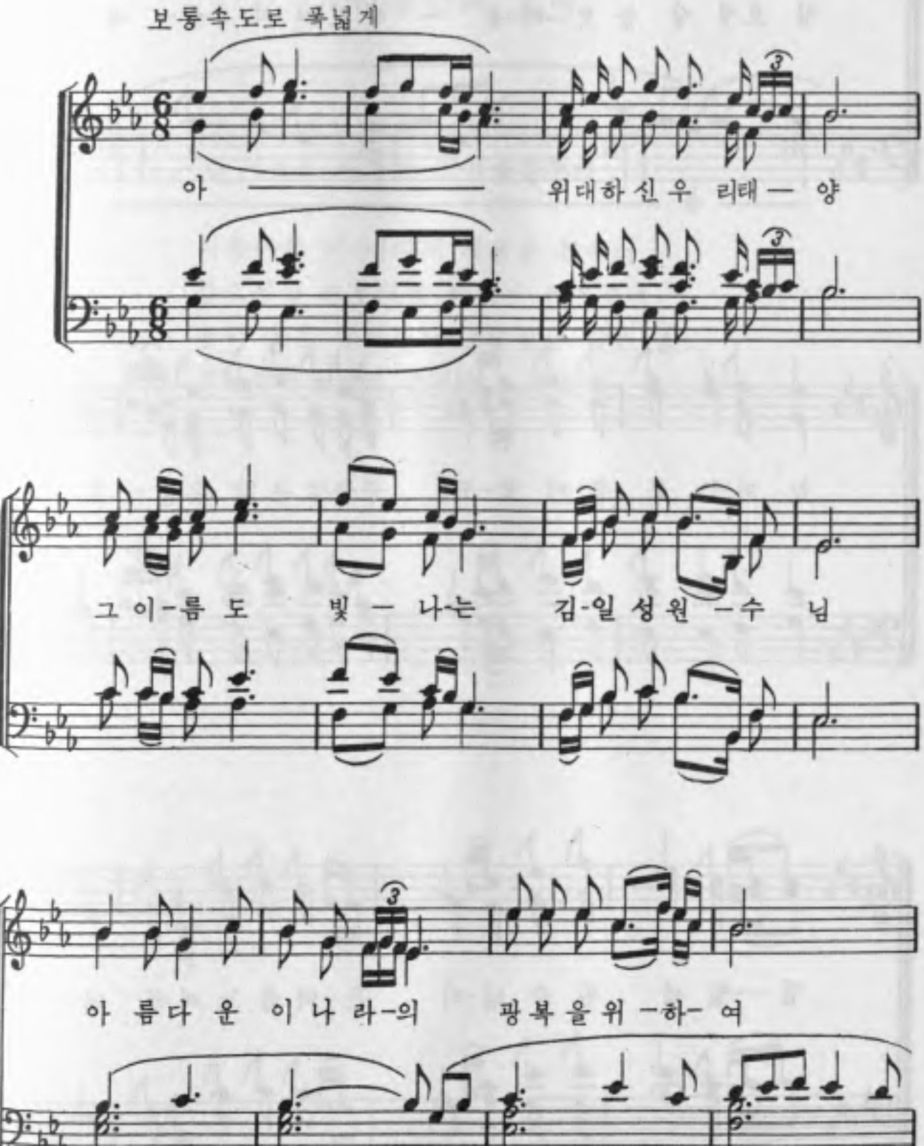
저 멀리 고지우에 먼동이 밝아오고
붉은 정성 노을처럼 곱게 피여나네
한걸음 두걸음 새아침을 향하여
전우의 발걸음을 이끌어주네
아 전우의 발걸음을 이끌어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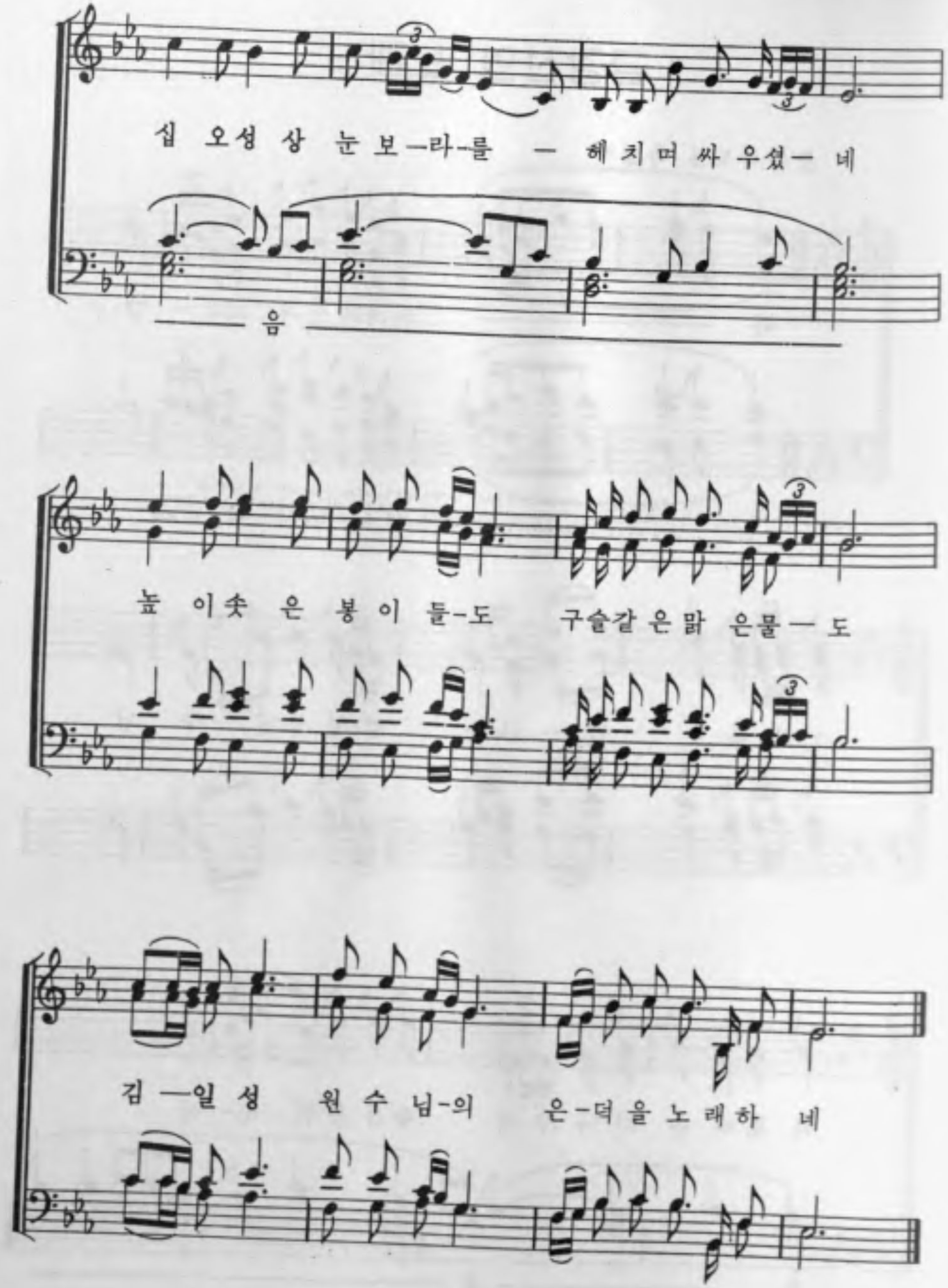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REVOLUTIONARY OPERA
THE SONG OF
KUM GANG-SAN MOUNTAIN

OPERA REVOLUTIONNAIRE
LE CHANT DU MONT
KEUMGANG-SAN

금강산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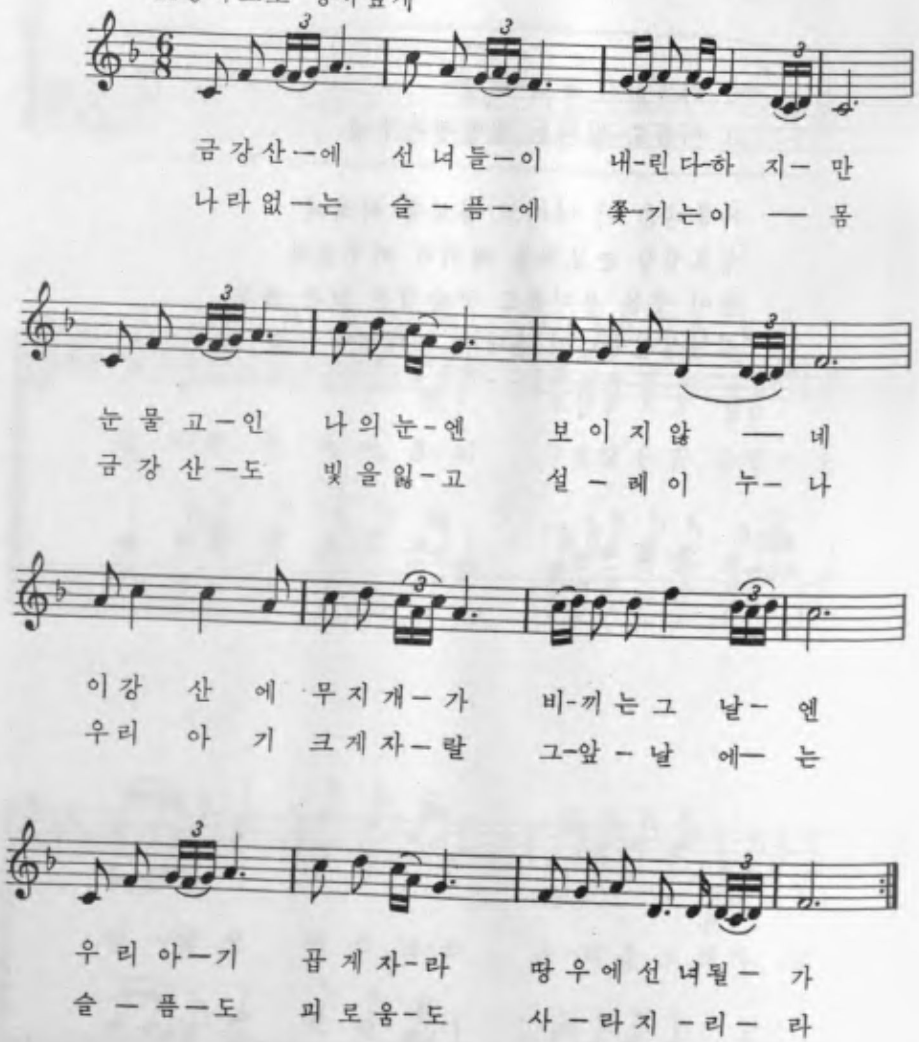
금강산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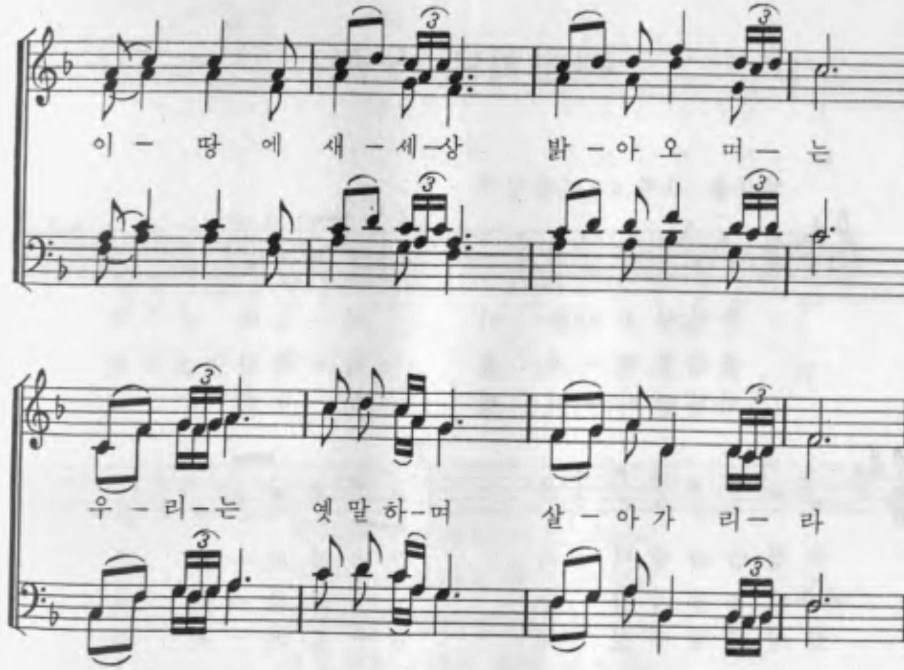
아 위대하신 우리 태양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원수**님

아름다운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하여
십오성상 눈보라를 헤치며 싸우셨네
높이 솟은 봉이들도 구슬같은 맑은 물도
김일성원수님의 은덕을 노래하네

금강산에 선녀들이 내린다 하지만

보통속도로 정서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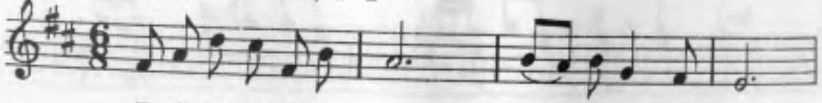
금강산에 선녀들이 내린다 하지만
눈물고인 나의 눈엔 보이지 않네
이 강산에 무지개가 비끼는 그날엔
우리 아기 곱게자라 땅우에 선녀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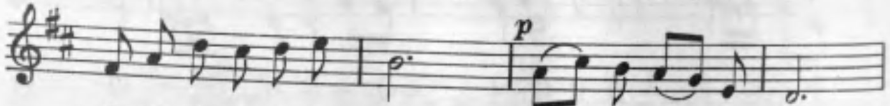
나라 없는 슬픔에 쫓기는 이 몸
금강산도 빛을 잃고 설레이누나
우리 아기 크게 자랄 그 앞날에는
슬픔도 괴로움도 사라지리라

이 땅에 새세상 밝아오며는
우리는 옛말하며 살아가리라

목란꽃의 노래

정서를 가지고 아름답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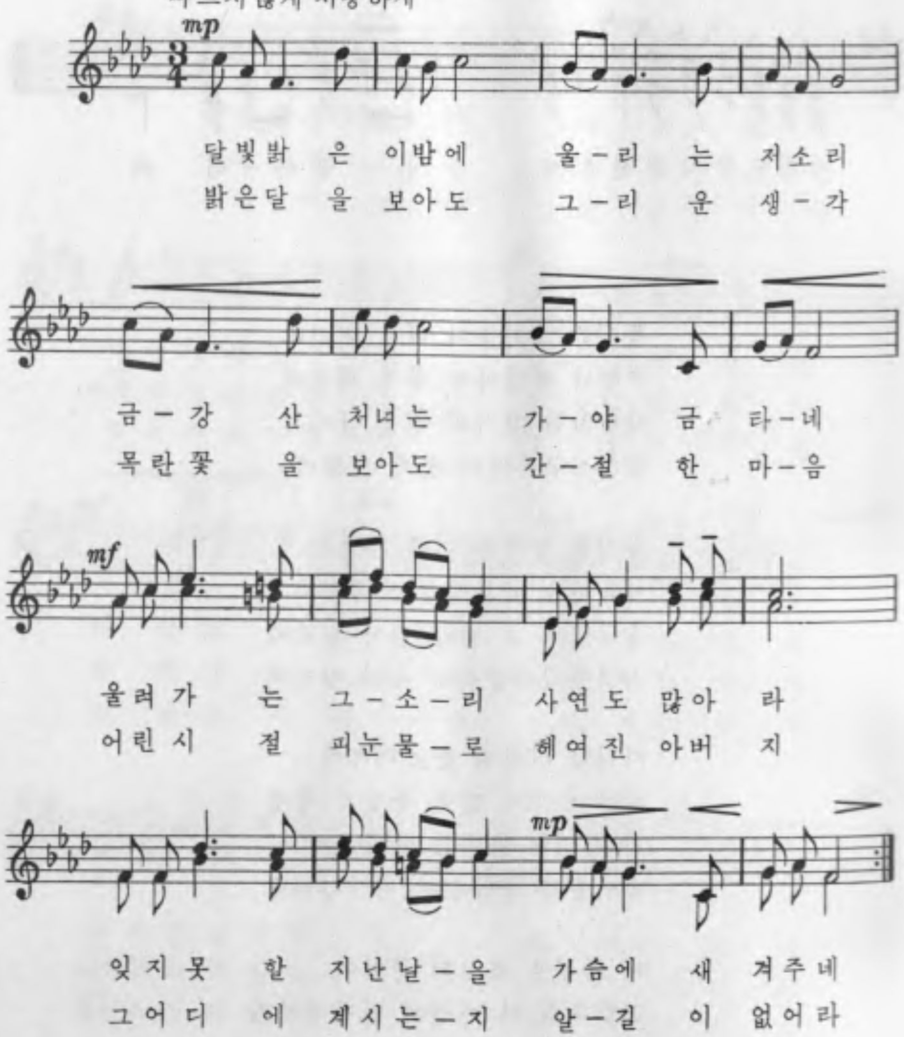












목란꽃 송이송이 피고 피였네
수령님 해빛아래 곱게 피였네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서
금강산봉이마다 활짝 피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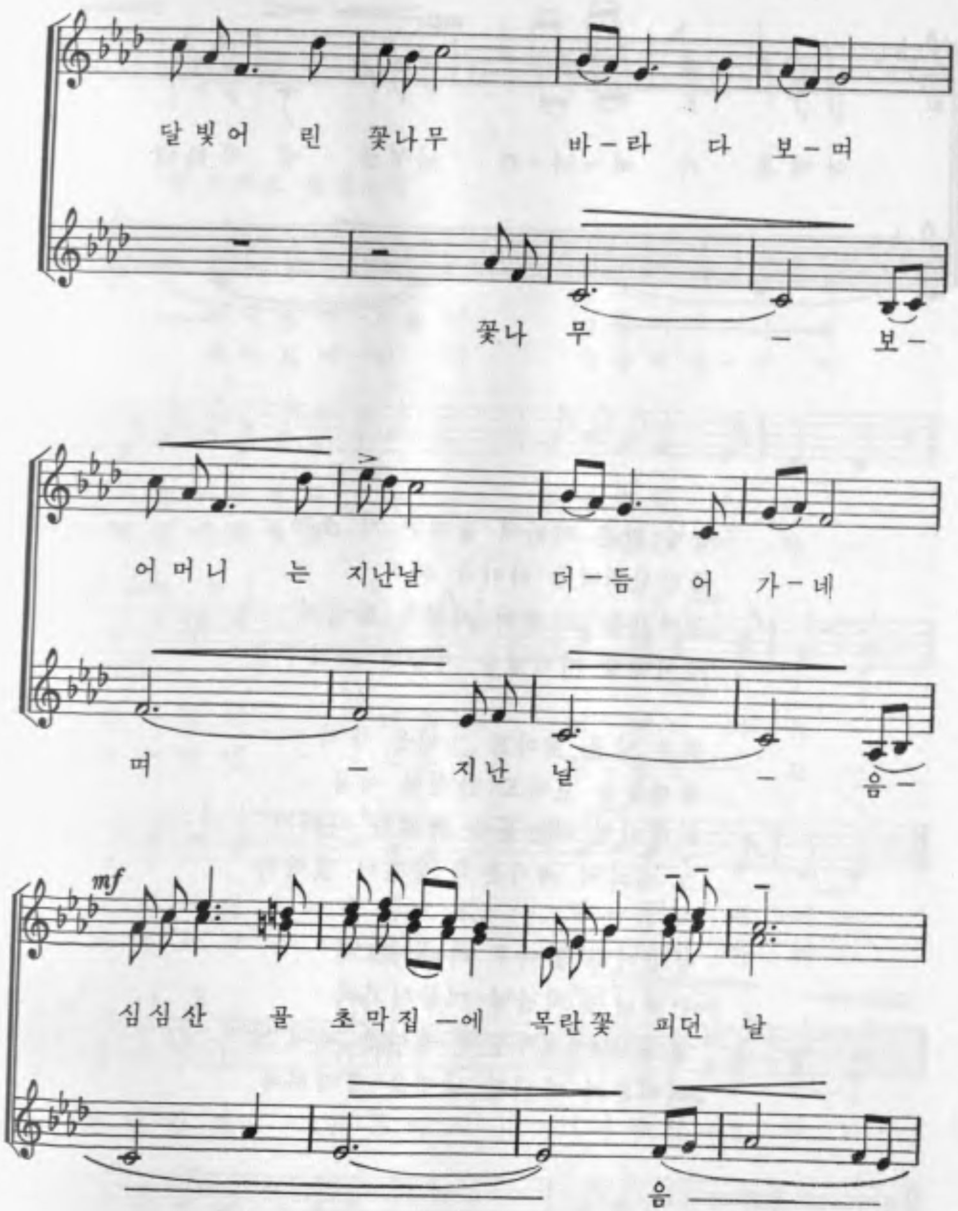
목란꽃 향기를 함뿍 안고서
아름다운 금강산을 노래하리라
수령님의 그 사랑 길이 전하며
사회주의락원속에 우리 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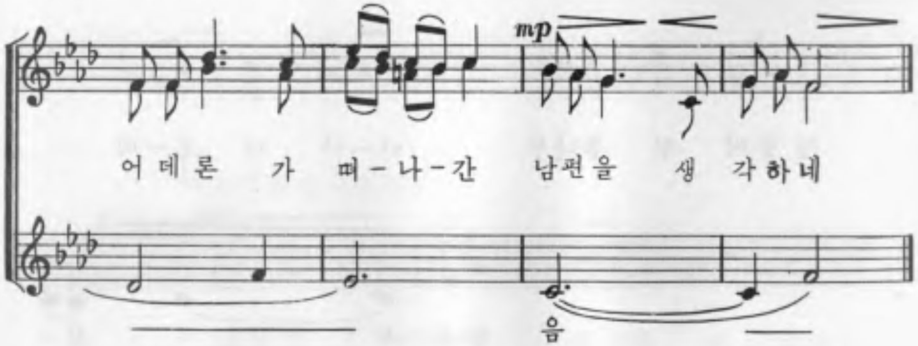
지난날 비바람 눈보라속에
필래야 필수 없던 금강의 목란
이 강산에 넘치는 해빛아래서
송이송이 천만송이 피여난다네

아 목란꽃 조선의 꽃이여
사회주의 이 강산에 만발하여라

달빛 밝은 이 밤에


빠르지 않게 처량하게
mp
달빛밝 은 이밤에 울-리 는 저소리
밝은달 을 보아도 그-리 운 생-각
금-강 산 처녀는 가-야 금 타-네
목란꽃 을 보아도 간-절 한 마-음
mf
울려가 는 그-소-리 사연도 많아 라
어린시 절 피눈물-로 헤여진 아버 지
mp
잊지못 할 지난날-을 가슴에 새 겨주네
그어디 에 계시는-지 알-길 이 없어라


달빛어 린 꽃나무 바-라 다 보-며
꽃나 무 - 보-
어머니 는 지난날 더-듬 어 가-네
며 - 지난 날 - 음-
mf
심심산 골 초막집-에 목란꽃 피던 날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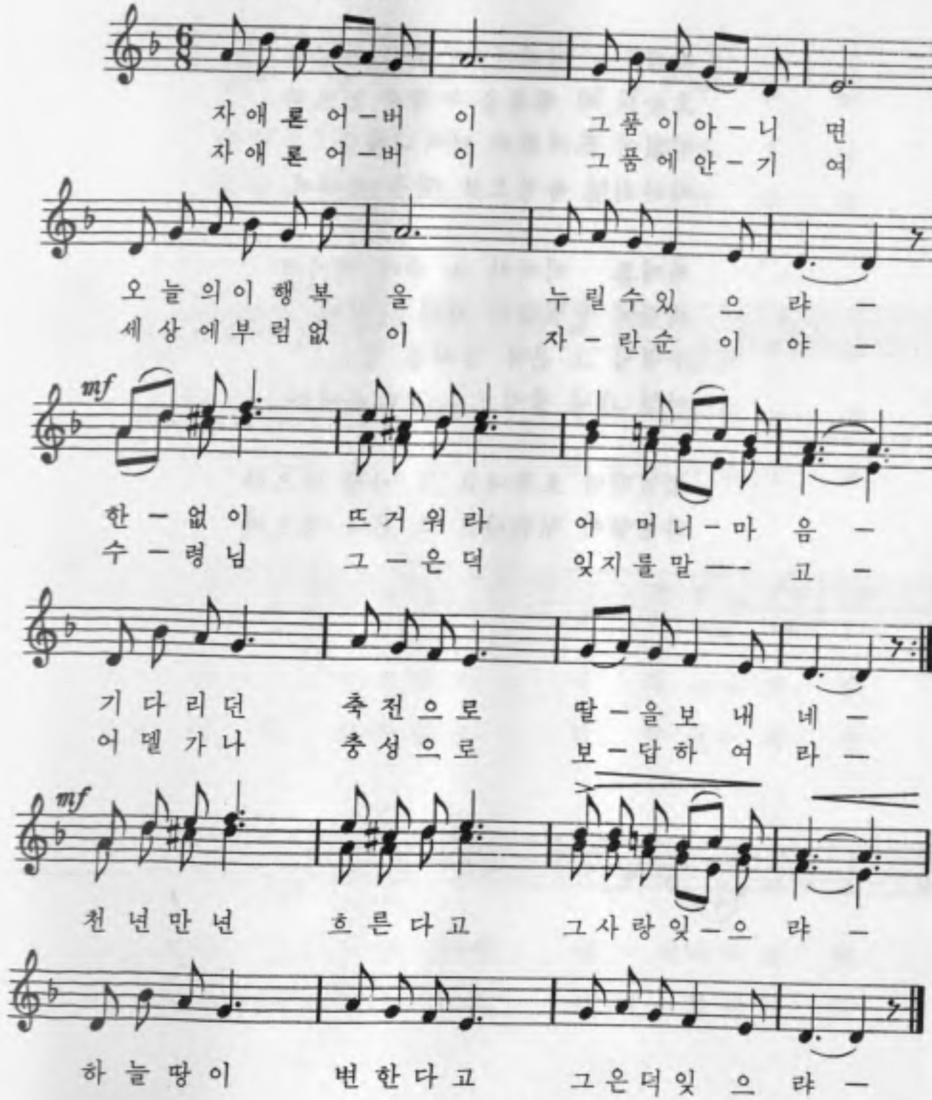


달빛 밝은 이밤에 울리는 저 소리
금강산처녀는 가야금 타네
울려가는 그 소리 사연도 많아라
잊지못할 지난날을 가슴에 새겨주네

밝은 달을 보아도 그리운 생각
목란꽃을 보아도 간절한 마음
어린시절 피눈물로 헤여진 아버지
그 어디에 계시는지 알길이 없어라

달빛어린 꽃나무 바라다보며
어머니는 지난날 더듬어가네
심심산골 초막집에 목란꽃 피던 날
어데론가 떠나간 남편을 생각하네

자애로운 어버이 그 품이 아니면

좀 느리고 절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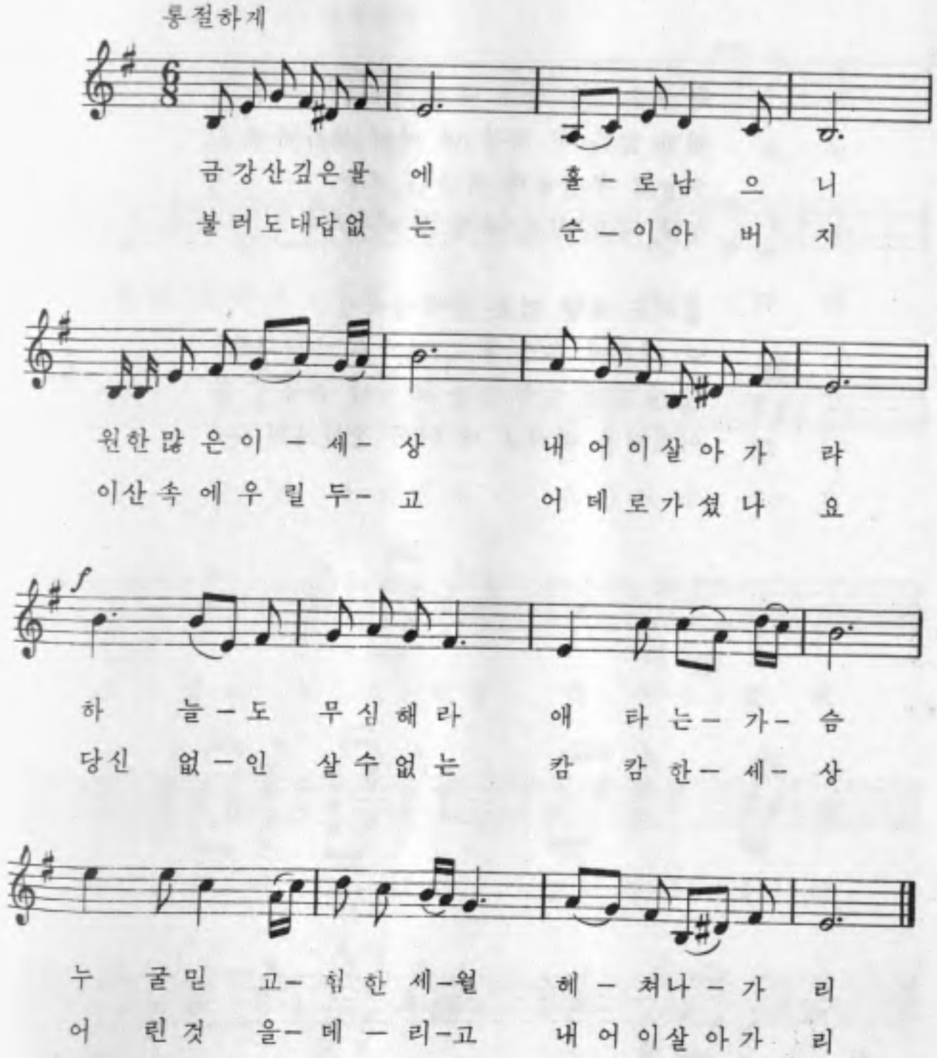


자애로운 어버이 그 품이 아니면

자애론 어버이 그 품이 아니면
오늘의 이 행복을 누릴수 있으랴
한없이 뜨거워라 어머니마음
기다리던 축전으로 딸을 보내네

자애론 어버이 그 품에 안기여
세상에 부럼없이 자란 순이야
수령님 그 은덕 잊지를 말고
어델 가나 충성으로 보답하여라

천년만년 흐른다고 그 사랑 잊으랴
하늘땅이 변한다고 그 은덕 잊으랴

금강산 깊은 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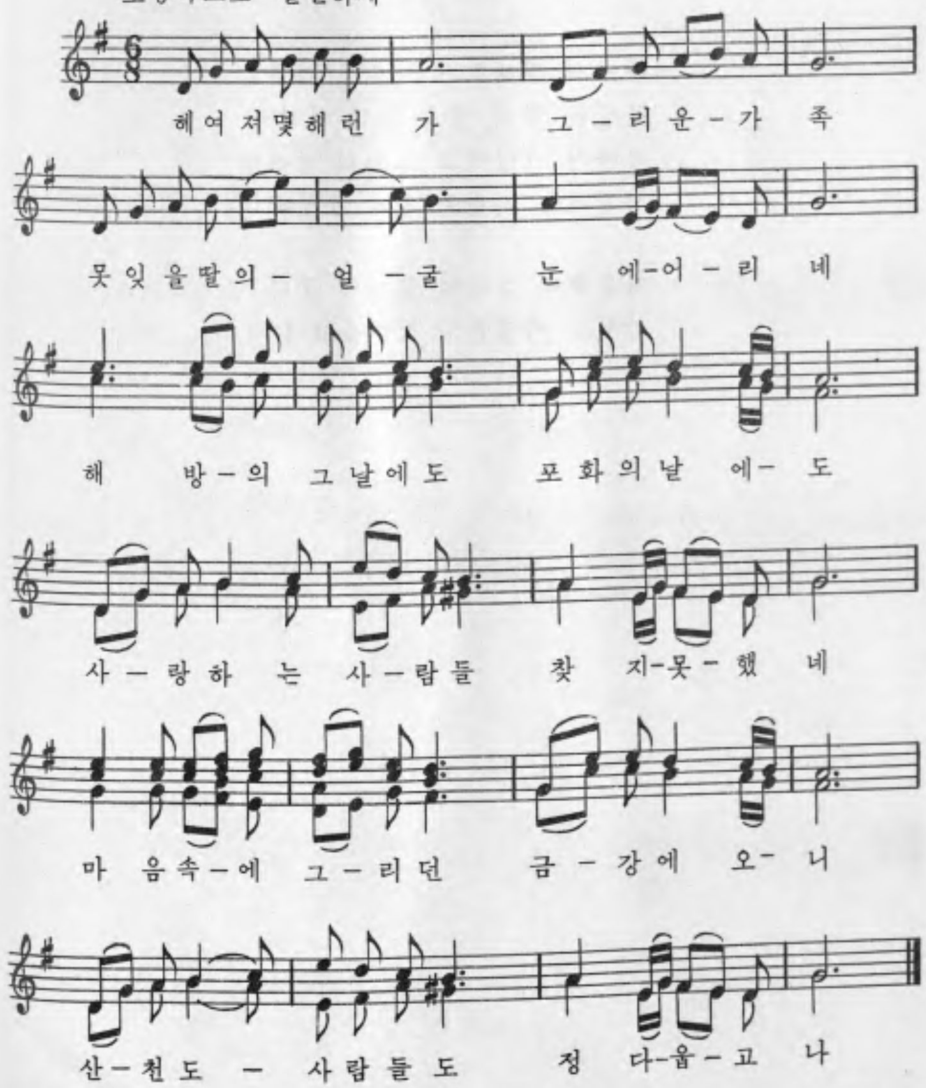
금강산 깊은 골에

금강산 깊은 골에 홀로 남으니
원한 많은 이 세상 내 어이 살아가랴
하늘도 무심해라 애타는 가슴
누굴 믿고 험한 세월 헤쳐나가리

불러도 대답 없는 순이아버지
이 산속에 우릴 두고 어데로 가셨나요
당신 없인 살수 없는 캄캄한 세상
어린것을 데리고 내 어이 살아가리

헤여져 몇해런가

보통속도로 절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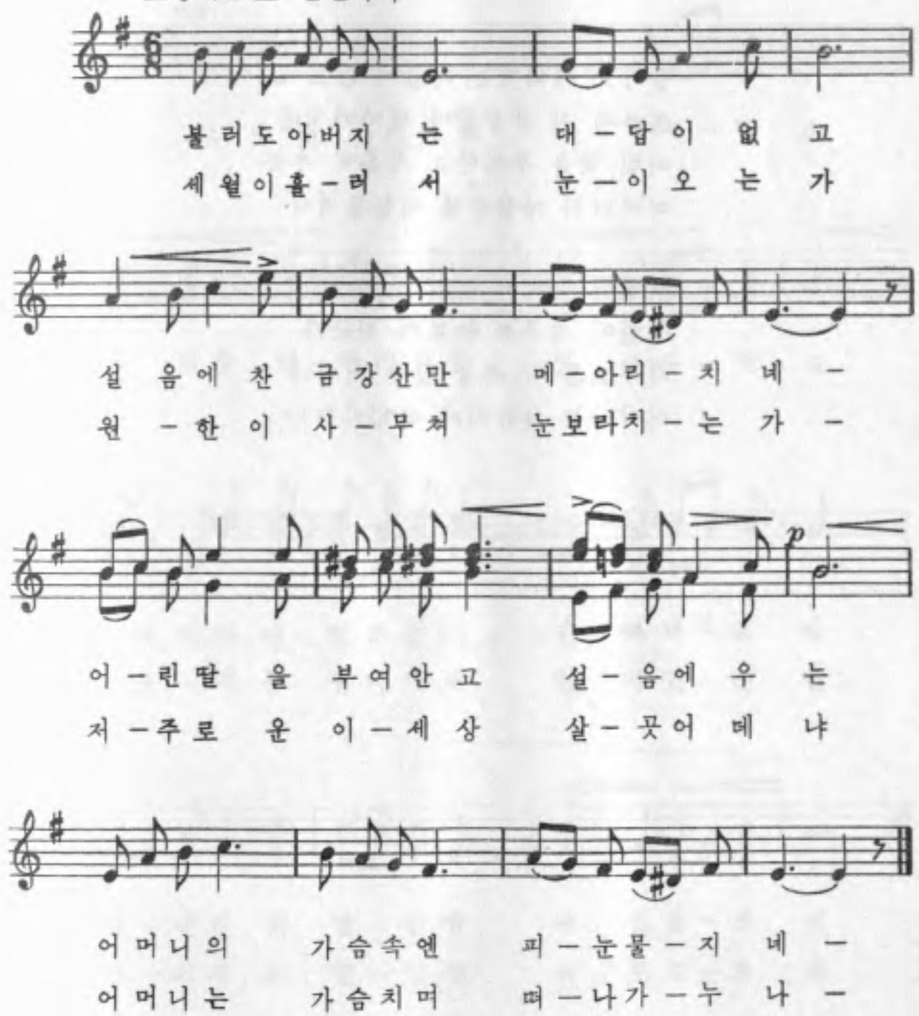


헤여져 몇해런가

헤여져 몇해런가 그리운 가족
못잊을 딸의 얼굴 눈에 어리네
해방의 그날에도 포화의 날에도
사랑하는 사람들 찾지 못했네

마음속에 그리던 금강에 오니
산천도 사람들도 정다웁고나

세월이 흘러서 눈이 오는가

보통속도로 절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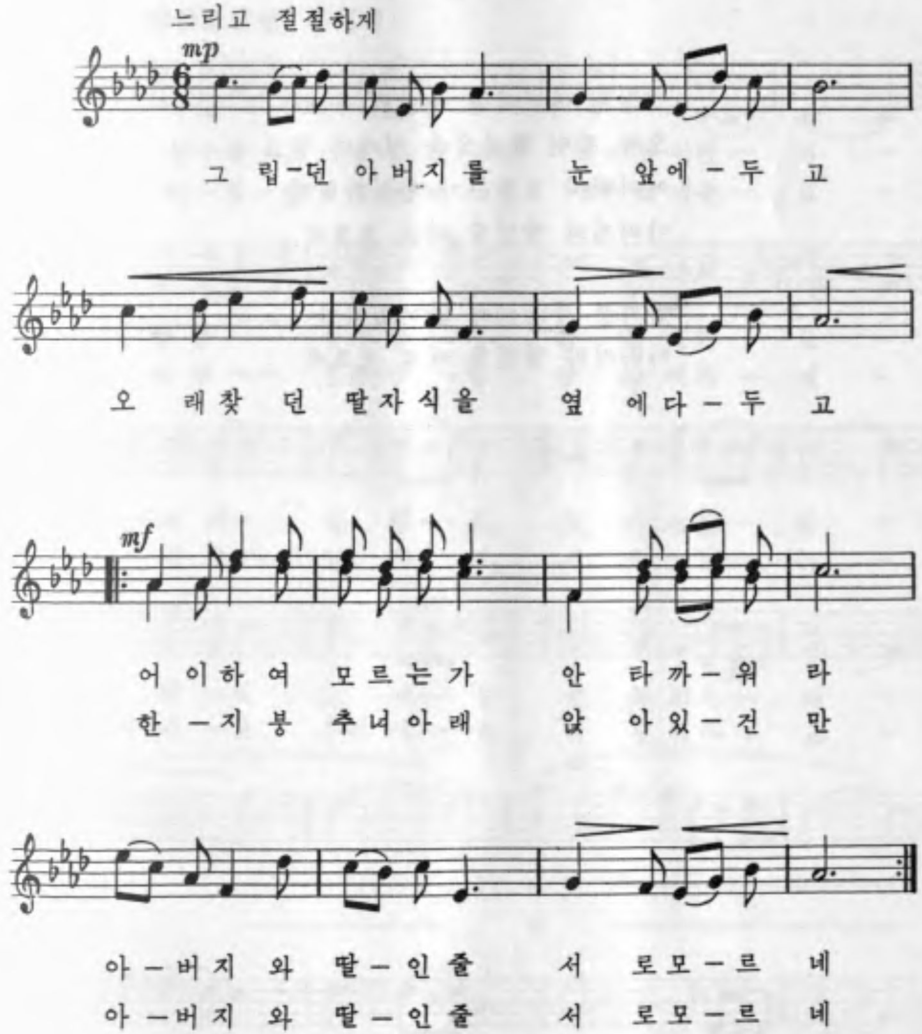


세월이 흘러서 눈이 오는가

불러도 아버지는 대답이 없고
설음에 찬 금강산만 메아리치네
어린 딸을 부여안고 설음에 우는
어머니의 가슴속엔 피눈물지네

세월이 흘러서 눈이 오는가
원한이 사무쳐 눈보라 치는가
저주로운 이 세상 살곳 어데냐
어머니는 가슴치며 떠나가누나

그립던 아버지를 눈앞에 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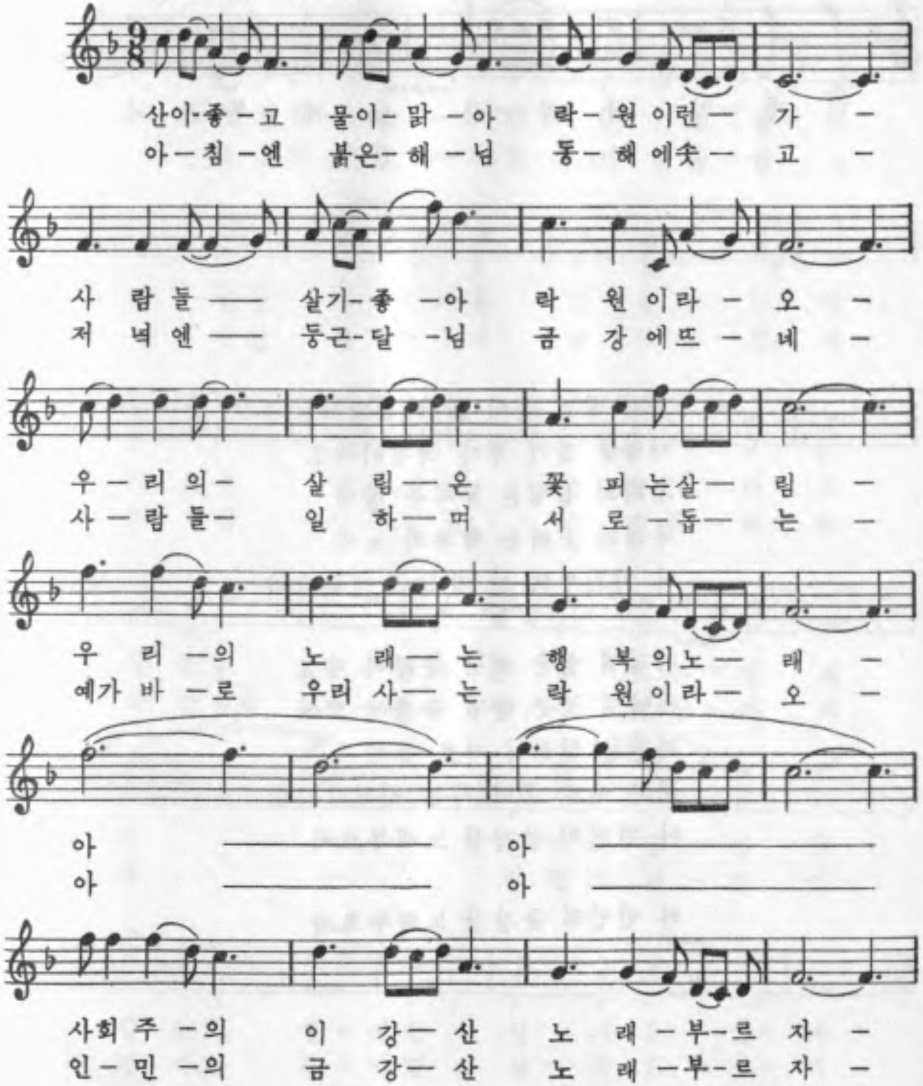


그립던 아버지를 눈앞에 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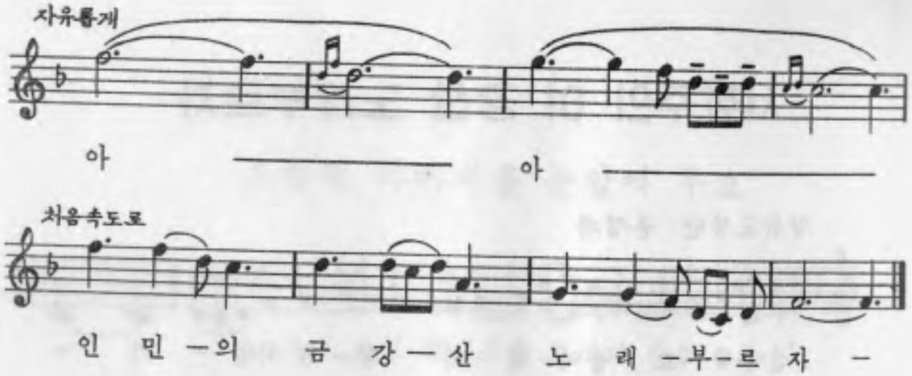
그립던 아버지를 눈앞에 두고
오래 찾던 딸자식을 옆에다 두고
어이하여 모르는가 안타까워라
아버지와 딸인줄 서로 모르네

한지붕 추녀아래 앉아있건만
아버지와 딸인줄 서로 모르네

사회주의 이 강산 노래부르자

양산도장단 흥겹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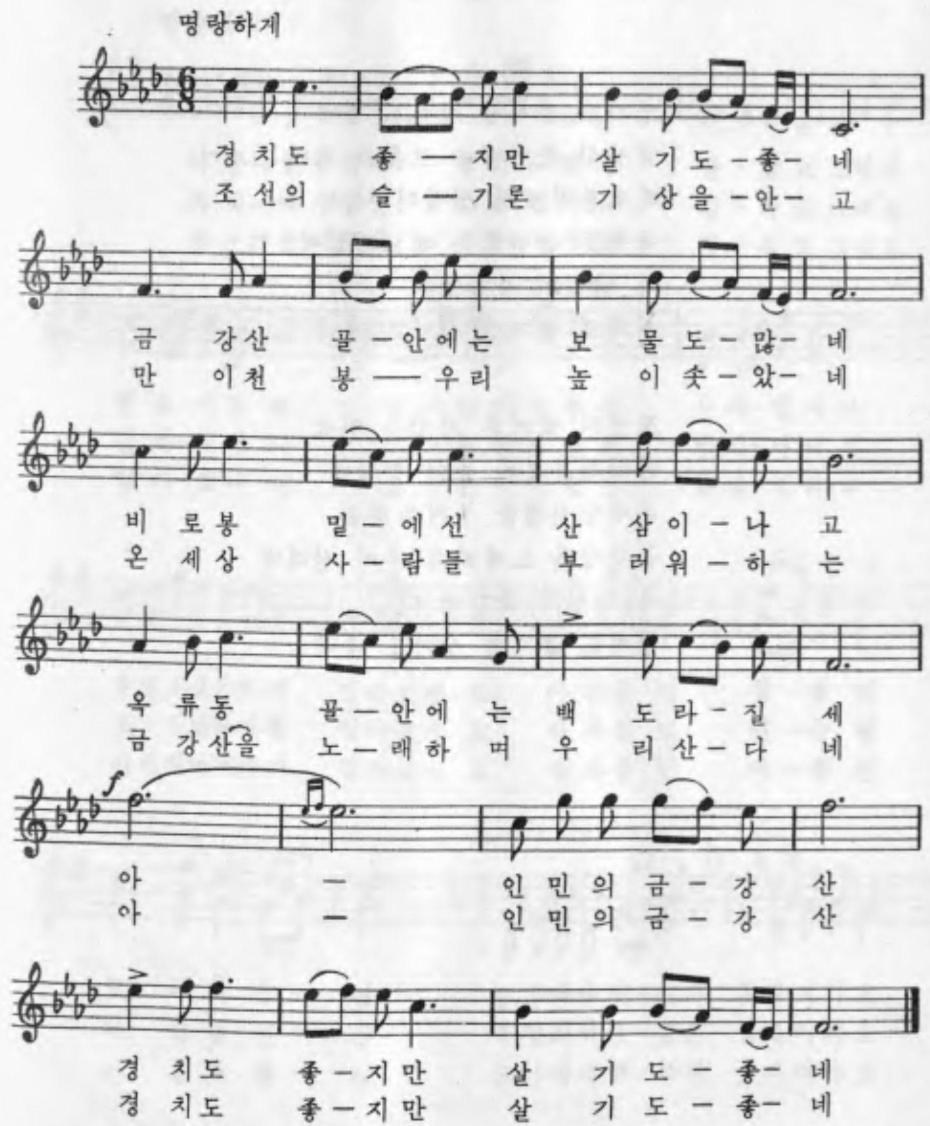




산이 좋고 물이 맑아 락원이런가
사람들 살기 좋아 락원이라오
우리의 살림은 꽃피는 살림
우리의 노래는 행복의 노래
아 사회주의 이 강산 노래부르자

아침엔 붉은 해님 동해에 솟고
저녁엔 둥근 달님 금강에 뜨네
사람들 일하며 서로 돕는
예가 바로 우리 사는 락원이라오
아 인민의 금강산 노래부르자

아 인민의 금강산 노래부르자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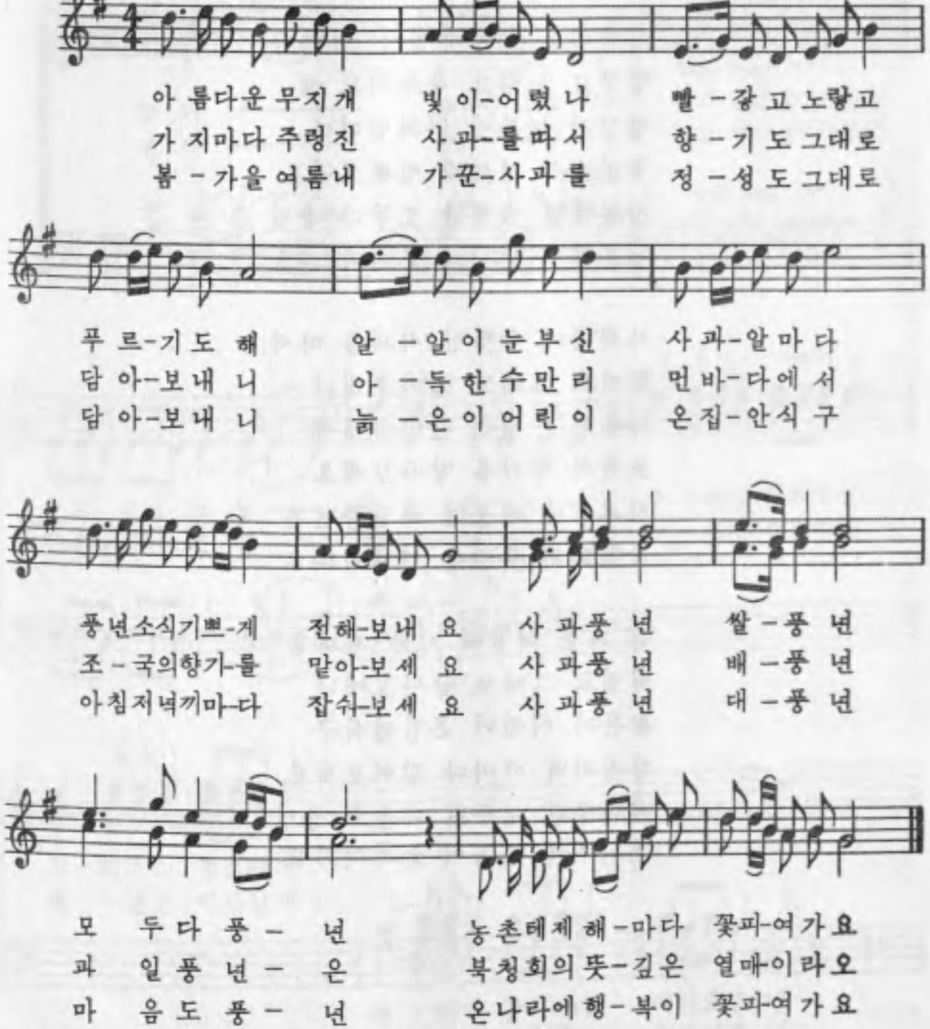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금강산 골안에는 보물도 많네
비로봉밑에선 산삼이 나고
옥류동 골안에는 백도라질세
아 인민의 금강산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조선의 슬기론 기상을 안고
만이천봉우리 높이 솟았네
온세상사람들 부러워하는
금강산을 노래하며 우리 산다네
아 인민의 금강산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사과풍년

명랑하게



사과풍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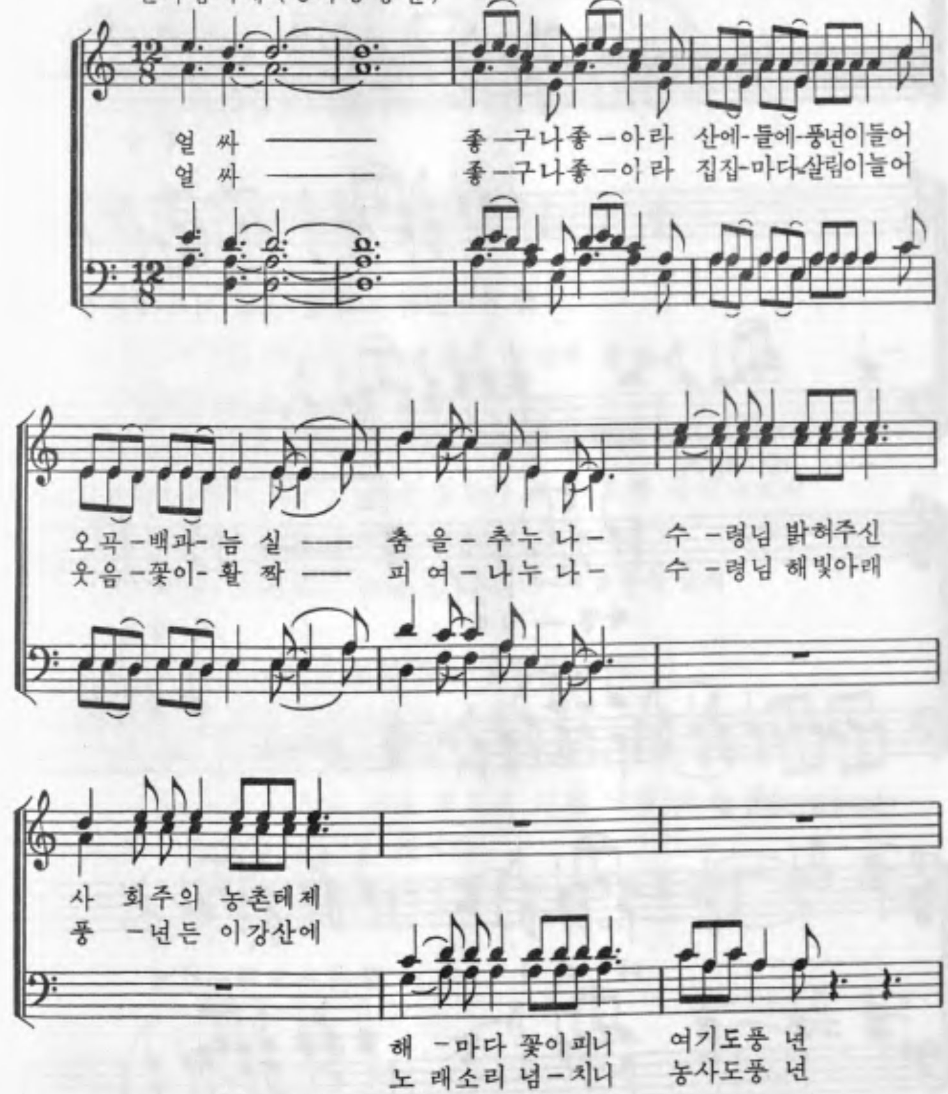
아름다운 무지개 빛이 어렸나
빨갛고 노랗고 푸르기도 해
알알이 눈부신 사과알마다
풍년소식 기쁘게 전해보내요
사과풍년 쌀풍년 모두다 풍년
농촌테제 해마다 꽃피여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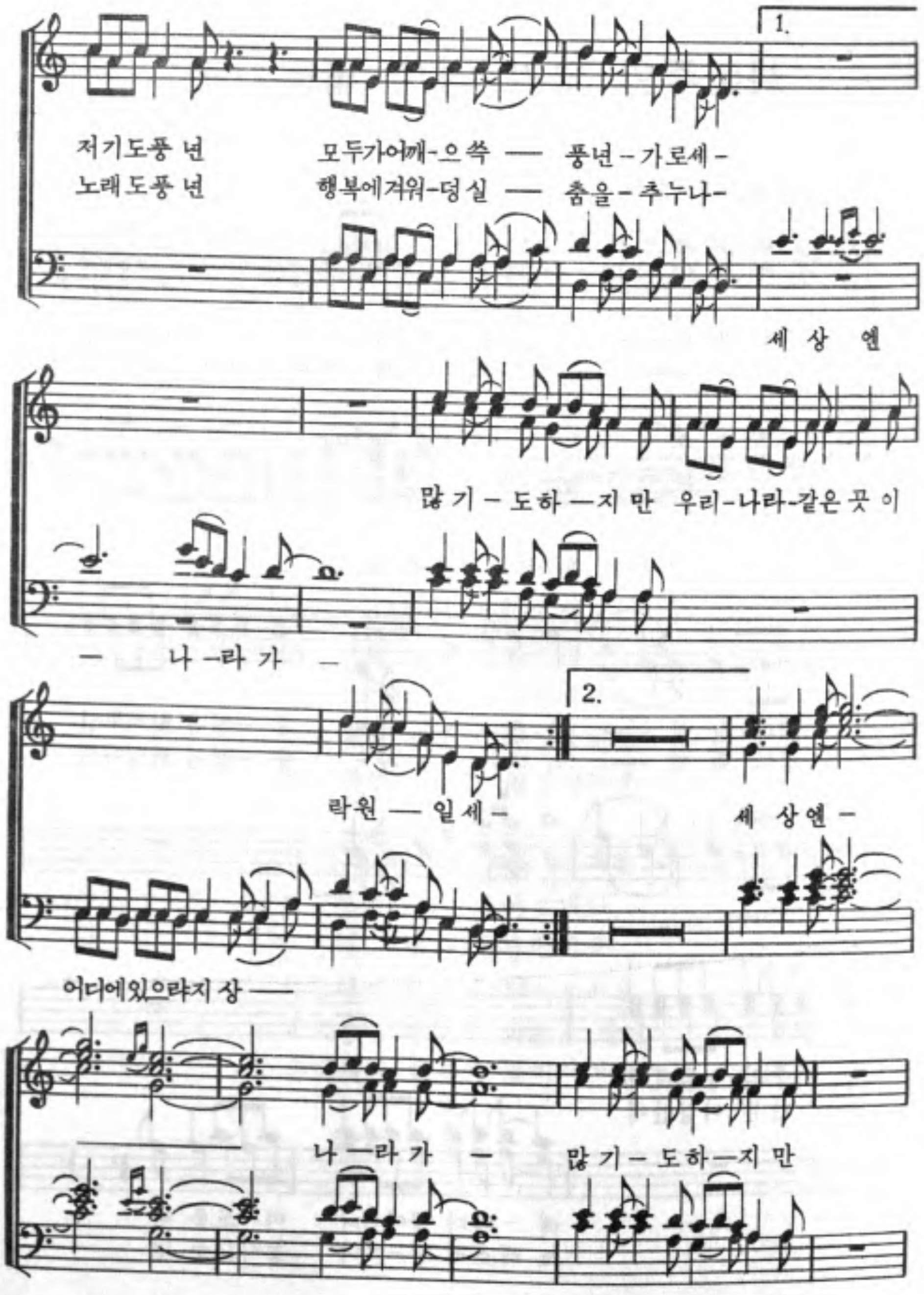
가지마다 주렁진 사과를 따서
향기도 그대로 담아보내니
아득한 수만리 먼바다에서
조국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사과풍년 배풍년 과일풍년은
북청회의 뜻깊은 열매이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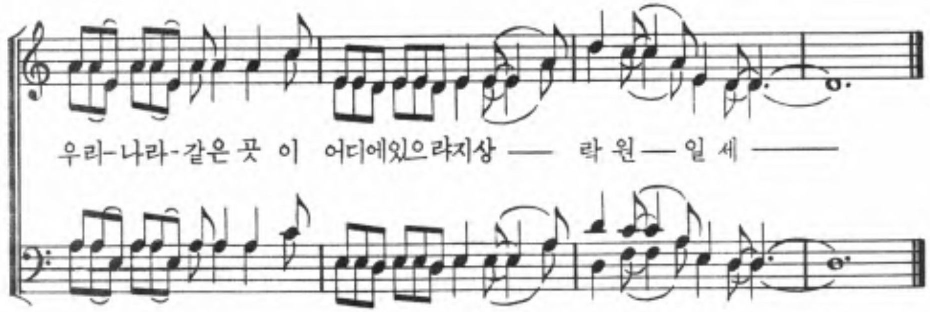
봄 가을 여름내 가꾼 사과를
정성도 그대로 담아보내니
늙은이 어린이 온집안식구
아침저녁 끼마다 잡숴보세요
사과풍년 대풍년 마음도 풍년
온나라에 행복이 꽃피여가요

사회주의 우리 농촌 좋을시구

신바람나게 (덩덕궁장단)







얼싸 좋구나 좋아라 산에 들에 풍년이 들어
오곡백과 늠실 춤을 추누나
수령님 밝혀주신 사회주의농촌테제 해마다 꽃이 피니
여기도 풍년 저기도 풍년 모두가 어깨 으쓱 풍년가로세
세상엔 나라가 많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 같은곳이 어디에 있으랴 지상락원일세

얼싸좋구나 좋아라 집집마다 살림이 늘어
웃음꽃이 활짝 피여나누나
수령님 해빛아래 풍년든 이 강산에 노래소리 넘치니
농사도 풍년 노래도 풍년 행복에 겨워 덩실 춤을 추누나
세상엔 나라가 많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 같은곳이 어디에 있으랴 지상락원일세

혁명가극 선곡집

발행소 문 예 출 판 사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선교구역 선교 3 동
발 행 1973 년 4 월 15 일

No. 35036